



124호 (2023년 여름호)

by 사무처 posted JUN 20, 2023

서울사대부고동창회보124호.pdf



SEOUL NATIONAL UNIVERSITY HIGH SCHOOL ALUMNI NEWSLETTER



서울사대부고

2023 여름호 제124호 동창회보

한국공연예술원
이사장
양혜숙 7회



김용기 화백 작품
부고·총동에 기증

김진국 23회



애호박을
말하다

유서영 20회

천하부고여
영원하라!

선농축전
1500여 명
행복체험



Since 1946

호텔·관광업
해결사
장덕상 30회



맨발 마라토너
태평양 섬마을
선생님

장창환 24회

생물반 선후배의
'로펌 동행'

김우석 41회 윤범준 45회



창호야!
우린 널
잊을 수 없어

32회



민화
행복으로의 여정

송지수 62회



한양사이버대학교
www.hycu.ac.kr



2023년도 2학기 신입입생 모집

NICE HYCU

No.1 Cyber Education
명문 한양사이버대학교

모집 일정

2023.06.01(목) ~ 07.13(목)



행운을 타승해 꽃피우자

그림·맛글씨 박병철(38회)

'좋은 때'를 기다리다 '좋은 때'를 놓칩니다.
완벽한 시간, 나이, 상황을 기다리지만 늘 또 다른 이유로
안하여 완벽한 때는 다음에 있을 것 같아 미련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알
면서도 늘 지난 후에 그때 시작하지 않았음을 후회합니다.
후배들을 만나면 그동안 빨리 시작하지 못해 아쉬웠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지금 시작하면 좋은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를 듣고 바로 시작하는 후배들이나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후배들에게는 오늘 당장 시작하라고 하며 그러면 후에 참 좋다
고 하면서 나는 왜 오늘 당장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살아갈 날들에 대해 선배들이 살아본 경험을 이야기해 줍
니다. 미리 준비하고 시작하면 좋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지만 살
아보지 않았기에 잘 와닿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있나요?
조금 더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있나요?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기로 해요.
지금이 '때가 되면'의 그 '때'입니다.
그동안 하고 싶다고 마음에 품었던 바로 그 일의 아주 작은 것
이라도 오늘 당장 시작하는 멋진 당신을 응원합니다.

편집위원 일동

CONTENTS 목차

COVER STORY & NEWS

- 04 [30회 선농축전 특집] 천하부고여-영원하리라
선농축전 1500여 명의 외침
- 06 [30회 선농축전 특집] 기념 후일담
- 18 [30회 선농축전 특집] 선농축전 스케치
- 21 풀림뉴스 미주 연수 프로그램 DIA,
부고 재학생 美서부 동문들 동방 확정 쉼
- 22 회원동정
- 24 미주일 고주말
- 26 신간인내

PEOPLE

- 28 양혜숙(7회) 한국공인예술원 이사장
- 30 김진국(23회) 부친 김용기 화백 작품 모교 기준
- 32 장왕환(24회) '사이판 명사' 농악이 수확·체육선생님
- 34 장덕상(30회) (주)모브 퍼트니스 부사장
- 36 김우석(41회)·윤범준(45회) 법무법인 예회 변호사

ARTICLE

- 38 유서연(26회) 예호비를 말하다
- 40 송지수(62회) 민화, 행복으로의 여정

MEMBERS & BRANCH

- 42 글로벌 동창회 소식
뉴욕 동창회 / 애들턴타 동창회
시애틀 동창회 / 남가주 동창회 외
- 44 종종 강매인 도움에 하나된 '재인동문회'
- 46 부산 울산지회 불소풍
꽃밭에 앉아서 꽃임을 보내
- 47 지회소식
- 50 졸업 45주년 30회 기념 여행기
낭만 기록 나머나라 추억 만들기
- 54 32회故 정창호 10주기 추모 사진전
창호애 우린, 날 잊을 수가 없어
- 56 동기회소식
- 64 임원회비 및 민회에 납부자 명단

ALMA MATER NEWS

- 66 모교소식



2만 8천 명이 구독하는 동창회보

발행인 이진형 발행일 2023년 6월 1일 발행처 서울시마포구동창회 홈페이지 www.snubugo.net
 편집위원장 한정권(31회) 편집위원 권고철(24회) 김진혁(27회) 송민기(30회) 이윤형(33회) 조용식(35회) 유한경(36회) 문호숙(38회) 임재홍(41회) 전수용(45회)
 주소 04600 서울시 중구 단산로 43 전화 02)588-7671 팩스 02)588-7672 이메일 snubugo@chol.com 디자인 한스 02-3273-1247
 1982년 12월 15일 첫호기 발행된 서울사대부고동창회보는 2만 8천여 동문과 더불어 동창회 4대 지요인 참여 대화-협력 번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천하부고여~ 영원하라!...

우렁찬 함성의 소리가 울려 퍼진 제30회 선농축전 참석자 모두가 고등학교 시절로 되돌아간 듯 청춘의 풋풋한 모습을 담고 있었다.

동창회 사무처 추산, 1500여 명이 참석한 제30회 선농축전이 5월 14일 오전 10시 총동문산악회의 5월 산행지인 '천장산 하늘길' 산책으로 시작했다. 산행에 앞서 '천하부고여 영원하라!'라고 적힌 걸개 현수막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한 산행팀은 1시간 30분에 걸쳐 천장산 하늘길을 다녀왔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개막식에서 이진형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농축전이 열리는 오늘은, 우리 모두가 청춘의 시절로 돌아가는 날"이라며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풋풋했던 학생 때의 기억을 나누고, 선·후배들과 답소하며, 즐거웠던 그 시절로 돌아가 즐겁고 유익하고 보람된 선농축전을 마음껏 만끽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졸업 50주년, 40주년, 30주년을 기념하여 25회, 35회가 각각 1000만원, 45회가 500만원의 특별기금을 총동창회에 전달했다. 또한 스승의 날을 맞아 총동창회에서 모교 교직원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화문 교보생명 글판 제작으로 잘 알려진 캘리그래피스트(글씨 예술가)인 박병철 동문(36회)의 한글파티 퍼포먼스를 통해 '한글의 멋과 아름다움'을 알리는 글쓰기, 엽서 쓰기 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천하부고여 영원하라!'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에는 선농축전 참가 동문들의 축하의 응원 메시지로 가득했다.



레크리에이션과 공연으로 이어진 선농축전 2부 행사에서는 25회 동창들의 춤바덴스, 27회 계용준 동문의 아코디언 연주와 노래, 45회 이보승 동문의 라틴댄스, 24회 송한식 동문과 황기하 동문의 어쿠스틱 기타 연주, 35회 밴드(주현진, 김석갑, 홍진영, 김영웅, 이애용)의 공연으로 흥겨운 축제의 장을 펼쳤다.

이날 선농축전에서는 최다참가상으로 졸업 55주년을 맞아 84명이 참석한 20회가 차지했으며, 17회, 21회, 24회, 25회에도 참가상이 주어졌다.

OX 퀴즈에서는 고원섭 동문(39회)이 우승(상금 1백만원)했으며, 행운권 추첨에서는 유현주 동문(39회)이 서울-방콕 왕복항공권 2매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시상식에 이어 교가제창, 폐회선언으로 선농축전을 마친 동문들은 자발적으로 운동장 및 교정 주변을 정리하여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선농축전 1500여 명의 외침



▶찬조내역

- 동창회 발전기금

25회 1000만원 / 35회 1000만원 / 45회 500만원

- 개인후원금

200만원 : 23회 이규용, 26회 이진형

100만원 : 7회 김충한, 13회 김무일, 14회 허수창,

16회 김윤중, 20회 유인선, 25회 이강년,

27회 심상인

30만원 : 5회 신현태

- 기별후원

100만원 : 17회, 18회, 20회, 21회, 22회, 23회,

24회, 26회, 27회, 28회, 29회, 30회,

31회, 32회, 33회, 34회, 36회, 37회

50만원 : 13회, 14회, 15회, 16회, 16왕, 19회, 39회,

41회, 42회, 43회, 44회, 46회, 47회, 48회

30만원 : 38회

- 지회후원

50만원 : 청구회, 선봉회, 탁우회, 선농당구회, 그린필드,

충동문산악회, 선녀회, 선경회, 기우회, 도서반

- 물품 협찬

12회 변주선 대림성모병원 초음파 김진권 (2매)

13회 이병욱 TUMI가방, 커피잔set, 스카프 외

17회 성기학 영원부역 노스페이스 등산 양말 3200개

19회 강상빈 안데스 미네랄 핑크소금 4가지 100개

25회 유재홍 가농바이오 계란 120세트

31회 한경준 한국도자기 커피잔set, 카카오탍상시계,

강아지인형

35회 김영숙 마이클코어스 가방 5개

35회 조용식 캠핑용 개인 화로 12개, 중국 사천성

순품량 블루 700ml 4개

35회 전중구 파파콘스 피자 100판

36회 이주연 아이두비 누룽지

36회 정순철 SOG 차량용 향기 액자 20개

36회 홍지숙 이지듀 화장품 3종 세트 70개

39회 이상민 네오메디 니들패치 200개



4회 김정자 회장과 14회 제자 강숙자



서로를 알아보곤 와락 부등켜 안고

▶4회 오랜만에 미국에서 온 심정선 동문과 김태희, 김정자 세 명이 선농축전에 참석하였다. 모교의 후배들과 즐거운 때를 보내고 중2때 담임을 했던 14회 강숙자 제자를 만나니 더욱 반가웠다. 내년에는 더 많은 4회 친구들이 참석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7회 2023년 선농축전과 이런저런 이야기들... 오래전부터 해마다 봄이 되면 이처럼 버리고 또 별려서 지르는 행사가 바로 우리의 서울사대부고 선농축전 행사이다. 올해도 여전히 기다리던 선농축전의 날이 밝았다. 우리 모두가 염원하던 대로 날씨는 쾌청이다.

매마침 오월의 끝 모르게 푸르고 높은 하늘과 싱그러운 신록이 봄바람에 팔라이며 우리들의 마음을 희망과 즐거움으로 들뜨게 하는 길가의 가로수 풍경들...

넓은 운동장에는 수많은 새 하얀색 텐트를 사각형으로 둘러 설치된 텐트마다 북청색으로 각각 몇 회 몇 기를 표시한 숫자가 눈에 확 들어온다. 무슨 용기에선지 나는 드넓게 깔린 푸른 인조 잔디 위를 본부석의 신명 나는 음악 소리 행진곡 삼아 보루도 당당하게 최단 거리 직선으로 걸어서 7회에 준비된 좌석에 편히 앉았다. 우리들의 모교 사대부고는 정말 대단하다. 어쩌면 이렇게 해마다 거창하고도 화려하게 큰 잔치를 마련한 본부 운영진 후배들도 열성적이지만, 거기에 부응하여 세계 각국 곳곳에서 이때를 기다려서 모여드는 여러 기수 동문들의 모습도 눈물겹다.

서로를 묻고 물어 더듬어 찾아와서 알아보고는 와락 부등켜안고 붙을 쓰다듬는 모습, 서로 멤버를 바꾸어 가면서 설새도 없이 연속적으로 나란히 서서 너도나도 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서로의 건강을 다독이는 모습... 그들은 이미 쓰디쓰고 달기도 한 인생의 역정을 지나온 우리 인생의 완성도에 이른 백발의 고령층들이다. 마치 남북 이산가족도 임처럼 마음 한구석이 숙연해진다.



선농축전 행사 무대에 올라가서 신나게 춤을 추고 노래하며 참여하기에는 너무나 노령층이 된 우리 기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박수 부대로 남아 이를 지켜보면서 지난날 이맘때 수목이 질푸르렀던 관악산 서울대 캠퍼스 내에서 거행되었던 시절을 되돌아보며 회상에 잠기기도 했다.

너무 피곤해진 우리는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만 이 신나고 아름다운 선농축전 자리를 떠나야만 되었다. 생각을 해보니 명함만 한 종이에 졸업 기수와 성명을 써서 냈었는데 어쩌면 당첨이 되었을지도 모를 이 로또 당첨 기회는 남은 후배에게 선물을 하며, 귀갓길에 오르면서 마치 오늘 신기루를 타고 어딘가 행복한 나라의 엘리스가 되었던 느낌이다.

▶9회 을지로의 운동장 없는 교사에서 졸업한 우리 9기는 발전한 모교의 드넓은 운동장에 짹~펼쳐진 기별천막만으로도 가슴부듯한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우리 기는 28명의 남여 동문이 참가하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덕담을 나누며 후배들의 재능잔치를 사랑가득한 마음으로 즐겼다. 그래도 아쉬워 부근 식당에 다시 모여 뒷풀이까지 즐겼다. 잔치집다운 푸짐한 먹거리, 집행부의 짜임새있는 기획, 열성적인 움직임, 30회 관록이 느껴졌다. 기획에서 진행, 뒷처리까지 빈틈없이 해 낸 집행부 후배들에게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9회



10회

..우린 행복한 앨리스가 되었다

▶10회 선농축전에 43명의 동창이 참석했습니다. 80대 중반의 나이로는 꽤 많은 동문이 참가하여 하루를 즐겼습니다. 여러가지로 수고하신 총동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날 느꼈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식사 배정 문제입니다. 한번에 배정이 어렵다면 나이가든 순번대로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0회는 1차 배정 때는 하나도 못받고 12시 30분경, 2차 때 30개, 마지막 1시 30분경에 10개를 받아 식사를 못하고 간 동창이 5명이나 되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두번째는 축제 행사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철저한 연습을 하고 출연했는데 너무나 산만하여 모두가 외면하는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 참가상 문제입니다. 지난번과 같은 방법이라면 나이 많은 기에서는 수상할 방법이 없겠지요. 저희 10회는 작년에는 40명이 참가하여 참가상을 받았는데 금년에 43명이 참석했습니다. 노파심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행사 치르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회 우리 11회는 지난 4월 18일부터 휴피 공지란에 선농 축전 일정표와 장소 약도를 올리고 참가희망자를 기다렸다. 하나둘 전화가 오더니 5월 10일에 21명이 되어 기뻐했다. 총동창 본부에서 모임에 적절한 홍보물, "응답하라, 부고인이며!", "선농 축전 Food Style"에 도시락, 피자 그림. 마지막에 11회 텐트 위치까지 알려 준 섬세한 수고에 감사를 표한다. 날씨 또한 한몫을 단단히 한 축제였다. 파란 하늘에 만국기가 휘날리는 모교 교문을 들어서는 기분은 고교 시절 월요일에 밴드 소리에 발맞춰서 강당으로 입장하는 바로 그것이었다.

심재범 씨가 이연섭 씨와 함께 의자 30개와 식탁을 옮겨 놓았다고 해서 고맙다. 도착해 보니 짐이 여러 개다. 한 손에 지팡이를 짚으면서 일한 재범 씨 얼굴은 행복해 보였다. 사과부터 준비하자고 해서 돌이 과일, 오이, 피자 등을 각기 3

접시씩 준비했다. 재범 씨는 큰 칼로 수박을 힘있게 잘도 썬다. 남녀공학이 좋은 점을 새삼 느꼈다. 오랜만에 보는 바보 씨를 썬 쓰레기를 정리하면서 상자로 작은 테이블을 만들고, 컵을 보관하고 있다가 오는 친구에게 물을 대접했다.

11회 친구들에게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오라고 했다. 상을 다 차렸는데 10시다. 우리 옆 9회 선배님들 식탁 위가 조용했다. 재범 씨와 돌이서 한 접시씩 선배님들께 대접하자고 했다. 접시를 받은 선배님은 "아이고 우리도 와요, 그 런데 좀 늦나 봐요?"라고 하신다. 얼마를 지나 약속한 친구들이 오기 시작해서 손도, 눈도, 입도 바빴다. 그 와중에 누가 "이거 9회에서 주는 거요." 하면서 예쁘게 담은 과자 한 접시를 주신다. 참 기분 좋은 날이다.

11회 미주 회장 선우 정수가 양은숙이랑 등장했다. 모두 일어나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점심을 먹는 자리가 비좁았다. 도시락, 피자 등등 본부에서 준 음식도 꽤 맛있었다. 앞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이야기꽃을 피웠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생맥주잔을 나누며 웃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9회 손경혜 언니네 텐트와 그 옆에 10회 규진 언니네 텐트를 보고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1년 선배인데 43명이 참석했다. 11회도 항상 다수 참석으로 우승했는데 이걸 보면 "나이 탓은 아니다"란 생각이 들어 아쉬움이 밀려왔다.

미국서 온 선우 정수는 후배들의 행사 모습을 찍느라고 눈을 떼지 못하고 있더니, "애들아, 난 항상 11회 가을 테마에 맞춰서 서울을 와서 봄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와 보니 너무 아름답고, 특히 선농 축전은 참석할 만하다. 참 잘 왔다."라고 해서 한바탕 웃었다. 햇볕에 오래 있었던 탓인지 친구들이 눈이 따갑다고 한다. 9회 선배들을 보며 "저 선배님들 일어서면 그 후에 우리도 가자"라고 한 약속대로 선배님들이 떠난 후에 교문을 나왔다. 뒤에서 큰 소리로 "난 4회인데 몇 회냐?"라고 묻는다. 11회라고 대답했다. 선배 언



11회



12회



13회



14회

나는 91세라는데 자세가 바르시다. 사대 부중 선생님이로 12회부터 가르치셨다고 한다. 전철로 동행하던 우리 셋은 다졌겠다. 4회 선배처럼 건강하게 살면서 5월엔 여기 11회 텐트에서 만나자!

▶12회 선농축전에는 14명이 참석해 즐겁고 뿌듯한 하루를 보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아침바다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쓴 총동 임원진과 참여한 모든 동문들에게 감사한 마음도 전했다.

▶13회 우리 52명 동문들이 모교 교정에 모여,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들과 그간 안부를 전하며 즐겁게 마주 앉아 정을 나누는 하루였다. 청소년기부터 우리를 인연은 이 날 한자리에 만남 만으로도 허전하고 외로운 노년기 우리들 마음에 반가움과 따뜻한 위로 속의 소중한 행복 체험이었다. 시원한 수박과 음료 외 간식거리를 준비해 온 조지명 동문, 매년 고급행을 공급해 주는 이병욱 동문, 바쁜 일정에도 축제 후 13회 별도 회식 자리를 마련해 주려 참석했다 돌아선 김무일 동문, 그리고 정숙자, 조한익, 최덕순, 한미자 동문의 동창회 찬조금 등 모두 고맙고 감사함 뿐이다. 이런 큰 동문 행사 때는 국내 동문 뿐 아니고 해외 동문도 함께 하지 못 한 아쉬움을 느낀다. 금년 선농축전 준비에 애쓰신 우리 13회 임원, 또 큰 행사를 운영기회한 총동문회 노고에 감사드린다. 부디 우리 노년기에 건강 유지하며 여러 모임에 많은 동문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여 즐거움을 오래오래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같이 마주했던 얼굴들〉

권금자 김민자 김춘자 박영자 임준영 오숙정 원춘자 이마숙

이병욱 이순자 이희자 장순주 전원자 정광자 정성자 정숙자 조지명 최덕순 최문자 최영자 최옥자 한미자 허영숙 황무자 광정선 김성태 김무일 김영훈 김일홍 김재관 나길웅 류형운 박성학 박영림 박준수 변영일 서종은 손근송 김희숙 서세웅 윤건신 윤삼열 이강섭 이기재 이의돈 이형이 해린 정규현 정김원 조한익 최영준 현광언

▶14회 선농축전은 우리에게 말 그대로 축제다. 동기들 전체가 모임 기회가 별로 없다보니 선농축전에서 반가운 친구들과 만날 일이 기대되어 며칠 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서로 참가여부를 묻기도 하며 기다리는 날이었다. 이번에도 57명의 동기들이 건강하게 나와서 함께 밥 먹고 간식도 나누고 함께 사진 찍고,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멀리 강원도, 충청도에 사는 친구들도 머다 알고 달려 온다.

시작 전에 천장산까지의 짧은 산책도 좋다. 뭔가 잠시 운동도 했다는 생각에 보람 있는 하루가 되는 기분이다. 이런 기회에 선배님들을 만나는 일도 뜻있는 일이다. 고교때 독일어를 가르치셨던 양혜숙 선배님이나 중학교 때 체육을 가르치셨던 김정자 선배님을 찾아가 인사도 나누고 선배 후배인 가족들을 찾아 보는 일도 즐겁다.

우리 14회도 선농축전에서 훌라춤이며 백조의 호수, 윌즈 등 직접 공연을 한 추억이 생생한데 이젠 가만히 앉아 후배들의 공연을 보고만 있으려니 좀 답답했고 나가서 함께 추고도 싶었지만 그렇게 못하는 마음을 후배들은 알리는지... 축제가 구경만하는 축제가 아니고 선배 후배가 어울려 운동장에서 간단한 포크댄스도 함께 추고 박수치며 함께 노래부르고 하는 그야말로 모두의 축제가 되어 돌아갈 때 뿌듯한 느낌을 갖는 그런 축제가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했다.



15회



16회



16회(밤)



17회

▶15회 졸업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지만 세월을 이겨내기 힘들지는 않을까 하고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지난 해와 비슷한 40여명이 모여 1년만의 축제를 즐겼다. 맑고 따뜻한 5월의 화창한 날에 모교 운동장으로 모여드는 동기들은 물론 선후배가 하나같이 밝고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담소를 나눴다. 8순을 맞는 동기들은 나이가 남녀의 장벽도 없었는지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거리낌없이 두 손을 맞잡고 악수와 포옹으로 정겨움을 나눴다. 전에는 열심히던 동창들 중 이미 세상을 등졌거나 건강문제로 어쩔 수 없이 빠진 동기들의 소식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하지만 아직 건강할 많은 동기들은 천장산에서 건강을 자랑하고, 우리를 환영하는 듯 전보다 훨씬 활성화된 축제 분위기, 한결 질 높아진 도시락, 잘 준비된 시원한 생맥주와 피자, 분식 등 간식은 한층 분위기를 돋웠고 해외여행 티켓 등 경품까지 한층 흥을 더하게 만들었다. 참석 인원이 적을 것 같아 걱정했던 저녁자리에도 30여명이 자리를 같이하여 무심한 안주를 곁들인 몇 잔 술로 즐겁고 흥겨운 뒤풀이가 되었다. 7월의 60주년 기념 해외여행과 가을의 국내여행을 앞두고 기대에 가슴 부풀 동기들에게 이런 즐겁고 멋진 자리를 만들어준 동창회에 감사를 드리며 동창회가 나날이 발전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한다.

▶16회 내가 16회 회장을 맡고 3월말 시산제를하고 두 번째 동기들 모두가 참석하는 큰 행사다. 그간 카북을 통해 미리 참석인원 체크하고 간단한 간식거리도 준비하고, 아침 일찍 집에서 나서 중앙동 부교 운동장에 도착하니 9시 30분이다. 벌써 천장산 올라가는 팀이 운동장에 모여 출발하고 있다. 넓은 운동장을 둘러싸고 기별 텐트도 잘 쳐있고 의자도 준비되어 있었다. 우리 회장단은 모자라는 의자

더 확보하고 자리를 마련하여 하나 둘씩 오는 동문들을 맞이하였다. 모두 48명이 서로 삼삼오오 모여 앉아 총동에서 마련한 시원한 맥주와 준비해간 간식, 또 이번에는 총동에서 특별히 신경써서 마련한 도시락과 그의 간식거리, 피자 등이 맛이 있고 훌륭했다. 이런 좋은음식들을 먹으며 서로 이야기 나누며 모처럼 만난 친구들의 근황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1시 30분부터 시작한다는 개회식이 늦어지고 그 이후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경품 추첨은 교가 끝나고 헤어질 때 발표하니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당첨됐어도 벌써 나간 후라 받지도 못한 경우가 생겼다. 내년에는 이런 점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몸이 불편한 친구 또 일이 있는 친구들은 먼저 가고 26명이 근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저녁을 먹고 헤어졌다. 오늘 하루 오랫동안 함께 자리한 친구들과 이런 큰 행사에 수고 많이 하시고 애써주신 총동 식구들에게 감사인사 드리며 내년에는 더 발전되고 알찬 행사를 기대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6회(왕) 매년 맞는 선농축제이지만 오늘만은 남다르게 기대가 큰 날이었다. 새로운 총동 회장단의 야심찬 기획으로 축제가 열리기 때문이다. 아침 일찍 서둘러 도착하여 보니 벌써 많은 동문들이 모여있어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예전의 산우회 일부 회원들이 모여 작년의 수목원 둘레길과는 달리 올해는 천장산 등산을 한다며, 설레는 마음으로 운동장에 모여 주최측에서 준비한 물과 간식을 받아들이고 후미에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산우회 회원들의 이야기로는 천장산 둘레길 입구를 지나 계단길을 오르니 콘크리트 담장에 멋진 그림이 그려져 있어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었으며, 천장산의 고도가 해발



18회



19회

미국·캐나다·프랑스·호주 동문들 선

140미터라고하여 가벼운 산행인줄 알았는데, 끝없는 계단 길을 오르락 내리락하다보니 의외로 힘들었지만, 유쾌한 산행코스였다며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오고 싶다면, 앞으로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 가벼운 산행으로 체력을 길러야겠다고 다짐을 하였다고 한다.

산행에서 돌아온 일행들과 남아있는 회원들이 합석하여 자리를 정리한 후 주최측이 정성들여 준비한 음식들에 만족하며 삼삼오오 환담을 즐기었다. 동문들이 준비한 각종 행사를 바라보며, 시간을 많이 들여 준비한 동문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축제를 마친 우리들은 별도로 마련한 뒤풀이 식당에서 다시 한번 지난 학창시절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로 끝없는 대화를 나누었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동창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축제에 참여하자는 다짐을 한 자리이기도 하였다.

▶17회 오월의 푸른 하늘, 흰 구름이 두둥실 교정 위에 그림자처럼 수를 놓고 유유히 흐르며 하늘을 장식한다. 기수별 텐트에서는 이미 회원들이 미소 속에 두런두런 담소하며 마음을 나누고 있다. 간식을 나누어 주는 여유있고 부지런한 동문들도 있다. 간식이 풍성하여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이다. 넓은 운동장 건너 부대 위에서 진행자의 마이크 소리가 가슴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선농축제를 마음껏 즐기라는 신호를 하고 있다. 오전에는 기수별 활동으로 서로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다. 서로 악수와 미소, 환호와 포옹 등 반가움의 극치이다.

회비를 걷으며 인원파악에 골몰하는 회계는 한창 바쁘다. 점심이 나오고 맥주와 막걸리는 간간이 주당들을 설레게 한다. 식사 후 수박으로 후식을 하고 마이크 소리에 맞추어 행사에 발을 맞춘다. 노란티 하얀티 악기까지 등장하고 온몸을 크게 흔들며 춤을 추는 멋진 동문들도 있다. 두 시간여 흥을 돋운 장기자랑을 마치고 우수한 동문들에게 시상 후 교가를 부르며 선농축제를 마감하였다. 오랜만에 학창시절의 옛정을 나누며 마음껏 환호하며 청춘을 즐긴 하루였다. 전 교정을 내어주신 모교에 감사드리며 사용한

의자와 테이블을 정리한 후 정든 교정을 떠났다. 오소리 국밥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각자 귀가하였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영원부역 성기학 이사장님께 감사드리며 그 많은 기념품을 참가한 전원에게 주심에 감사 감사드린다.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이강선 회장님과 임원들께 감사드린다.

▶18회 2023년도는 18회 동문에게는 졸업 57주년 겸 회수(喜壽) 해가 되므로 이번 '선농축전'은 선후배 동창간의 축제이자 우리에게는 회수 잔치도 되는 셈이다.

천막 동키포지 현수막 수선, 돛자리 정비 등 보금자리를 편안히 챙겨준 정희, 도시락, 생맥주 배달 위해 수레까지 실고 온 영근, 해마다 김치 걸절이 봉사를 하는 순애, 행복한 표정 생생히 담아주려 부거운 카메라 메고 온 남영, 크고 작은 모임 비용 선뜻 부담하는 구하, 새벽부터 타자, 의자 정돈 깔끔히 해준 정민, 영애 등의 헌신이 18회를 항상 화기애애하게 만든다.

옥숙, 재민, 혜자, 기정, 재희, 형구, 순덕, 강현, 창희, 현상, 경임, 경희, 정숙, 천근, 두원, 경순, 종현, 현주, 사윤, 호영, 영욱, 완구, 정순, 창숙, 대연, 부귀, 은순, 송자, 상조, 정순, 화숙, 명자, 신희, 진영, 종민, 회태, 성완, 성현, 문숙, 영숙, 목자, 금진, 순실, 경옥 총 54명이 반갑게 얼굴들을 마주했다.

천장산 산책 후 총동문회에서 고심해서 내놓은 정갈한 도시락과 피자 생맥주를 곁들인 점심 식사를 모처럼 만난 동기와 함께 하는 즐거움은 축전의 백미이다. 경희 부회장이 밤늦도록 꼼꼼히 준비해 온 안주와 주류도 올려졌다. 축전이 폐회되고 18회만의 뒤풀이가 인근 유명식당에서 있었다. 구하의 경품 당선 선물인 고급 전복주 '호'이 이 자리의 동기 건강과 행운 기원 건배에 쓰였다. 축전 행사를 비롯해 동기화합 활동에 보태라며 안복규 동문은 200만 원의 찬조금을 쾌척해 주었다.

▶19회 선농축전에 우리 19회는 53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19회 동기들의 단합된 힘을 볼 수 있어서



20회



21회

농축전 맞춰 입국...이젠 글로벌 축제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좋았다. 불과 며칠 전에 튀르키예 해외 여행에서 돌아와 노독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친구들, 미국에서 온 친구들, 천장산 등산을 정기 산행 모임으로 변경하여 참석한 또래 산악회 회원들, 그리고 함께한 동기 벗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모두 즐겁고 유익하고 행복한 축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20회** 20회는 졸업55주년 홈커밍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5월 14일 선농축전을 시발점으로 십여일 간에 걸쳐 진행되는데 5월 15일 청와대와 경복궁 산책, 5월 16~17일 선유도 1박2일 단체여행, 5월 18일 골프대회, 5월 19일 홈커밍 행사, 5월 20일 Walk&Run 양재천 걷기에 이어 5월 21~25일 베트남 여행 등이 숨가쁘게 진행됐다. 행사 참가를 위해 미국, 캐나다와 독일에 거주하는 해외 동창들이 대거 입국했다.

선농축전이 있는 날, 교정에 들어서자 운동장에는 드높게 만국기가 펄럭이고, 학교 건물 전면에 '천하부고여, 영원하라!' 대형 플래카드가 칠순 중반 동기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삼삼오오 교문을 나서 천장산을 향한 트레킹에는 건널복마다 교풍안전 안내해주는 후배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오솔길로 접어들자마자 들려오는 산새 소리가 정겨웠다. 학교 다닐 적, 여학생에게 말도 붙이지 못했던 정주식군과 최규식군은 처음 보는 여동들과 안면 트느라 바쁘다. 테크 길을 지나 깔딱고개를 넘자 곧바로 천장산 정상에 나타났다. 천장산 정상 높이가 무려 140미터, 하늘 높이였다. 그것도 정상이라고, 정상에 올랐다면 단채로, 그리고 개별 인증사진을 찍는다고 분주했다. '야호~' 소리 지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었다. 교정으로 다시 돌아오니 어느새 배가 출출해졌다. 예년에 비해 한결 수준이 높아진 도시락, 피자, 군만두 등의 먹거리와 소주, 맥주, 탁주, 양주에다 여동들이 준비한 안주로 해외 동창과 국내 동창은 이미 구분이 없어졌다. 처음 참가한 해외 동창에게 선농축전은 천하부고 선후배들이 한자리에 뭉치는 현장체험의 기회였다. 졸업 50주년, 40주년, 30주년을 맞은 25회, 35회, 45회

후배 기수들의 재물잔치와 가무가 이어졌다. 끝내 참지 못한 20회 천진난만한 칠순 아해들이 운동장 한켠에서 몸을 흔들며대기 시작했다. 생각할수록 20회는 참 대단한 기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일등을 먹었다. 84명, 최다 참가상! 선농축전 준비하느라 고생한 총동 및 20회 동기회 임원들의 노고에 큰 박수 보낸다.

▶**21회** 쾌청한 하늘, 시원한 바람, 행사가 잘 될 것 같은 상쾌함을 느끼며 제1차로 모교운동장에 도착한 21회 임원들! 부스에 자랑스러운 21회 현수막 설치, 간식거리 세팅해 놓고 삼삼오오 입장하는 친구들 맞을 준비. ㅇ! 애당초 본부에 75명 신청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불참 통보한 친구들이 있어 아쉽게도 70명 등록. 작년에 최다참가상을 받은 21회가 올해도 도전해 보지만 70명으론 역부족임을 실감하면서 각 기별 부스를 채워가는 동문들의 모습에서 천하부고의 자부심을 한껏 느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에 걸맞는(?) 약하다는 여론도 있었음! 천장산 산행으로 행사는 시작되었고 뒤늦게 도착한 친구들은 서로의 근황과 안부를 묻는 가운데 하하호호 웃음꽃 속에 오전 시간은 훌쩍! OX퀴즈, 기별 공연 등 메인 행사가 끝나고, 드디어 다수참가상 시상식! 최다참가상 2등 21회 70명! 1등은 못했지만 2등은 먹었네! ♪ 내년엔 다시 1등에 도전하기로 결의를 다져본다.

자! 이제부터는 21회 시간! 생두부와 불낙전골이 기다리고 있는 두부촌으로~~ 우리들만의 알찬 2차 저녁 타임의 재미있고 흥미로운 얘기는 비공개로~.

▶**22회** '천하부고여 영원하라!' 교정에 들어서니 벽면의 반을 채우는 커다란 현수막이 첫눈에 들어온다. 언제 들어도 가슴벅찬 희망의 메시지다. 총동 새로운 회장단의 야심찬 결심이 보인다. 하늘에 펼쳐이는 오색 만국기는 빈 운동장을 가득채울 부고인들의 마음에 자긍심을 한껏 불어 넣어주리라~.

'제 30회 선농축전' 시작을 알리는 팽파레가 정말 멋지다.



22회



23회



24회



25회

즐비하게 늘어진 천막들 사이에서 찾은 22회 팻말이 반갑다. 그런데 일찍와서 의자정리에 여념이 없는 남동들이 분주하다. 오늘 참석 예약인원이 55명이니 의자 또한 그만큼 필요할데, 일일이 들어서 옮기느라니 얼마나 힘들까마는 힘든 내색 없이 열심이다. 부지런함이 엄청 등적해 보였다. 9시쯤 의자정리가 거의 끝나가니 많은 친구들이 모여든다. 멀리서 시간 맞춰 오느라 고생이었을텐데 하하호호 표정이 즐겁다.

9시 30분 천장산 산행이 시작되었다. 산행을 좋아하는 몇몇이 따라나섰다. 예년엔 홍릉수목원을 다녀왔는데 이번엔 천장산 코스다. 새로 만든 데크 길인데 계단이 많고 가파르다. 끝없이 계단이 이어지자 포기하는 친구도 있었다. 수목은 우거져서 완전 그늘이고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에 아카시아 향기며 풀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즐거움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1시간 반의 산행을 마치고 돌아오니 50여 명의 친구들이 천막안에 그득이다. 예년에는 3~4십명이 고작이었는데 올해는 대박이다. 나이가 드니 친구가 그리워진 까닭일까? 회장단의 끈질긴 독려 덕분일까? 특히나 졸업후 처음 만나는 친구가 한둘이 아니고, 호주에서, 밴쿠버에서, 미국에서 잠시 다니러 온 친구들도 녀댓명이 나 된다. 어떤 친구는 이제부터 한국과 외국에서 반반씩 살기로 했단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졌단 말도 되겠지만 내게는 친구가 그림다는말로 느껴졌다.

회장 김선옥과 박남준이 마른 안주 간식을 예쁘게 차려놓았다. 생맥주 안주로는 이만한 게 없으리. 술잔을 기울이며 삼삼오오 화기애애 이야기 꽃을 피우다보니 12시 점심 시간이다. 그런데 도시락 지급 순위가 밀려 우리 22회는 30분이나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니 회장단에서는 안절부절이다. 여회장단들은 본부서를 오가며 발을 동동 구르

는데~~ 이런 사태가 부담스러워 임원 되는 것을 꺼려 하는가보다. 그래도 오늘은 피자, 족갈비 등의 특식이 있어 배고픔까지는 면했다는~ 서글픈 야그~ 흐~. 후식은 수박이다. 시원한 수박이 달고 아삭하니 맛이 일품일세~.

김선옥 회장의 수박 썰는 솜씨에 김연숙 부회장과 일산의 이의상 회장의 봉사가 베풀려진 작품이었다오.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회장단의 손이 안 가는 게 없다. 그래서 봉사하는 회장단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이 우러난다. 2시부터 장기자랑시간이다.

30주년, 40주년, 50주년 기수들이 노래와 춤을 선보였다. 우리 기수는 코로나로 인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쳤음이 못내 아쉽다. 후배들 장기자랑 모습인데 특별히 기억되는 것은 별로 없지만 마음의 부담은 컸으리라 짐작된다. 장기자랑을 끝으로 선농축전 정기 밀정을 끝내고, 2차 뒤풀이 장소인 안암역 맥줏집에서 돈독한 우정을 다시 한번 전하게 나누었다. 남자30명 여자28명 모두 58명이 참석하여 모처럼 대성황을 이룬 멋진 하루였다. 천하부고 22회여, 영원하라~.

▶23회 우리에게 선농축전은 여러 가지 추억이 깃든 행사이다. 졸업 40주년에 대상을 받은 강강수월래 공연을 위하여 몇 달 합숙은 아니지만 단체 훈련했던 추억이 있다. 선농축전은 아침부터 장시간 친한 친구들과 같이하는 행사이며 총동에서 또 동기회 자체적으로 푸짐하게 음료와 간식을 제공해주는 기분 좋은 날이다. 또 이날은 몇몇 친구들에게는 공식적으로 낯술이 허용되는 날이기에 본 행사와 동기들과의 애프터 행사가 끝나면 기분 좋게 만취하여 하루를 마감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번에도 서너 명의 친구들이 갈지자 걸음으로 귀가한 것으로 다음 날 파악되었다.



26회



27회



28회



29회

금년도 선농축전에서 23회는 특별한 공연은 없었다. 다만 작년 11월 송년회 이후 다 같이 모인 행사가 없었기에 가능한 많은 친구들이 모여 즐거운 날을 함께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얼굴만 봐도 즐거워지는 친구들과 하루종일 웃고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하루가 흘러갔다.

금년에는 캐나다에서 1명, 프랑스에서 1명 그리고 미국에서 2명의 동기가 참석하였으며 총 50명의 동기가 이번 행사에 참석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친구들에게는 이제 선농축전날을 기준으로 입국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다. 이제 7학년으로 접어든 우리가 앞으로 나이 먹음의 추세를 거슬러서 해마다 더 많은 친구들이 선농축전에 참석하여 언젠가는 최다 참가상을 받는 것을 꿈꾼다.

▶24회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답게 화창한 봄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동창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코로나의 위세가 꺾이면서 이런저런 동창모임이 늘어났지만 동기동창뿐만 아니라 선후배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선농축전이 주는 의미는 각별하다. 선배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앞으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후배님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 때는 저랬었는데 하는 추억에 잠기기도 한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이름이 가물거리고 대화의 주제가 건강문제로 귀결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인생의 가장 꽃다웠던 시절을 함께 했던 친구들의 얼굴에 드러워진 세월의 흔적조차 정겹기만 하다. 주최 측에서 준비한 정갈한 도시락과 맥주를 곁들이며 답소를 나누는 친구들의 얼굴에서 일상의 걱정근심이나 외로움은 찾아볼 수가 없다.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대화 속에 개막식이 지러지고 다양한 공연이 이어진다. 동기 두 명으로 구성된 남성듀오가 부

르는 sound of silence의 익숙한 리듬에 맞추어 손뼉을 치고 노래를 따라 부른다. 하늘은 푸르고 건물 외벽에 나무끼는 '천하부고여 영원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가슴을 뛰게 한다. 잠시 나이를 잊고 학창시절의 낭만을 떠올리며 추억여행을 떠나본다.

어느새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고 선후배가 함께 부르는 교가가 운동장에 울려 퍼진다. '흘러서 그침 없는 한강의 물과...' 아주 오래 전 까까머리 시절에 불렀던 교가의 가사가 아직까지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내일을 기억하기가 어려운 나이가 되었지만 내년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그때까지 모두들 건강하기를.

▶25회 왕자의 품격을 갖춘 5월의 모란이 살짝 도도하고 요염한 장미 여인을 기다리려나. 해마다 기다리던 선농축전이 어느새 서른번째라니 날씨 또한 놀라시 마사한 햇살을 아낌없이 내리며 축하메세지를 보냈다.

특히 우리 25회는 졸업 50주년을 맞아 기념 공연으로 춤바덴스를 준비하였다. 작년에 계획을 세우며 처음에는 나이 70에 허리 아픈 친구도 많고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은 친구도 여럿이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의견이 분분했지만 지난 송년회 때 춤바 강사를 모시고 시범댄스도 보았고 모두가 따라해보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주일에 1회, 총 5회 연습, 수업 강사 예약을 하였다.

예전에 어느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머리가 안따라주면 노력을 몇 배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몸이 안 따라주니 연습을 몇 배하면 되는 것이었다. 수업 받고 연습하고 또 영상보고 연습하고... 처음의 걱정과는 달리 어느 정도 그런이 그려질 무렵 우리는 무대에 있었고 눈앞에는 1500명 동



문이 보내주는 사랑의 눈길이 있었다.
Zak Abel의 Be kind 음악이 흐르자 익힌대로 움직이며 머리에서 손발까지 신나는 감정을 흘려내리기 시작하니 100여명의 동문이 운동장으로 쏟아져나와 함께 춤추며 땀으로 흥을 뽐내주어 축제의 장이 되었으니 자연스레 호응도 1등, 연습 1등, 70나이치고는 춤동작 1등, 유연성 1등, 동창 사랑 1등으로(완전 우리 생각) 결국 우리는 대상을 받았다. 총동창회의 수고로 열린 축전 덕분에 땀이 되었던 이마의 땀이 보람으로 시원하게 씻겼고 오늘도 신난다.

▶26회 넓은 운동장을 둘러싼 하얀 지붕의 천막들 아래 각 기수별로 질서정연하게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있고 앞에 크게 걸린 배너에 쓰인 '천하부고여 영원하라!'라는 글귀는 하늘에 알록달록 매달린 만국기처럼 우리의 가슴을 흔들며 놓았다. 우리 자리로 찾아가니 벌써부터 자리 잡고 수다가 삼매경인 친구들이 얼굴을 맞대고 차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한다.
우리는 내년이면 50주년이 된다. 이 나이가 되도록 모교에서 해마다 불러주면서 성대한 잔치를 치워주는 학교가 우리 서울사대부고 말고 또 있을까 싶다. 밴드에서 흘러나오는 구성진 가락들이 우리의 흥을 돋우고 몸을 들쭉이게 한다. 맛있는 도시락과 피자, 족갈비, 백주 등 본부에서 준비한 먹거리와 임원진이 준비한 먹거리로 벌써 잔치상이 되었다. 노래자랑하는 기수, 댄스로 춤실력을 과시하는 기수 등등 존재감을 뽐내며 분위기를 달궜다.
점차 만나는 친구들이나 불러주는 곳이 줄어들면서 외로워지고, 몸이 고장나기 시작해서 슬퍼지고, 손주들을 봐야해서 늘 정신 없이 사는 각자 우리들의 삶에서 '선농축전'은 일년에 한번씩 고교시절로 돌아가서 그때 밟던 교정

을 밟으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한 착각을 하며 삶의 생수가 되어 과거에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선배님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보여주시고 우리는 후배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나를 생각하면서 모든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나혼자 사는 세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낀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는 요즘, 우리가 언제까지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삶을 소중히 여기고, 마지막까지 많이 만나고, 자주 소통하고, 서로에게 힘이되고, 기쁜 일들이 넘치는 '축제' 같은 날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27회 "오회와 난회"
5반 권오회카톡글 (5.15.월 오전 10:31)
- 작년 선농축제 참석하고 꼭 1년만에 다시 이 자리에 왔는데 뭐지? 아무리 길게 잡아도 일주일 정도만에 다시 온 것 같아. 벌써 1년 지난 거 확실해??
- 손살같은 시간에 심란하려는데 우리, 참, 어디 내 놔도 절대 손색없는, 늙지도 않는, 흰칠한 남동들이 득시글^^ 앉았는데 와~5월의 푸른 하늘이 여기네^^ 김*혁씨가 왜 이렇게 이뻐졌나며 반겨주는데~ 말도 참 잘해!
- 작년에 해봐서 그런가? 깔끔하게 준비한 예쁜 회장단의 모습이 그래도 여유로와 보이고 즐기는 것 같아 보여 마음이 좋네~물론 수고 많았겠지! 박수 박수!
- 언제 봐도 매일 만나는 것 같은 친근한 567반 여동들, 그래 우리 건강하게 이렇게 끝까지 가는거야. 우선 99살까지.
- 계*준씨가 모자에 반짝이 옷을 입었다. 자주 보니까 내 눈엔 연예인 같애~싸인이라도 미리 받아둬야 되지 않을까.
- 도시락 하나가 필요해서 본부석을 갔다가, 사실 나는 총동회장님은 얼굴을 뵈 적이 없어 잘 모르는데~



근데 거기서 우리 27회 심*인씨를 봤어. 기품? 포스? 아우라?^^ 암튼 느낌 왔어! 투표할 수 있다면 찍고 싶다!~ 하면서 인사도 못하고 왔다는^^

-마지막 교가를 부르는데, 늘 그래. 뭉클해, 애국가 부를 때는 늘 그런거 아냐네 교가는 왜 그런지 몰라. 내가 우리나라를 사대부고보다 더 사랑하면 했지 덜 사랑하는 건 아닐텐데, 좌우 남동들의 힘찬 멋진 음색의 울림 때문에 가슴에 손 얹고 부를뻔 했어.

-2차 장소를 찾아가는 길, 여동의 짐까지 들고 잘 따라 오는지 수시로 뒤돌아 보며, 마치 좀 먼길이 제 탓인양^^ 이렇게 가야가깝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며 앞장서던 김*준씨, 그 여린 섬세한 마음은 이미 십여년도 훨씬 전에 알았는데 여전하네요~

-맛있게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큰소리로 떠들다보니 목 아프고^^ 그래도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입니다~!

6반 이난희 답글 (5.15.월 오전 11:50)

"다행이다. 적은 참석 인원에도 나혼자 속을 태웠는데 명단에 없던 친구들 얼굴이 보여서. 참석 못한 미안함에 슬죽이고 싶으려 했는데 반가운 오히려 글에 나도 모르게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네.== 참석만 했으면 강석씨 앵글 속에 인생샷도 남길수 있었을거고 친구들과 수다떨며 깔깔거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는데. 착시현상처럼 결코 늙지않은 친구들 얼굴보며 다시 옛날로 돌아간 듯한 신기한 경험도 할수 있었던 참스였는데. 시간차로 언제 선농축전이 열리고 있는지도 모르다가 한꺼번에 올라온 글들과 사진을 보며 새벽잠 없는 나는 룸메이트 몰래 열심히 타자를 치고 있다. 회장단의 노고에 그리고 참석한 친구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응성!

▶28회 "들고 50, 나고 50, 우리는 100년 친구!"

선농축전 전에 공모한 슬로건 당선작이다. 함께 한 50년을 기억하며 앞으로 50년을 더 보자는 의미다. 28회 텐트 앞에 레드카펫을 깔아놓은 후 친구들을 맞았다. 유일하게 텐트 앞에 레드카펫을 깔아놓은 우리다. 오랜만에 온 친구, 멀리서 강릉에서, 대전에서, 단양에서, 연천에서 이른 아침에 출발해서 친구들을 만나러 와 주었다.

오전부터 준비한 덕분에 손님 맞이에 문제 없었다. 산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총동창회 산악회에서 주관하는 천장산 트레킹에 합류해 아침부터 운동이다. 다들 건강 챙기는 모습이 보기 좋다. 10시부터 한 명, 두 명 모여들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 얼마전에 만났던 친구 삼삼오오 이야기 꽃을 피우면서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간다. 점심에 나눠준 도사락에 무한 리필되는 생맥주에 피자에 쪽갈비까지... 여느 식당이 부럽지 않은 점심이다.

총동창회 임원단에 28회 여자친구가 수석부회장에 올랐다. 고마운 일이다. 다들 꺼려하는 부담스러운 자리를 기꺼이 맡아주었다. 우리가 그 친구를 많이 도와서 전체 일이 잘 되도록 해야한다며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한다. 새로운 회장단의 수고 덕에 깔끔한 진행에 다들 고마워한다. 오후 4시 정해진 수순에 따라 행사가 끝나고 교가 제창을 끝으로 공식행사는 끝나고, 우리끼리 오붓한 시간을 갖자고 준비한 뒷풀이를 고려해 정문앞 치킨 집으로 정해 다시 담소의 시간을 가졌다. 작년에는 우리친구가 골든벨을 울려서 선배, 후배의 2차 모임의 술값을 모두 계산하였는데 금년은 우리끼리만의 모임이다. 금년 모임에도 새로운 친구가 골든벨을 울려서 모두를 즐겁게 해주었다.

뒷풀이 골든벨 울리기가 28회의 새 전통이 되지 않을까 싶다. 오랜만에 만나도 여전히 고맙고 즐거운 친구들이다.



▶**29회** 계절의 여왕 5월 중순 눈부신 햇살 아래 바람도 상쾌한 오늘, 종암동 모교 운동장에서 선농축전을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30여명 친구들이 함께 하였고, 오늘 친구들을 맞이하기 위해 그간 말뚝하고 세심하게 준비한 김태홍, 이정준, 천세기, 이재영, 이성심 등 동기회 임원들에게 감사하고 일찍부터 많은 친구들의 수고로 더 알찬 하루가 되었습니다.

2차로 이른 저녁 감자탕은 이정진 동기가 화끈하게 썰서 고마운 마음으로 맛있게 먹고, 이후 근방 카페에서 담소하면서 아쉬운 모임을 마쳤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들, 곧 또 봐요.

▶**30회** 멋진 친구들은 5월~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 만국기가 휘날리는 종암교정에서 답답한 마스크 훌훌 벗어 던지고 45명이 참석하였고, 반갑게 선후배님들과 만나 즐겁고 풍성한 축제의 시간을 맘껏 즐겼다. 친구들과 있기만 해도 좋지만 잔치에 음식이 빠질 수가 있나요~ 주최측에서 준비해준 도시락, 피자, 맥주, 떡볶이, 순대, 오뎅, 만두, 쪽갈비 먹거리가 더욱 풍성해졌고, 30회는 수육, 홍어, 김치, 삼합, 김치부침개 부쳐 먹으며 졸업 45주년을 자축하고 서로를 격려한 맛있고 기쁜 추억의 날이었다.

▶**32회** 5월 14일 선농축전에 32회는 김정애 회장을 비롯하여 총 33명이 참석하여 봄 날의 추억을 마음속에 아로새겼다.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도시락과 푸드코트의 음식 외에도 32회 남양주 구리팀이 준비한 수육과 김절이, 어묵탕, 홍어부침으로 푸짐한 식사 그리고 음료를 곁들여 그간의 회포를 풀어냈다. 선농축전 후 근처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뒷풀이후 아쉬움을 달래며 귀가하였다.

▶**34회** 5월 14일 일요일 아침, 아침잠의 달콤한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일찌감치 집을 나서 종암동으로 향한다. 2018년 개관한 신축 교사가 이제 낯설지 않다.

학창 시절 방공호가 파여있던 숲밭은 이제 방공호가 메워지고 나무 데크가 깔린 산책로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도 익숙하다. 다만 숲밭에 남아 있는 해송이 채 몇 그루 되지 않아, 요즘 학교를 다니는 후배들은 우리가 왜 이곳을 숲밭이라 부르는지 모를 것 같아 못내 아쉬울 따름이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 같은 구교사 뒤꼍의 후박나무는 내가 고3 때 빨갛게 익은 열매를 따기 위해 기어 올라갔다가 하필(?) 담임 선생님께 들켜 꾸지람을 들었던 나무다. 아직도 뒤꼍에 곳곳하게 서 있는 그 나무에 다가가 껌안아 보니, 그때는 두 손으로 짚만한 두께였는데 지금은 한 팔로 다 감싸지 못할 만큼 굵어졌다. 42년 세월의 굵기다.

선농축전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을 위해 한두 가지 먹거리를 가져온 몇몇 동기들 덕분에 푸짐한 한 상이 차려졌고, 지난 3월 4일 34 Day 동창회 이후 두 달간의 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보복 수다를 떠느라 하루가 무척 바빴다. 자주 보는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도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 것이 생이 낯던지 난데없이 붙어온 돌풍이 우리 텐트를 순식간에 날려 뒤집어 놓았지만, 곳곳하게 텐트를 다시 바로 세우고 계속 수다를 이어갔다.

우리 34회 대부분이 올해 환갑을 맞이하는 터라, <자칭> 이른 여동생이라는 한 동기가 가져온 <다음 환갑까지 건강하게 살자!>라고 쓰인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우리들의 환갑을 자축했다.

▶**35회** 선농축전이 열린 일요일 오전 8시, 총동문산악회 지승환 회장을 비롯해 집행부로 활동하는 35회 친구



들이 천장산 산행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선농축전의 첫 행사이기도 한 천장산 산행의 안전 요원,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총동문산악회 회원 약 200명과 함께 걸었던 천장산 산행팀들이 무사히 35회 텐트로 모인 시간은 오전 11시 20분. 피자, 도토리묵, 홍어 부침. 오징어 전, 약식 등 여동들이 직접 준비한 푸짐한 안줏거리와 선크림, 티셔츠, 모자 등의 선물을 한 아름 받는 기쁨을 누렸다. 졸업 40주년 특별기금으로 일천만원을 총동창회에 기증하고, 모든 친구가 '35 밴드'의 축하공연이 펼쳐지는 운동장에서 마음껏 박수와 춤을 추며 여흥을 즐겼다. '35밴드'에서 활동하는 동문은 드림 김석갑, 기타 주현진, 베이스 홍진영, 건반 김영용, 보컬 이애용이다. 2차 뒤풀이는 김은효 동문이 운영하는 논현삼계탕 하월곡점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뭇다 나누었던 이야기를 꽃피웠다. 다른해보다 더 특별했던 졸업 40주년 맞이 제30회 선농축전을 보내면서, 가을 여행에 더 많은 친구가 함께하길 기대해 본다.

▶36회 중앙동 모교 운동장에 아침 8시30분 도착하여, 진행팀들한테 눈인사 하고 36회 부스를 향한다. 시간에 맞추어서 외준 이종화 수석부회장, 김창선 총무, 김귀현 부회장, 여승구 부회장과 함께 준비한 돗자리펴기, 의자 배열, 아이스박스 정리... 이어서 천장산 트레킹 안내 및 트레킹 시작하고 각자 준비한 정리 음식 준비로 바빴다. 행사를 준비한 총동창회 진행 스태프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38회 임원진 개선 이후에 번개팀과 소모임을 시도하는 가운데 이번 서농축제에 14명이 모였다. 분기별 모임을 강북, 강남, 경기남부에서 돌아가면서 가질 예정이다.

▶39회 선농축전에 정거장 회장은 홍어회와 머뭇고기, 김치전을 넉넉히 준비해왔고 박동균 고분의 모듬회와 닭강정, 성운숙 총무는 술, 과일, 마른안주, 파자까지 살뜰히 챙겨와서 30명의 동기들과 가족들까지 마음껏 먹고 마시며 태어난 더위에도 굴하지 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47회 천하부고를 졸업한 47회 동문들이 1년에 2번, 5월에는 선농축전!! 10월에는 선농가족체육대회!!! 모교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주어진다. 2023년 첫번째 기회가 주어진 5월 맑은 날 동기들과 함께 선농축전 행사에 참여하여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 30년 전 (1992년) 만나 인연이 된 우리들은 만날 때마다 고등학생이 되고, 같은 반 이야기를 한다. 이 날은 발전된 모교를 축하할 수 있어 좋았고, 더 많은 네트워킹을 약속하였다. 선농축전 행사는 매년 다양한 활동과 이벤트가 풍성해지고, 새로운 형태의 오락과 행사들을 누릴 수 있으며, 모든 동문이 함께 잔디가 깔린 넓다란 운동장에 모여 소중한 인연끼리의 화합분위기를 이끌어 준다.

자신의 성취와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여 참가자들 사이에 영감과 동기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기회인 것 같다.

▶48회 작년 체육대회 이후 자주 연락을 하던 동기들이 선농축전에 처음으로 11명이 참가했다. 다른 오랜만에 모였기에 너무나 반가워하며, 앞으로 48회 동기회를 어떻게 운영을 할 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동창회에 있는 산악회, 청구회, 선경회 등의 지회들의 참석 방법과 일정을 서로 공유했다. "작년 체육대회를 진행하며 선배님들의 지원 덕분에 모이게 된 저희 48회 동기회 앞으로 더 열심히 동창회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7월 공연 25회 공바연스

가슴과 가슴으로 만난 행복한 시간



총회 후원장 소개



스승의 날 선곡축제



OX거일 목숨 고원선(39회) 5호



비대면기념 20회, 참가자 17회, 21회, 24회, 25회



봉만권 후원 유현주(39회) 5호



김동진(39회) 심성민(27회) 수석(1) 5호



프리마켓



사회자 황우창(39회) 5호



기별공연 35회 밴드

사진: 정교철(24회) 이문행(33회), 조용식(35회)



기별 공연 45회
러틴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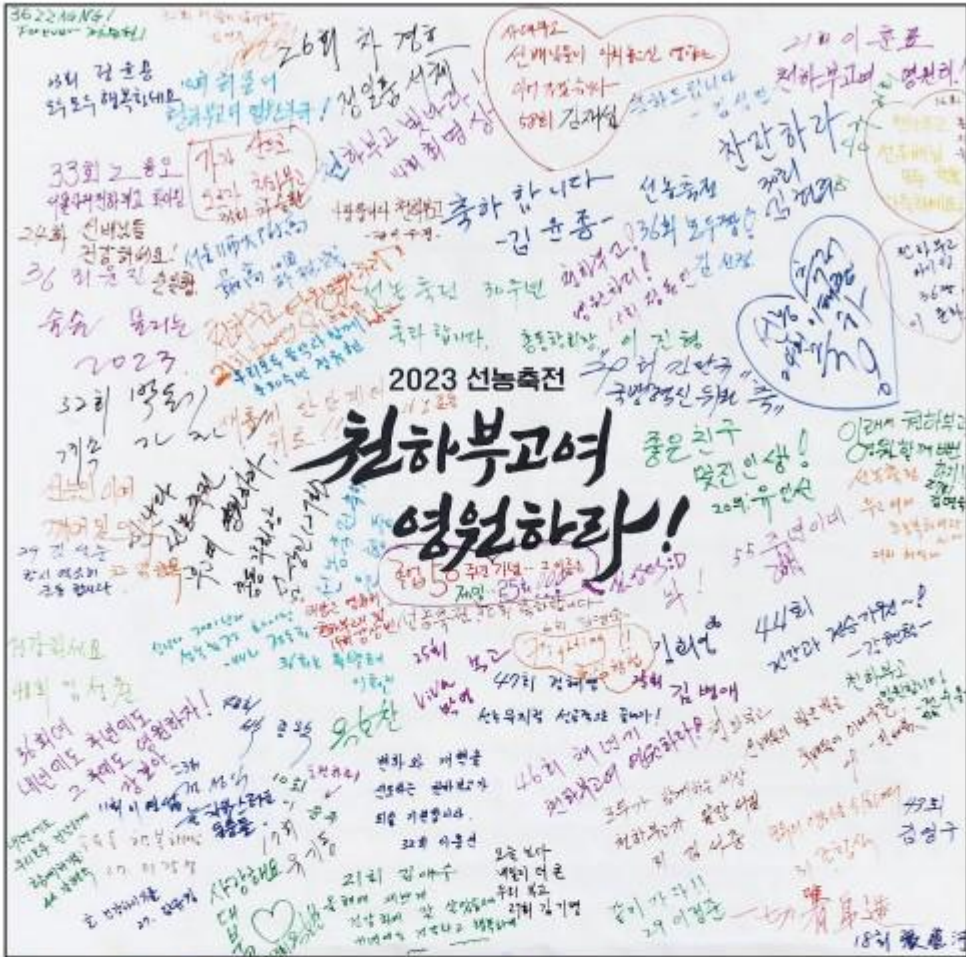
안기숙은 기별방 안포디안 연동



24회 송한석, 정기려 이문행의 기별연주



OX계열



부고 재학생 美서부 동문들 탐방

미주 연수 프로그램 DIA 확정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방문

서울사대부고와 미주총동연합회가 주관하는 '재학생 미주 연수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 6일 서울사대부고, 동창회, 미주총동연합회 관계자들이 Zoom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Zoom 회의에서 김민주 미주총동연합회장은 "미국에 살다 보니 학생들의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라며 "재학생 미주 연수 프로그램은 공부보다 학부에서는 소외되더라도 자신의 꿈을 찾는 후배들에게 미국의 모습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길러주는 취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만호 서울사대부고 교감은 "선발 학생들에 대한 성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블라인드 서류 심사를 통해 55명의 지원 학생 중에 1차로 12명을 선정했으며, 2차 심층 면접을 통해 5명의 학생을 최종 선정하게 됐다"라며 "이자인영이 교사의 인솔 아래 선발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극대화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재성 서울사대부고 부장 교사는 "학교에서는 이번 재학생 미주 연수 프로그램을 다이나(DIA-Dream mentorship In America)라고 명명했다"고 밝히며 "앞서 미주 연수 프로그램에 참석한 선배 재학생들이 작성한 자료를 이용해 사전 교육을 철저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선발된 재학생들은 김지윤, 박민균, 양희강, 조예



린, 신혜림(남 1명, 여 4명) 등 5명이며, 오는 7월 29일 인천공항을 출발, 로스앤젤레스(LA)에 30일 도착할 예정이며,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을 거쳐 8월 9일 시애틀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이진형 서울사대부고 동창회장은 "재학생들이 미주 연수 프로그램을 떠나기에 앞서 세미나, 발표 등으로 학생들이 서로의 꿈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학교에서 명명한 다이나(DIA)라는 이름에 걸맞게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학생들이 참석하는 세미나 또는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해 격려하여, 미주 일정을 주관하는 미주총동연합회에 잘 전달될 수 있는 메신저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0박 11일간 진행되는 재학생 미주 연수 프로그램은 LA 지역의 대학교 탐방, 샌프란시스코의 IT(애플, 페이스북) 분야와 게임 개발회사를 견학하며, 시애틀에서는 선후대의 만남을 통해 멘토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첫 정기이사회, 총동역량 강화 등 논의

3월 8일(수) 동창회관 선농홀에서 2023년 정기이사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정기이사회에 총동창회장, 총동상임부회장, 총동부회장, 기별회장, 이사, 감사 등 65명이 참석하여 총동창회장 인사말과 신임 사무처장(35회 조용식)의 인사 후 2023년도 사업 및 행사보고와 선농축전 안내등을 논의했다.

사무부장의 인원 성원 보고, 이사회 의장인 이진형 회장의 개회선언이 있었다.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총동창회 조직 역량 강화, 동문간 소통 활성화, 모교 협력 강화, 동창회 자금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 사무처장의 선농축전 행사계획 및 기별 협조사항을 설명하고 교가 제창 후 폐회하였다. 회의 종료 후 선농축전 시 선보일 유기농 도시락을 시식하며 동문 간의 우정을 나눴다.

● 회원동정



▶ 10회 김창규

한국체육인회는 4월 12일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01호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김창규(84·국민대학교 명예교수) 부회장을 제15대 회장으로 내정, 추후 열릴 총회에 추천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2006년부터 한국체육인회를 이끌어온 장주호 현 회장이 "그동안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아 자리를 지켜왔는데 이제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게 됐다"며 사퇴 의사를 밝히고 후임으로 1990년부터 2017년까지 27년간 아시아 레슬링연맹 회장직을 역임한 김창규 부회장을 추천하자 참석 이사 16명은 박수로 환영했다.

또한 김창규 동문은 1950년대 서울사대부고 재학시절 3년 후배인 이건희(2020년 작고) 삼성그룹 회장 등과 레슬링선수로 활약했다.



▶ 20회 윤두중

지난달 3월 25일 서울시치과 의사회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인 '제31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상' 수상자로 윤두중 회원(강남구)이 단상에 올랐다. 윤두중 회원은 40여년 전 강남구에서 개원해 강남구치과의사회 이사, 회장

직을 거쳐 서울지부 총무이사, 치협 총무이사,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부의장직을 지내고 현재 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으로 활동 중인 치과계 회무의 산증인이다.



▶ 23회 이규용

"기술이 사회 발전을 주도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 제도와 정책이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사회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3월 30일 오후 성군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미래정책연구원 개원식이 열렸다.

이번에 개원한 성군관대 미래정책연구원은 브랜드 만다라 나덕으로 유명한 주식회사 나자인의 이규용(71) 회장의 100억원 기부금을 통해 만들어졌다. 성군관대 법학과 72학번 출신 기업가인 이 회장은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정치 제도나 사회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쟁력 있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건희(13회)컬렉션(故 이건희 회장 기증품 전시)' 대구 미술관 개최

서울에서 수십 만 명이 몰리며 화제를 이었던 이건희 컬렉션(故 이건희 회장 기증품 전시)이 광주와 경남지역을 거쳐 대구로 갔다. 대구미술관은 지난 2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건희 컬렉션 한국근대미술 특별전 '월경 흥: 개화(開化)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명작'에 출품된 작품을 바탕으로 대구미술관에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을 더해 한국 근현대미술 수작의 가치를 스토리텔링한다. 44명 작가의 작품 81점을 소개했다.

미술관측은 지난 2021년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이 21점을 미술관에 기증한 것을 기념해 기획했던 '월경 흥: 향연(饗宴)'의 연장선으로, 규모와 내용면에서 한층 확장한 전시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전시 제목인 '개화'는 예술을 꽃피운다는 의미와 새로운 시작 등 두 가지를 함의한다. 출품작 81점을 통해 '전통미술과 신흥미술의 공존, '격동기, 새로운 시작', 그리고 '미술의 확장과 변용'으로 한국근현대미술의 흐름을 정리했다.

첫 번째 섹션 '전통미술과 신흥미술의 공존'에서는 한국근대서양화와 전통수묵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려 했던 작가들의 작업을 소개



한다. 이어 '격동기, 새로운 시작'에서는 해방 전후와 한국전쟁 당시의 시대 정신이 작간집적으로 발현되면서 한국 근현대 미술을 꽃피운 시기의 작가들이 선별됐다. 마지막 '미술의 확장'과 '변용'이라는 주제에서는 한국 추상미술의 대표 작가인 김환기, 유영국을 작업을 시작으로

현대미술작가까지 살펴봤다.

대구미술관 최은주 관장은 "이번 전시는 미술에 대한 개인의 기호와 관상에서 시작하여 작가들을 후원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 '컬렉션'이 오늘날 기증이라는 아름다운 과정을 거쳐 대중에게 공유될 때 지니게 되는 사회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세기 험난하고 굴곡진 격동의 시간 속에서 한국 근현대미술을 찬란히 꽃피운 거장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더없이 좋은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7회 진양교

정부와 부산시가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에 맞춰 각 분야 전문가로 '드림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총 4차례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 계획 등을 분야별로 발표했다. 대한민국 부산의 엑스포 유치 필요성이 BIE 실사단에 명확히 각인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 전문가인 진양교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가 4월 5일 3차 PT에서 부산엑스포 박람회장과 전시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진 교수는 서울 광화문광장 확장 프로젝트를 설계한 국내 대표 건축가다. 부산엑스포 박람회장인 북항과 '부산의 역사'를 연결시켜 유치 당위성을 강조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 구현'이라는 세계박람회 개최 취지에 맞춰 행사장 건설 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신재현 시 국제관계대사도 진 교수의 함께 3차 PT에 나선다. 교통 이동 수단과 숙박 계획 등 주로 도시 인프라와 관련한 내용을 실사단에 설명했다.



▶28회 윤동천

제35회 '이중섭(李仲燮)미술상' 수상자로 서양화가 윤동천 동문이 선정됐다. 한국 현대미술의 다원주의 경향을 대표하는 작가로 일상의 예술성을 드러내는 다방면의 창작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중섭미술상' 심사위원회(정명덕 정종미 김복기 고충환 김백균)는 회화 조각 사진 설치 등 협식을 넘나들며 소통하는 지점을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0만원과 상패가 주어진다. 시상식은 11월 9일 오후 5시 서울 아트조선스페이스에서, 수상기념전도 이날부터 11월 21일까지 열린다.



▶30회 오호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따르면 반석안전(대표 오호진)이 단독 개발한 '가속도와 변형을 기반 교량의 연직변위 무선측정시스템'이 건설신기술 969호로 지정됐다. 신기술은 계측을 위한 센서 설치과정 이 수월하고, 두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오차율도 5% 미만으로 적은 장점을 지닌다. 오호진 반석안전 대표는 "신기술은 교량 하부조건에 관계없이 센서 하나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유일한 기술"이라며, "한강을 건너는 교량의 연직변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30년 이상된 노후교량을 유지관리하는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낙배(9회)	2023.03.24.	별세
황등일(12회)	2023.04.16.	별세
오병철(14회)	2023.05.18.	별세
박상대(17회)	2023.03.24.	별세
니석주(29회)	2023.05.11.	별세



▶25회 졸업 50주년 기념 25 동기회 그림 & 사진전 개최

졸업 50주년 기념 25 동기회 그림 & 사진전이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갤러리 공간 미술에서 열렸다. 이번 그림 & 사진전은 50년이라는 세월동안 각자 다른 곳에서 쌓은 자신과 경험의 울감에다 회로애락의 아름다운 감정의 울감을 팔레트에 잘 짜 섞어서 힘차게 뽐내려도 하고, 세상에 빛이 드는 순간 장면을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누른 작품들을 모은 것이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동문은 김광려, 김보미, 남선례, 심상덕, 오영하, 이숙, 이양복, 임영재, 장영수, 조순서, 조현주, 황재영, 강준석, 김윤기, 서명자, 우재영, 윤상학 등이다.



▶35회 이종훈

특허청이 주관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전담하여 추진하는 '2023년 IP제품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주)가 선정되었다. 많은 특허 중에 공공성과 파급성을 인정받아 특허청으로부터 지원 사업을 받게 되었다. 본 사업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제품을 개선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한 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등록하여 공공기관과 금액에 상관없이 수익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39회 유지한

서울YMCA는 유지한 부장을 레저사업부 본부장으로 승진 발표했다. 서울YMCA 레저사업부는 한강 독점 유원지 워터캠핑장 5번 클럽을 승안받아 서울YMCA 한강 레저타운을 운영하고 있으며, 웰리힐리 파크와의 MOU(업무협약)를 통하여 겨울 레저에도 서울YMCA 뜻을 전파하고 있다. 또한,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과정,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강습회, 안전지도자 양성과정 등의 안전 프로그램과 사회체육지도자, 레저 안전지도자(원드서핑, 수상스키, 스킨스쿠버, 스키, 스노보드, 인라인)를 육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 미주알 고주알



박시안경·수술용 안경 동문찬스 할인 서비스

▶29회 강정근

안경을 쓰고도 신문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익시안경, 착탈식보조안경과 렌즈장착2초접수술 안경 등 10여 종의 안경을 개발한 강정근 J&G광학 대표(29회)가 동문을 위한 특별 할인서비스를 합니다. 010-4710-3351



▶9회 염정자

인천예술 한마당 페스티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에서 지난 4월 1일 ~ 4월 6일까지 전시를 했습니다.



▶25회 김보미

김보미 개인 전시회

5월 23일부터 6월 23일까지 오류동 성당(서울시 구로구 고척로 18길 86-9)에서 개인전을 갖고 있다.



말이 출간한 대학수업책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18회 김정옥

18회 김정옥 동문 차내인 충남대 교육학과 박수정 교수가 이번에 신간을 냈습니다.

대학 교육과 수업에 관심있는 모든 분, 특히 대학의 신입 교수자와 예비 교수자, 대학의 보직자와 교직원에게 선물해 주세요!
대학 교육이 궁금한 대학생, 중고생, 학부모, 교사 등에게도 유익합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자는 대부분 특정한 연구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나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학습기회가 적어 대학 수업에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이 책은 대학 교육의 준비, 계획, 실행, 평가의 각 단계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 사전학습 기반 팀 학습(팀기반학습, 플립러닝)과 프로젝트 기반 팀 학습(역선러닝, 영화제작) 수업 사례를 담았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자는 대부분 특정한 연구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나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학습기회가 적어 대학 수업에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이 책은 대학 교육의 준비, 계획, 실행, 평가의 각 단계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 사전학습 기반 팀 학습(팀기반학습, 플립러닝)과 프로젝트 기반 팀 학습(역선러닝, 영화제작) 수업 사례를 담았습니다.



동창회장배 당구대회 6월 25일 열린다

- **대회일시** : 2023년 6월 25일(일)
- **대회장소** : 세종당구아카데미(02-2279-0074)
종로구 수표로 96(국일관드림플러스 6층)



회장 권영선(26회)

- **대회일정**
- 1) 모임시작 : 8시 50분 2) 개회식 : 9시
- 3) 경기시작 : 9시 20분(참가선수의 불참 여부의 판단기준)

선농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서울사대부고총동창합창단이 이름을 「선농합창단」으로 변경했다. 지난 5월 2일 동창회관 선농홀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명칭 변경에 대한 토론을 거친 끝에 민장일치로 선농합창단으로의 명칭 변경을 의결했다.

선농합창단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명실공히 대내외적으로 서울사대부고총동창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강화됐다. 선농합창단은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신입단원을 모집한다.

합창단의 연습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선농홀에서 권혁준(42회, 서경대 교수) 지휘자의 지도로 진행된다. 합창을 사랑하는 동문은 누구나 단원이 될 수 있으며 30회 이후 젊은 단원들의 입단을 위해 입단 후 1년 동안은 회비의 50%를 감면해 준다.

입단 문의 및 신청:

- ▲ 단장(22회 김태식) 010-4940-8195
- ▲ 총무(27회 김서영) 010-9470-2431
- ▲ 동창회 사무처 02-588-7871/010-5892-7871



PAPA
JOHNS

더 좋은 재료, 더 맛있는 피자 파파존스

아이브는 파파존스!



파파존스가 맛있는 이유!



72시간동안 저온 숙성한
오리지널 도우



수확 후 6시간안에
캔으로 가공한 토마토 소스



최상급 품질의 치즈로,
맛과 풍미가 가득



매일 아침마다 준비하는
신선한 야채



☎ 1577-8080 🛒 www.papajohns.co.kr



▶ 18회 김경임

문화유산으로 일본을 말한다 | 홍익출판사

여성 최초 외무고시 출신으로 도쿄, 뉴욕, 파리(유네스코) 외교관과 튀니지 대사를 역임한 김경임 동문(18회)이 「문화유산으로 일본을 말한다」를 출간했다. 문화재 반환 문제 전문가로 프랑스 외교장각 도서 반환 협상 자문위원이던 동문의 다섯 번째 저서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핵심 기준은 보편적 가치,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이다. 진정성이란 유산 원형(original) 유지로 복제 유산은 금기다. 유네스코 진정성 기준에 비추어 국보급 문화재 해체 수리와 복제를 다반사로 하는 일본 문화유산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일본 국보 1호가 우리 국보 반가사유성과 닮은 점이 높았다. 많

은 한번도 문화유산이 일본 국보로 둔갑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일 갈등의 기저에 흐르는 양국 고대사 분쟁에는 역사적 물증으로서의 문화재가 게재되었다. 일본은 문화재에 거짓 전송과 조작된 해석이 아닌 학술적 연구로 고유 가치를 해명해야 하며 남의 문화유산을 탐하지 말고 존중하여 악탈문화재를 반환해야 한다. 일본 고유 문화재만을 문화유산으로 보진. 계승하는 일본 문화정책의 진실성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나 인문학적 가치 면에서도 소중한 자료다. 이전의 저서로는 「악탈문화재의 세계사(1)(2)」, 「사라진 물유도원도를 찾아서」,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 눈물」 등이 있다.



▶ 21회 이해자 (리송)

모로코에서 새로운 나를 만나다 | 범비범그룹

나이 73세에 틱 시니어모델이 되어 시니어 세대에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는 모델/배우 겸 작가 리송이 이국적인 아프리카 모로코를 배경으로 다양한 패션 스타일을 촬영한 사진 화보집 「LISONG in MOROCCO」를 냈다. 이 책은 결혼 후 50년 동안 가족 뒷바라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주부가 70세가 되어서 기적처럼 대한민국 틱 시니어 모델 자리에 오른 후 또다시 부당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감행한 리송의 모로코 패션 사진 화보집이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사하라 사막, 카사블랑카, 페스, 마라케시, 아틀라스 산맥, 마이트벤하두 각 도시에 어울리는 의상 콘셉트를 연출해 이국적인 배경 속 모델 리송의

다채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

저자인 리송은 2019년 '현대백화점 패셔니스타 TOP 10' 선정, '제1회 KMA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 65+ 최우수상, 우정상'을 시작으로, 2020년 '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 협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2021년 'KMA K모델 어워즈 올해의 시니어 모델상'을 수상했다. 2021년 MBN '오래 살고 볼 일, 어쩌다 모델'에 출연, 무신사, 보그 잡지 화보 촬영, 앙드레김 패션쇼, 사랑 가득나눔 시니어모델 자선패션쇼, 엑스오이 패션쇼, 캐나다 밴쿠버 패션위크 패션쇼 참가, LG화학 홍보영상 촬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한국모델협회(KMA) 시니어 모델 분과의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 36회 신종근

우리술! 어디까지 마셔봤니? | BOOKK

[술평] 만플루언서 @jshin_korea의 술직 담백한 3개국어 우리술 리뷰-마셔본 천 종류의 술 중 우리술 48종의 리뷰를 첫 책에 담았다. 이제 우리술이 K를 넘고 해외로 나갈 것을 알기에, 해외에 K-술을 알리고 또 우리술 홍보와 판매, 품질개선 등 진일보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저자는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 후 대기업 생활도 하였고 IT분야로 옮겨 근무하다 창업도 하며 인생의 단맛 쓴 맛을 다 맛보았다. 그 과정에 항상 저자의 곁에 있어준 건 가족과 술이었다. 술 관련 업종에서 종사하나는 질문을 간혹 받는데 전혀 관련이 없고 대신 술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알고 있다. 오롯이 술이 좋아 술을 마시는 사람이다.



▶ 37회 허지영

영적 전쟁 | 광진문화사

저자인 허지영 동문은 유아교육을 전공하며 유치원 교사에서 원장까지 34년간 유아교육에 전념하였다. 교사에서 유치원 원장이 되기까지 쉽지 않았던 시간 속에서도 새벽마다 기도도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며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자가 2015년 국제문인

협회 국제문단에 등단하여 수필 신인상을 수상하였고 한빛문학에서 수필가로 활동하였다. 2022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 번째 책인 《영적 전쟁》 신앙체험 간증 수필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현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의술교회 시무권사로, 중보기도자로, 유치부 부장교사로, 라크로체천양팀으로, CTS권사 합창단으로 헌신하고 있다.

제3회 선농문학상 출품하세요

시, 수필, 소설 등 9월 30일까지 접수

■ 모집 분야

- 시 (한자 시조 포함) (매수 제한 없음)
- 수필 (작품 당 A4 용지 1매 남짓, 200자 원고지로 환산할 경우 10매 안팎)
- 단편소설 및 논픽션 등 (A4 용지 5~10매 안팎(글자크기 10포인트))

■ 응모자격 : 전 동창회원

- 각 기별로 한 편 이상 응모해 주세요. - 미발표 작품, 1인당 2편까지
- 등단 10년 이상 문인은 사상에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시상 내역

- 선농대상: 100만 원(1명) - 최우수상: 상금 50만 원(2명)
- 우수상: 10만 원(5명) - 특별상: 상장(10명)

■ 접수 마감 - 2023년 9월 30일 오후 5시

■ 당선작 발표 및 시상식 - 2023년 11월 8일(수) 동창회관

■ 보내실 곳

- 이메일: snubu@chol.com/ 팩스: 02-588-7872
- 우편: (04600) 서울시 중구 다산로 43 201호, 서울사대부고 동창회관 문학상 담당자 / 02-588-7871

※ 유의사항

- 모든 작품은 컴퓨터 워드 작업으로 작성한 뒤 A4 용지인고지 마네편로 제출해주세요.
- 제출 작품 일면에 성명, 응모 부문, 작품 제목, 기수,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 입상작의 저작권은 1년 동안 출동창회에 있습니다. 작품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제 6회 선농미술인회 전시 공지>

◦ 전시기간 : 2023. 9. 6(수) ~ 9. 11(월) 10:00~18:00

◦ 오픈식 : 9. 6(수) 17:00

◦ 작품반입 : 9. 5(화) 13:00 ~ 14:30

◦ 작품반출 : 9. 12(화) 10:00 ~ 12:00

◦ 전시장소 :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 2층 5전사실

◦ 작품규격 : 서양화 기준으로 20호 이내

(캔버스 72.7x60.6 cm), 1점

서양화 · 동양화 · 조각 · 도예 · 서예 · 공예 등

◦ 도록 자료 제출

- 기한 : 2023. 8. 16(수)

- 보낼 곳 : sun-nongart@hanmail.net

- 자료 내용 : 작품 사진, 작가 사진, 작가의 미술 관련 경력(수상내역 포함), 작품명, 규격, 재료

◦ 비용 : 연회비 5만원 / 전시비 10만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331302-04-264731(박정례)

◦ 문의처 : 심상덕 사무국장 (T. 010-9099-1303)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 다문화가정의 교육 위기 해소로부터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현재 심각한 교육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엄마가 우리 말에 서툴러 ①자녀는 유년기에 제대로 언어를 습득하지 못하고 한국의 교육과정을 배운 적이 없기에 ②자녀의 학교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며 가족 생계까지 책임지는 처지에 놓여 있어 ③자녀 교육을 제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한마음교육봉사단은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을 직접 지도하고, 교사와 소통할 수 있으며,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을 챙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엄마를 양성하는 "다문화엄마학교"를 전국 2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고, 중·고등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한마음글로벌스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문화가정 교육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월 1만원
그린후원회원
약정 방법



① 휴대전화 카메라 화면으로 QR 코드 스캔

② 후원 사이트 접속

③ 약정 정보 입력

④ 출금동의 ARS 전화 수신 후 동의 버튼

총동창회장 이진형(26회)

한국공연예술원 이사장 양혜숙(7회)

“한극 韓劇 을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우리의 전통문화를 정립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것으로 보편화하고자 하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원 이사장으로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한극(韓劇)’의 선구자, 양혜숙 동문을 만났다.

양동문은 서울대학교·독일 튀빙겐 대학교 철학부·이화여자대학교에서 독문학·미술사·철학·표현주의 연극 등을 공부했고, 귀국 후 이화여대에서 27년간 독문학을 가르치며 ‘방화범들’ ‘꿈’ ‘보이체크’ ‘결혼’ 등 총 17편의 시대사조를 대표하는 서구의 첨단 연극을 대학 무대를 통해 국내에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페터 한트케의 ‘관객모독’을 50년이나 앞선 1969년에 번역하여 국내에 소개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양동문의 이력은 그 폭과 넓이가 참으로 다양하고 빛나다. 국내에서의 관련 분야 주요경력으로는 연극평론가협회 회장, 카프카학회 회장, 독어독문학회 회장, 공연예술연구회 창립회장, 한국공연예술원 창립 초대원장, 여성연극인회 창립회장, 베세토(한·중·일) 연극제 한국위원장, 국제극예술협회(ITI, International Theatre Institute) 한국본부 회장, 아·태 지역협회(AP-ITI) 창립 회장 등을 역임했다. 양동문은 한국의 정립과 우리 문화 뿌리 찾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문화예술계에서 여성 명봉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2010년 이래 현재까지도 ‘전통과 응용’ ‘전통과 창조’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원 제2대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혜숙 동문은 지금도 칼럼을 통해 우리 공연예술문화 전반에 관한 필력을 왕성히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내년에는 마침내 그동안 천착해 온 ‘한극’을 구현하는 공연예술 작품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한극 대상’ 시상식을 추진하기 위해 여전히 건강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Q: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이 너무 부럽습니다. 무슨 비결이라도?

아마도 겁이 없고, 단순해서 그런거예요. (웃음) 물론, 시



도는 꾸준히 해왔지만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았고, 아마도 무엇보다도 사람 복이 많았지 싶네요. 고마운 분들이 참 많아요.

Q: 독일 유학과 독문학을 전공하게 된 사연

책을 좋아하던 중학교 시절부터 아버님 서가에서 독일어로 된 책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독문학을 하게 되었고, 독일유학은 부모님에게서 벗어나 나 자신을 찾아보자는 그런 용기랄까요? (웃음) 마침 DAAD라는 독일정부 초청 장학생 제도의 혜택을 받았지요.

Q. 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원 소개

1996년 창립 이래 현재까지 '한국'의 원형과 미래 공연예술의 방향을 찾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단체인니다. 전통문화의 뿌리를 현대화시키는 작업의 청단에 서 있습니다.

배우·관객 훈련, 공개강좌, 각종 세미나·포럼, 공연 등의 다양한 활동의 결과물로 '샤먼문화(2013)·불교의례(2015)·궁중의례(2018)'를 출판했고, '샤먼문화 - 아시아·한국편'과 '전통과 응용'을 이어서 출간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전통과 창조'의 일환으로 '한국'대상을 신설하고, 정기공연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관심 있는 동문은 문의해 주세요. 대환영입니다.(웃음)

Q. 학창시절에 특별히 기억나는 것

7회 동기인 심은실과 지각해서 함께 벌 받던 기억입니다. 수학과 물리를 잘했던 우린 스스로 '천재가 아닌가?' 싶었는데(웃음) 자주 같이 벌냈죠. 약사가 된 은실이는 지금도 만납니다. 그리고, 독일 가기 전에 한 일 년여 동안 모교에서 가르쳤던 후배인 동시에 제자로는 13회에 고 이진희·김무일·현광연, 15회에 윤계섭 등이 기억납니다. 지금도 가끔 감사하며 만나죠.

Q. 박정희 대통령의 전격적인 지원 아래 '대한민국 산업

화'의 초석을 다진 포항제철 설계자로 알려진 김재관 박사님과

학위를 마치고 독일회사에 취직해 있다가 제가 유학을 오니까 주변에서 소개해서 만났어요. 서두르지 않고 제 공부 시간을 기다려주는 자상한 마음 씀씀이가 좋았습니다. 약혼하고 2년 후에 독일서 결혼식을 했지요. 참 성실하게 중요한 일들을 묵묵히 실천한 좋은 사람입니다. 제 일도 존중하고 배려해 주었어요. 그래서 현재의 제가 있지요. 돌아가시고 나니 더욱 귀중한 사람입니다. 많이 그림지요.

Q. 바람직한 삶의 마무리는 어떻게?

자기가 속한 그 사회에 단체에 조직에 가정에 돌려주고, 기부하고, 헌신하는 인생! 즉, 회향(回向)하는 마무리를 이루고 싶습니다. 제 나름으로 힘 닿는데까지는 하겠지만... 못해도 내 뜻을 많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완벽하지 않은 채로 행복할 수 있는 것도 내 권라이죠.(웃음)

Q.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

꿈을 가지세요! 자아를 확립하고 자기를 실현하는 게성! 그 개성의 추구로 행복하세요! 사는 일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즐기세요! 그 과정이 행복입니다!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글·사진 김진혁(27회)

한국의 의미와 (사)한국공연예술원의 미래

〈한국〉은 한국인의 〈정신과 몸짓〉 속에 넓고 깊게 자리잡고 있으면서도 공기의 존재처럼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한국인의 공연예술속에 〈몰적과 행위〉로 행세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한국〉이라 정의하고 설계·발전시켜 온 큰 그릇의 바탕이다.

은근한 몰위와 넘치지 않는 격조를 중시하는 선비문화와 활력과 박진감이 넘치고 흥, 풍자와 해학의 맛을 즐기는 서민의 민속연회를 통한 권중하는 한국 고유의 독창적 공연예술을 한국이라 정의해왔다.

그 〈한국〉이 대중의 생각과 행위로까지 뿌리내리기에는 여러 단계의 과정과 실천적 시도가 필요하리라 예상했지만, 다행히 예상치 않게 벌리다가은 〈세계속에 스며든 인류현상〉으로 한국인들의 자각과 자긍심에 힘입어 여러 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오늘에 이르렀다. 신인류 첨단 위상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현실 속에서의 〈한국〉은 지금까지 견지해 온 역할의 범주를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즉, 형

통과 실천의 단계로 도약할 시대가 왔음을 깨닫고, 〈한국〉을 넘어 난 공연예술을 통해 그 실체를 떠나갈 때라는 말이다. 〈한국 공연 예술〉이란 실체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모습으로 규정짓기 보다는 〈한국정신과 풍류〉를 지닌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즉, 그 넓은 가능성으로 인해 〈정답없는 답안지〉의 모습으로 또는 〈지침이 없는 그러나 심지가 꽃힌〉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공연예술의 폭을 넓혀 갈 때가 되었다. 우리 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원에서는 〈한국 공연예술 대상(어워드)〉라는 이벤트를 마련하여 〈한국〉의 실체와 표준을 확립하고 지속·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너무나 큰 그림의 실천을 전제로 한 〈한국〉 구상은 오랜 동안의 인고와 속성의 시간을 거치고 드디어 꽃을 피울 때를 맞이하게 되었다. 〈자금이 바로 그때〉라는 확산 속에 〈행동할 때〉인 마침 이 시기에 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원에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태동을 준비하고 있는 초침에 크게 감사한다. 우리 모든 사단법인 한국공연 예술원의 식구들이 〈마음과 몸〉을 다하여 이를 깨닫고 실천할 적기 중의 척기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뜻을 합쳐 이 대업의 창정에 동참하여 〈한국〉의 깃발을 높이 날려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창회 기증 작품 · 벌파리 부는 소년



모교 기증 작품 · 소녀의 좌상

김진국(23회)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

부친 김용기 화백 뜻 받들어 부고와 동창회에 작품 기증했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여러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기부문화를 퍼트리고 싶다. 그것이 아버님인 김용기 화백의 뜻이기도 하다.”

지난 4월, 김진국(23회) 동문은 서양화가인 김용기 화백의 작품을 동창회와 모교인 서울사대부에 기증하고 싶다고 연락해 왔다.

김용기 화백은 1926년생 서양화가로 70~80년대에는 주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여러 차례 개인전을 가진 우리나라 미술계의 원로이다. 총동창회는 김진국 동문의 기증 소식과 작품 선정을 위해 지난 4월 18일 이진형 총동문회장과 김진국 동문, 그리고 아트토근 대표로 있는 홍지숙(36회) 동문과의 자리를 마련했다. 홍지숙 동문은 현재 전 세계를 상대로 대체 불가토큰(NFT) 미술품을 사고파는 온라인 거래 서비스 아트토근을 운영 중이다.

홍지숙 동문은 “김용기 서양화가의 작품을 보면, 시선이 따뜻하고 문화놀이의 경우 후기 인상주의적 요소를 가지



사진 왼쪽부터) 홍지숙(36회), 김진국(23회), 이진형(26회) 동창회장

고 표현하고 있다”라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리는 작품은 많이 보지 못했는데, 동적인 느낌과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서 남녀공학의 분위기과 어릴 때의 추억을 느낄 수 있는 ‘벌파리 부는 아이’ 작

품이 선정됐으며, 모교에는 학생들에게 공감이 갈 수 있는 ‘소녀의 좌상’ 작품을 기증하기로 했다.

김진국 동문은 “동창 중에도 기부할 뜻이 있으면, 아버님의 작품을 나눌 수 있도록 나눔 문화를 퍼트리겠다”라며 “김용기 화백의 작품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도록을 총동창회에 비치해 두겠다”라고 말했다.

김진국 동문은 한국 고분자 분야에서 30년 이상 활동해 왔으며,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부 고분자공학과 명예교수이며, 이엘(EI) 대표로 있다. 지난 2018년, 2020년 개인 미술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2022년에는 선농미술전에 참가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지정 안전진단전문기관



대표 : 오 호 진(30회) H.P : 010-4530-2238

www.banseoksafety.com

국가 기반시설물 진단 및 점검, 시설물 보수, 보강, 토목설계
최신 선진기술 도입과 연구개발
안전문화 정착과 시설물의 효용증진

국내 최고 진단기술 인력과 장비
다년간의 축적된 경험과 시를 활용한 최신 진단기법 개발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국민의 복리증진

연구개발 : 신기술(스마트 건설기술)
건설신기술 제959호
가속도와 변형률 기반 교량의 연직변위 무선측정시스템



등록면허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수리, 건축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구조, 토질, 도로)
건설기술용역업(설계, 사업관리)

본사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42, 4층
서울사무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 1001호
TEL : 02-462-1900
FAX : 02-462-0030
E-mail : bss0030@daum.net

● 세계의 명문

장창환(24회)

'사이판 명사' 늦깎이 수학·체육선생님

**맨발로 마라톤 뛰는
태평양 섬마을 선생님**

'남태평양 작은 섬의 맨발 마라토너'

40여년 전 미국령 사이판에 정착한 24회 장창환이다. 50대에 사이판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공립학교에서 수학·체육교사로 봉직하고 지난 해 70세로 퇴직했다가 아직도 근무한다. 사이판에선 제법 알려진 유명인사로 현지 언론에 종종 소개된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그가 마라톤경기에 맨발로 뛰기 때문이다. 이메일로 주고받은 긴 편지를 짧게 정리했다.

Q. 사이판 신문을 보면 '맨발의 마라토너 JANG'으로 유명인사다. 맨발로 마라톤을 뛰는 이유는?

"열대성 기후인 적도에 위치한 이 섬에서는 원주민들도 나도 맨발로 많이 다닌다. 언젠가 맨발로 마라톤을 참가해보니 편해. 그 후 계속 맨발로 달린다."

Q. 어떤 계기로 사이판에 정착해 교사가 되었나

"원래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미국 본토로 바로 갈 자격이 모자랐다. 본토로 건너가기 위한 디딤들로 사이판에 왔다가 태평양 한가운데 이 조그만 섬에 반해 눌러 앉은 지 40여 년이 흘렀다. (부인도에 좌초되어 표류한 뱃사람) <로빈슨 크루소>처럼 이 섬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러 장사도 해보고 (원래 남원 촌놈 출신이라 자신있었던) 농사도 지어봤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생계를 위한 안정적인 일을 찾다가, 20년 전 (이곳 주민들이 은퇴할 나이인) 50대 중반에 학생 수 천명의 이곳 대학 교육과에 만학도로 입학했다. 졸업하며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늦깎이 공립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었다. 거제도 1/3 크기 관광지 섬의 학생 수



가 800여 명인 학교보다 1인 3역의 만능 선생님이었다. 다양한 과제를 만들어 가르치고 원주민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고 놀게 하며 바쁘게 생활했다. 또 체육교사로 건강과 몸 관리를 증진하는 과목을 가르치고, 수학교사로 수학 경시대회 코치 역할도 했다.”

Q. 멋진 관광지인 사이판은 정착해 살기도 좋은 낙원인가

“전 세계 관광객들이 일 년 내내 휴가로 찾는 이 섬은 40년 넘게 살아온 나 같은 외래인에게 관광지가 아닌 치열한 삶의 터전이다. 주말 낚시로 (저녁상에 올릴 맛난) 생선을 직접 잡을 수 있는 푸른 바다. (마라톤 대회 참가를 위한) 조깅과 언제든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하얀 해변이 있다. 칠순을 앞둔 작년까지 몸담았던 학교의 운동장과 마을 또한 내 집 앞마당이다. 학교와 지역사회 생활체육 공용 시설을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나의 즐거움이다. 내손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작은 사이판 섬 전체가 나의 안방이고 신나는 활동무대이다. 내 차 뒷좌석은 망치, 톱, 정글칼, 벤치, 드릴, 다양한 종류의 붓, 붓, 곡괭이, 삽, 호미, 낫 등 온갖 공구를 갖춘 만물상이요 이동 정비작업소 겸 물류창고다.”

Q. 지역 사회 자원봉사가 그렇게 보람되고 즐거운가

“20대 후반부터 내 삶의 절반 이상을 살아온 이 섬 마을들 곳곳을 내 집처럼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은 나의 큰 즐거움이다. 개인 일 아니면 거의 나서지 않는 미국인 동료 교사들은 (학교시설은 물론) 마을과 도시를 다니며 자원봉사에 몰두하는 나를 이해 못한다. 2015년, 2018년 역대 급 태풍이 이곳을 덮쳐 많은 것을 파괴했을 때 내 일이 많아졌다. 주민들의 아침 (바다)수영장도 쑥대밭이 됐지만, 해변에서 주워온 두툼하고 긴 동아줄로 벽들을 묶고 커다란 부표를 연결해 50미터 국제 규격의 수영장으로 다시 만들었다. 역시 파도에 사라진 바다(오픈)수영 코스도 (2차 대전 때 수장된 일본군 탱크 잔해에 로프를 묶어) 재활용 부표나 20리터 플라스틱 통을 고정해 물에 띄워 국제 규격의 수영코스로 다시 복구했다.”

Q. 아무 보수 없이 바다수영장, 조깅코스, 자전거 코스를 만들고 관리하는 이유는

“첫 째는 20년 전 부터 내가 참가하는 지역 마라톤경기, 철인 3종 경기 준비를 위함이다. 둘째는 내가 십년 넘게 근무했던 학교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체육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40여년 전(미국 본토로 가

기 위한 중간 경유지로 왔다가) 정착한 내게, 건강한 삶과 일자리를 내어 준 이 멋진 섬에 신세를 갚는 의미이기도 하다. 봉사하며 (젊었을 때 몸뚱이 하나만으로 와 식구와 먹고 사느라 주위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살아온 이 작은 섬의 지난날들을 돌아본다. 섬 생활 25년 만에 아들딸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잡아 각자 갈 길을 가 뿌듯하다. 남은 여생은 지역사회 봉사와 마라톤, 철인3종 경기 참여를 즐거움으로 살고 싶다.”

Q. 자원봉사 외에 생활체육에서 앞으로 남은 포부가 있다면

“지난 해 여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국제 철인3종 경기 카테고리 65~69세 남성 부문 우승을 거머쥐어 우리들을 놀라게 한 동기 ‘24철인(강준환) 같은 국제 철인3종 경기 우승도 물론 멋진 목표다. 그러나 내 버킷리스트에 있는 ‘칠순 전 미국 뉴욕, 보스턴 마라톤 완주’가 나의 소박한 꿈이다. 3년 전 뉴욕 마라톤 참가를 준비했으나, Covid19으로 불가능해, 대신 이곳 사이판에서 열린 ‘Virtual NYC Marathon’을 맨발로 완주했다. 그래도 (젊었을 때 이주해 정착할 꿈을 가졌으나 가지 못했던) 미국 본토에서 열리는 철인3종 경기나 마라톤을 언젠가 꼭 참여해 보고 싶다. 전라도 남원 출신의 표류인의 고향은 이제 이곳 사이판이다. 아침마다 고운 산호가루 모래사장을 맨발로 한없이 뚫다. 파도가 잔잔하면 산호초 사이로 수줍게 솟은 태평양 전쟁 탱크 잔해로 해엄 쳐 녹슨 포탑에 올라 걸터앉아 해변과 하늘을 바라본다.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곳이 조금 외로운 (로빈슨 쿠르소)의 낙원이다. 충직한 (프라이데이)는 없지만, 대신 함께 나이 들어가는 아내와 장성한 아들딸이 있다. 아쉬운 건 동기들과 만나 어울리거나 (동창회보에 실린 사진들로만 보는) 선농축전 같은 동창회 행사 참여를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동창회 홈페이지에서 PDF파일로 볼 수 있는 동창회보는 내게 정말 소중한다.”

천하부고 선후배님들이 연락을 주면 (“Chang Whan Jang” (jangsprn@gmail.com)) 이 섬에서 40년 넘게 살아오며 얻은 이곳 현지 정보를 제공하겠다. 방문하면 (주로 all inclusive resort에서만 지내다가 가는 일반 관광객들이 보지 못하는) 이 멋진 섬의 구석구석을 안내해 섬의 숨은 속살을 보여주겠다. 오늘도 먼 태평양 작은 섬 해변 산호초 사이에 가라앉은 녹슨 탱크 포탑에 걸터앉아, 먼 고향의 동기들, 선후배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따뜻한 인사를 해풍에 실어 보낸다.” 글-강창환/정리-정교철(24회)



장덕상 (30회) (주)모브 파트너스 부사장

호텔·숙박·관광 관련 부동산 개발 해결사 관련업계 취업도 도와드립니다

우리나라 호텔·관광업계 1세대로 42년간 호텔리어로 활동해 온 장덕상(30회) 동문. 현재에는 컨설팅 사업부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물류, 리조트, 호텔 사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를 창조하는 종합자산관리회사인 (주)모브파트너스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장덕상 동문을 통해 팬데믹 이후 '보복 여행'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호텔업계의 모습을 진단해본다.

턱없이 부족한 호텔 객실, 인력 부족도 심각

장덕상 동문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타격을 입은 분야 중의 하나가 관광·호텔업계"라며 "이로 인해 호텔 예약 수요의 급감으로 폐업 또는 객실수를 줄인 곳이 많으며, 비대면 체크인/체크아웃 서비스가 이제는 익숙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는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 19 비상사태를 해제했으며, 우리나라도 코로나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보복 여행'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한 반면, 줄어든 호텔 객실은 쉽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의 호텔 객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번만이 아니다. 서비스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인력난도 비상등이 켜져 있다.

장 동문은 "외국인 투숙객을 주로 상대하는 서울 중심가의 4성급 호텔들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비대면 기계 도입을 늘림에 따라 호텔 경력자들도 대거 이탈했다"라며 "현재는 현장 업무를 중심으로 식음료, 조리, 객실 등에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 실제 필요한 인력 대비 16%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부족한 인력난의 원인, 높은 업무 강도 대비 낮은 임금

그렇다면, 왜 호텔업계에 인력이 부족한 것일까? 이는 관광산업 특성상 호텔은 외부 변수에 영향을 크게 받으며, 3교대에 따른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람을 대면하는 서비스업이 주는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평균 급여가 타산업군 대비 낮은 점도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텔업계에서는 현재 5명으로 제한된 외국인 고용 한도를 더 늘리고, 채용 가능 업종 범위도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관련법 규정 수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장덕상 동문은 "호텔이 단순한 숙박 시설이라는 개념을 넘어 K-컬처로 살아나는 우리 관광 산업을 지탱하는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호텔 산업 성장을 발목 잡는 인력난 극복에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다.

에어비엔비, 현행법상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영업해야

재택근무로 인해 장기 여행 증가, 소규모 도시로 떠나는 여행지의 다변화, 사용자에게 편리한 플랫폼 개선으로 여행자들에게 호텔 다음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 에어비엔비이다.

공유숙박으로 잘 알려진 에어비엔비가 부족한 호텔 객실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장 동문은 "현재 공유숙박은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지침'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영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유숙박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려면 내국인 불법 숙박에 대해 국내 해외 기업에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라며 "합법적 숙박 영업은 원하는 수요를 제대로 끌어안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때 공유 숙박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여가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혼자 떠나는 여행, 양보다 질을 추구하고, 무계획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또한, 안전한 여행, 가족여행, 여행기

간은 길게 떠나는 것을 선호한다. 숙박에 있어서도 가성비와 청결성, 그리고 내부 디자인에 중점을 두며, 럭셔리 호텔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장덕상 동문은 "이제 고객은 독재, 넓은 테라스, 프라이빗 수영장이 있는 럭셔리 호텔을 선호한다. 그들은 짧은 기간 머물 때도 '내 공간'이 확보되는 중요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선배들에게 감사, 양보다 질적으로 도움줄 터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해보라'고 가르침을 주신 구자현 영어 선생님의 영향으로 호텔-관광업계 1세대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는 장덕상 동문. 그는 학창시절 여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미술반 활동과 RCY 활동(현열,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추억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지금도 RCY 졸업생 모임인 '청보리' 지회 활동을 하며, 선농문화포럼 강의로도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서울사대부고에 선택된 것에 행복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장덕상 동문은 "좋은 선생님, 좋은 선배님들에게 좋은 면을 많이 보며 성장했다. 저도 계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동문들에게 양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글·사진·조용식(35회)

추신 : "동문 선배님들의 자녀분들이 혹시, 학문적으로 호텔 관광산업에 관심이 있다면, 조언은 물론 네트워킹을 활용해 공부나 취업에 도움을 드리겠다. 또한 부동산 자산 중에 호텔이나 숙박업, 관광관련 부동산 개발에 관심이 있다면 성실성의것 자문해 드리겠다."



김우석(41회) 변호사(오른쪽)과 윤범준(45회) 변호사

법무법인 예화 김우석(41회) 윤범준(45회) 변호사

영화 '라디오스타' 같은 끈끈한 우정 생물반 선후배의 '로펌 동행'

영화 라디오스타는 최곤(박중훈 분)과 매니저 박민수(안성기 분)의 끈끈한 형과 아우의 우정을 그린 영화다.

해당 영화에서 매니저 박민수는 "곤아, 너 그거 아니? 별은 말이지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거의 없어. 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거야"라고 했다.

최곤은 마지막 대사에서 "조용필 처리가라 만들어 준다네. 근데 이게 뭐야. 형이 천문대에서 그랬지?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이 없다고. 그럼 와서 나 좀 비춰주라. 반짝반짝 광 좀 내보자"라고 했다.

형과 동생에서 가수와 매니저로 끈끈한 우정을 나누는 영화 라디오스타의 현실판이 있다면 법무법인 예화 소속 김우석 변호사와 윤범준 변호사이다.

김우석 변호사는 사대부고 41회이고, 윤범준 변호사는

45회이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 합격 후 법무법인 예화에서 부동산 민사일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윤 변호사는 연대 철학과를 나와 세무사 업무를 하다 변호사가 되어 기업 조세전문 분야를 맡고 있다.

한동네 살면서 생물반 출신

사대부고 생물반은 졸업생과 재학생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같이 모여서 곤충 채집을 다녔다. 그때 김 변호사와 윤 변호사가 만났다.

두 사람은 같이 학교를 다닌 적은 없지만 졸업 이후 나비를 잡으러 다니고 물고기 잡아서 생물반 여항에 채워놓고 살았다. 그 경험을 살려 현재 법무법인 예화에는 여항 3개가 있다.

생물반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그 당시만 해도 성인이 돼서 함께 범법적인 예화에서 일을 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영화 라디오스타의 매니저 박민수와 최근처럼 끈끈한 우정을 다지면서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됐다.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한 것은 2017년이였다. 김 변호사는 '직지만 강한 법인, '승소율 높은 전문법인'이라는 목표를 윤 변호사와 함께 공유했고, 서로 뜻이 맞았다. 마치 함께 곤충 채집했던 어린 시절의 의기투합이 성인이 돼서도 함께 이뤄진 것이다.

곤충 채집에서 함께 변호업무로

어릴 때 곤충채집을 하면서 의기투합했던 것이 이제는 변호업무에 의기투합을 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워낙 마음을 함께 했기 때문이다.

다른 선택지들도 충분히 도전할만한 가치가 있고 나를 장점이 있었지만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해서 범법적인 예화를 설립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사대부고에서부터 맺어온 끈끈한 우정 때문이다.

또한 나무가 아닌 숲을 보면서 모든 사건 진행을 스스로 설계하는 범법적인 파트너로서의 삶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서로에게 최근이자 박민수이고 싶은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영화 라디오스타의 최근과 박민수이고 싶다고. 최근과 박민수는 가수과 매니저로 서로에게 빛이 되어 주는 존재이다.

그리고 그 끈끈한 우정은 라디오스타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와 윤 변호사는 그렇게 서로에 대해 최근과 박민수이고 싶다고 한다.

만약 최근은 매니저 박민수가 없었으면 가수 최근이 존재했을까 그리고 박민수 역시 최근이 없었다면 매니저 최근도 존재했을까는 생각을 하게 한다.

현실에서 김 변호사와 윤 변호사는 서로의 존재가 만약 없었다면 오늘날 범법적인 예화가 탄생했을까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들은 사대부고 선후배 사이로 곤충 채집에 나섰던 그 어린 때의 우정을 발판삼아 이제는 법조계에서 우뚝 서는 그런 존재들이 됐고, 서로에 대한 우정을 더욱 단단히 다지고 있다.

끈끈함을 바탕으로 Co-Work 강화

이같은 끈끈한 선후배의 우정은 범법적인 예화를 더욱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물리적 공간의 확장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들과의 Co-Work를 지금보다 더욱 다변화하여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것은 김 변호사와 윤 변호사의 끈끈한 선후배의 우정이 있기에 가능하다. 서로의 눈빛만 봐도 이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했던 세월을 무시할 수 없다. 그들은 그렇게 끈끈하게 서로에 대해 다져가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빛속에서 만난 최근 그리고 박민수

물론 갈등 상황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영화 라디오스타의 마지막 장면은 빛속에서 매니저 박민수가 손기타로 '미인' 노래를 부르면서 최근 앞에 등장하고, 서로 웃으면서 해피엔딩 결말을 맺는 것처럼 현실의 김 변호사와 윤 변호사도 갈등이 있지만 서로 미소를 보이면서 화해를 하곤 했다.

불교 용어로 '염화미소(拈華微笑)'라고 하고 세속적인 용어로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고 한다. 두 사람의 우정이 끈끈하다보니 이제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범법적인 예화의 미래도 밝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법률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의뢰인들의 마음이 어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의뢰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김 변호사와 윤 변호사가 서로 간파하고 입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손발이 척척 맞기 때문이다.

물론 승소율 100% 변호사는 없다. 그것은 영화나 드라마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하지만 의뢰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 역시 변호사의 역할이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들의 마음도 잘 알고 이해하고 어떤 법률 서비스를 원하는지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것은 사대부고 생물반에서 시작한 끈끈한 우정 때문이다.

글·사진_전수용(45회)

애호박을 말하다



유서영 (26회)

노란색 모자에 초록색 바지를 입고 허리를 살짝 오른쪽으로 곧 팔등신 마네킹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어릴 적 우리 집엔 마당 울타리를 타고 오르던 호박 넝쿨이 있었다. 씨방이 달린 연두색 호박꽃봉오리가 앙증맞았다. 며칠이 지나면 영락없이 노란 호박꽃을 피워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볕을 가슴 가득 품고 호박꽃은 충실하게 자신의 임무인 벌나비를 불러 수정을 했다. 그러곤 서서히 시들어 가다 마침내 땅으로 떨어졌다. 그때쯤 꽃 끝에 매달려 있던 씨방은 어느새 할아버지 마고자 호박단추 만큼 했다. 그렇게 애호박은 푸르푸르 제 모양새를 갖추어갔다.

어머니는 입맛이 없을라치면 애호박을 동그랗게 썰어 번철에 구워냈다. 지금도 애호박에 양념간장을 위에 뿌려 주시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 결혼 후 살림살이에 제대로 음식을 차려 먹지 못한 내가 친정에 가는 날이면, 으레 어머니는 "네가 애호박전을 좋아하지?" 하시며 금방 차려 내오셨다. 어쩌면 애호박전은 나의 소울푸드라고 할만하다.

마트에 가는 날이면 애호박을 꼭 산다. 집에 있어도 또 산다. 호박전, 애호박된장찌개, 애호박돼지고기새우젓볶음 등 다양한 요리는 나를 행복하게 한다. 그 부드럽고 싱싱하고 견강한 애호박을 칼로 썰 때는 미치 자라기도 전에 식탁에 오르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맛있는 음식이 될 생각을 하면 어느새 미안함에서 고마움으로 바뀐다.

요즈음 마트에서 파는 애호박은 이상하다. 언제부턴가 비닐 봉지옷을 입은 애호박이 소비자를 기다리고 있다. 원래 애호박은 햇볕 한소끔 받아 가며, 햇살과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감미로운 바람이 찾아와 피부를 어루만져 주면 바랍납 입은 없다며 재잘거리기도 했다.

가끔은 입발을 꿈꾸며 살짝 허리를 곧 애호박은 요염하기까지 하다. 말소시! 이런 애호박이 직접 와닿는 싱그러운 햇살과 바람은커녕 비닐봉지에 갇혀 때맞추어 주는 물만 빨아 먹으며 길쭉하게 멧대거리없이 자라고 있다. 비닐 속에 갇혀서 얼마나 몸을 뒤틀어 댔는지 껍질은 뻣뻣하고 질기기만 하다. 그 부드럽고 색깔도 고운 애호박이 예를 태우다가 열 받아 소리 지르다가 절망 속에서 자신을 포기해서인가. 웬지 생명력이 없고 기가 빠져 있는 듯하다. 이런 애호박으로 만든 음식은 별로 맛이 없다.

비닐을 벗기고 애호박을 쥔다. 문득 '유정황제의 여인'이란 드라마 속 여인이 떠오른다. 분명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에서는 여인들의 전족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나라의 뒤뚱거리는 여인을 스스로 좇아 발을 자라지 못하게 작은 버선 속에 어린아이의 발을 감금시켰다. 부와 귀의 상징이라

고, 시기를 놓친 조금 더 자란 어린아이의 발은 비틀고 심지어 뼈를 부러뜨려 조그마한 신발 속에 구겨 넣지 않았던가. "조금만 참자. 이렇게 하면 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이 달콤한 속삭임을 믿으며 참고 또 참았을 어린아이들의 눈물방울은 어디로 다 흘러갔을까. 어릴 때 가끔 전족한 중국 할머니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참으로 모양새는 이상한데 그들의 당당한 태도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었을까 궁금했다. 시대적 사명감이었을까? 어린 날의 고통을 승화시키며, 자신보다는 가문을 위해 뒤뚱거렸다. 고통스럽고, 애절한 눈빛을 감추고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며 걸었던 그 여인들의 걸음걸이를 차라리 숭고한 몸짓이라고 치부(置簿)하고 싶다.

영화 '코르사주의 주인공인 엘리자베트가 떠오른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황가의 황후인 엘리자베트는 어린 시절 상류사회의 예절을 배우면서 자랐다. 하지만, 모험심이 강하고 사내아이 같은 기질이 있는 독특한 개성의 소유자였다. 당연히 엘리자베트는 엄격한 궁 생활이 몸에 맞지 않았다.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토록 싫어하는 자신을 옥 조이는 코르사주에 매달리며 극도의 소식을 하며 개미허리를 유지하였다고 한다. 비닐 속에 갇힌 호박도 차라리 미끈한 몸매를 가꾸어 내어 사람들의 사랑을 얻어내려 한 것일까?

그녀는 외롭게 유럽을 여행하며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왕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 덕분에 남편인 요제프 황제가 헝가리의 왕권을 얻어낼 수 있었다. 코르사주에 갇힌 만큼 많은 것은 잃었으나 자유의 열망을 대승적 차원으로 끌어올려, 오늘날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던가.

이제 나는 꼭 끼인 비닐 옷을 입은 애호박을 애처롭게 바라보지 않으려 한다. 아주 조그마한 씨방이던 시절 햇빛이나 바람을 투명판 비닐을 통해 만나야 한다는 것조차 모르고 자라던 어느 날, 자신을 용아내는 코르사주나 신발처럼 그렇게 거부하면서도 끝내 그 운명을 벗지 못하고 그 안에 갇힌 중국과 오스트리아 황제의 여인들처럼 애호박의 삶은 바로 투쟁이었다. 왜? 지금 전족을 한 여인이나 몸속 장기의 위치가 바뀌어 건강을 잃는 코르사주를 입는 여인들은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래, 그래 차라리 박수를 보내자.

수정된 어린 씨방이 따스한 햇살과 속살대는 바람에게 행복에 겨운 입맞춤을 할 날을 기다려 본다.
"여보! 오늘 끓인 애호박 된장찌개 정말 맛있네."

엘타워, 최고의 연회를 빛내다

59,662 회

연회행사 개최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함께한
59,662번의 연회, 90만 명의 누적고객
품격의 신뢰까지 높인 엘타워,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프리미엄 연회를 선보입니다.



예약·문의 02-526-8600~4

- 10개의 대·중·소 연회홀을 갖추고 있어 패션쇼, 자동차 런칭쇼, 스포츠파티, 세미나, 국제회의 등 다양한 연회가 가능합니다.
- 특별하고 기쁜 행사를 완성하는 EL Tower 연회 프리미엄을 느껴보십시오.

total banquet hall
TOWER 엘타워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9번출구 바로앞 위치
Vol.124, Summer 2023



민화, 행복으로의 여정

여러분 지금 행복하시나요?

일상에 치여 현실의 어려움 앞에 좌절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의 전통회화인 민화 몇 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조선시대 그림이면 먹으로 그린 산수화, 수목화를 떠올리는데 서인들의 삶과 바람을 담은 소박하고 자유스러운 그림, 민화도 조선말기에 유행하였습니다. 민화는 궁중에서 시작된 궁중 채색화에서 차차 민간에게 전해지면서 색을 더하여 다채로움을 느끼는 백성의 그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화려한 색채와 자유로운 조형미에 부귀영화, 장수, 입산양명, 자손번창, 부부화합 등 길상의 의미들을 더하여 생활 장식화로 백성의 안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수목화보다 다채로워 친근하고 소박한 우리의 정서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민화하면 대표적인 그림이 까치 호랑이입니다. 좋은 소식을 불러주는 까치와 나쁜 기운을 물리쳐주는 호랑이가 만나 하나의 익살스러운 그림이 탄생했습니다. 이 두 조합이 어울리시나요? 소나무 위의 까치는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고 가까이에서 호랑이를 쳐다 봅니다. 그런데 호

랑이의 모습을 보니 우리가 무서워하는 호랑이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모습이며 오히려 까치가 더 영리해 보입니다. 우리 조상은 까치와 호랑이라는 두 개의 조합을 한 화면에 넣어 길상과 벽사의 의미를 살렸습니다. 그리면서도 친근한 모습은 담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덥혀줍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바라보면 빙그레 웃음이 납니다. 이것이 민화의 매력이죠, 호랑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

는 동물로 1988년 서울 올림픽 호돌이와 2018년에는 백호인 호랑이를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민화에 등장하는 꽃을 한 번 볼까요? 모란도입니다. 모란은 우리 민화에서 빠질 수 없는 화제로, 꽃 중의 왕이라 불릴 만한 자태처럼 부귀와 영화를 상징합니다. 변치 않는 이미지인 괴석과 함께 그려지면 부귀와 장수를 뜻하고, 한 쌍의 새와 그려지면 부부화합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모란을 주제로 한 그림은 궁중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의 사랑을 두루 받았습니다.

사실 민화가 유행한 시기는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으로 당시 우리나라는 조선에서 대한제국 시기를 지나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는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활기차고 화려한 민화가 성행했다고 하니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를 잃은 힘든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삶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림으로 나타내며,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염원하고 복을 기원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처럼 민화를 보면서 '행복해져라, 나는 할 수 있다' 주문을 외우다 보면 자연스레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민화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힐링이 되는 취미를 갖고 싶어서였습니다. 마침 미술사를 공부하는 와중에 민화의 색채에 매료되어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보았고, (사)한국민화협회에서 민화를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협회 직원을 채용한다는 소식에 면접을 보았는데, 운 좋게 합격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민화와 나는 참 신기한 인연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처음 그린 그림은 모란도였습니다. 부드러운 한지 위에 적당한 농도의 먹을 묻힌 붓으로 온 집중을 다하여 선을 그리고 그 안에 맑고 화사한 색채를 채우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졌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는 동료들과 지난 2023년 2월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작은 전시회도 개최하였습니다.(그림 왼쪽부터 책거리, 호차도, 화초도) 민화는 그림을 보기만 해도 참 행복합니다. 또 그



속에 좋은 의미가 담겨있으니, 민화는 제 삶에 행복으로의 여정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민화를 감상하는 방법을 드리자면, 첫 번째, 민화는 이야기가 있는 그림입니다. 민화 속 길상의 소재들을 찾아보며 민화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두 번째, 민화는 못생겨도 정이 넘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순수하고 자유로운 표현, 과장하고 단순하게 그린 민화를 있는 그대로 감상해보세요. 추상적인 모습은 현대적이기까지 하답니다. 세 번째, 민화는 화려한 색채가 특징입니다. 밝고 명랑한 색채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희망과 긍정의 빛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민화는 전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대민화로 발전하며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전통민화와 현대민화를 아우르는 전시인 대한민국민화아트페어(K-MINAF)가 6월 22일(목)부터 25일(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SETEC 1관)에서 개최합니다. 민화작품을 소재로 한 다양한 현대작품을 관람하고 실제

조선민화 원화를 볼 수 있고, 이 외에 민화 관련 재료(안료, 붓, 한지, 서적)와 민화체험, 민화 굿즈 상품 판매 등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관에서는 고미술 아트페어, 3관에서는 현대미술 아트페어가 동시에 개최하니 전통과 현대미술이 만나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서울사대부고 동창회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민화의 좋은 기운 받으셔서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글: 송지수(62화) (사)한국민화협회 간사

● 글로벌 동창회 소식



● 뉴욕 동창회 _ 회장 오시국(22회)

뉴욕골프회(회장 21회 강덕중)는 4월 16일 Bayside 소재 Oeerview Park Golf Course에서 금년 첫 골프대회를 개최 하였다.

동문과 가족 28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81타를 기록한 강덕중 동문이 우승상을 받았으며 이옥희씨(16회 Mrs.이정일)가 82타로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대회 후 김승호 동문(23회)이 새단장한 Flushing의 명소 K-BBQ에서 배풀어진 만찬에서는 2022년도 3개 대회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이날 수상자는 남자부 최우수상에 이정일(16회), 우수상에 권일준(20회), 여자부 최우수상에 정현숙(16회 Mrs.이종근) 우수상에 문선(22회) 동문이 수상하였다.



좌로부터 오시국 뉴욕동문회장, 이정일, 문선, 정현숙, 강덕중, 권일준

또한 한국으로 한국하는 강덕중 골프회장의 후원으로 변진호 동문(25회)이 신임골프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이날 원활한 대회진행을 위하여 뉴욕골프회에 조상근 동문(20회)이 \$1,000 김승호 동문이 \$1,000를 기부했다.



● 애틀란타 동창회 _ 회장 황춘기(22회)

선배님 몇 분에서 5월 중순 이후 정기 여행을 떠난다 하셔서 춘계 야유회 날짜를 당겨서 계획했다. shelter 예약 문제로 5월 12일(금)에 작년과 같은 장소인 West Bank Park shelter # SL8203에서 열렸다. 오늘 야유회는 우중에도 불구하고 23분이 참석하셔서 오랜만의 만남 속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야유회 모임을 위해 수고해 주신 노홍식 선배님 부부, 모든 야유회 일정을 계획해 주시고 게임 진행과 경품까지



준비해 주신 양혜옥 선배님 부부, 경비 지원을 담당해 주셨던 정영자 선배님 그리고 야유회를 위해 수고하신 이정우 총무님께 감사드립니다. 야유회를 위해 지원해 주신 선배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김순홍 주정숙 선배님 \$200 지원과 수박 / 최혜삼선배님 귤자리 및 음식 주문 / 이강순 선배님 약식 / 장현순 선배님 수박 / 탁무성 선배님 귤자리 / 이정우 총무님 양념 갈비 20 파운드



● 시애틀 동창회 _ 회장 이명희(16회)

22회 채양식 동문이 Portland 지사를 오픈하여 3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일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자재 및 일부 고기 종류는 모두 취급하고 있다. 현재 B to C 온라인 풀 update중이라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 youngocean.com 참고하시길. 명규,

Young Ocean Portland Inc.
9041N. Wilbur Ave. Portland, OR 97217
Branch manager : William Chae
Tel : 425-630-7719



류문기(1회), 김민주(21회) 미주연합회 회장, 오영환(2회)

● 남가주 동창회 _ 회장 박시영(15회)

2023 상반기 남가주 서울시대부고 이사회

일시: 2023년 3월 11일 12시 강남회관

1. 결산 및 예산보고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입 출금 약식보고

2. 임원선출

차기회장 15회 박시영 동문 추대 및 선출

3. 2023년도 총회 개최의 건

새 회장단에 임입하기로 함

4. 장학회 운영안

장학회운영안은 장학회위원(심재호) 전회장(박홍주), 회장(박시영), 감사(김영테)에 위임하여 운영방안을 회의



약수하는 신임회장 박시영(15회), 신임이사장 박홍주(22회)

토록 의결함

5. 향후 동창회 운영안

2023년 3월 11부로 모든 동창회 업무는 새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한다.



美국무장관, 정재훈 동문 가족사 소개

▶16회 정재훈

지난 4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중 열린 국무성 오찬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환영사에서 정재훈(16회) 동문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정 동문의 회사는 달 탐사 아르테미스(Artemis)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최초의 여성우주비행사와 흑인 우주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딸인 줄리정은 현재 스리랑카 주재 미국대사로 활약하며 외교관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정동문은 우주왕복선 쉐런저호의 폭발원인을 해결한 모임 결빙방지 열징치를 개발하여 NASA로 하여금 우주개발을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플 향기

오늘은
꽃물 눈물
다 흘러 보는 날입니다
친구와 함께
흉금을 털어놓고
가슴을 티 트리는
날입니다
이제 내 가슴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빈 가슴

오늘은 첫 사람을
만나는 날입니다
이제 할미꽃이 되어
다소곳이
머리 숙이고 있습니다
한 때는
하늘을 향해
머리를 뺏뺏히
쳐 들기도 했습니다

격랑의 세월
폭포 속에 흘러 보내고
잔잔히
고여 있는 연못을
바라 봅니다

3.23.2023
청와담 관목



이종근(16회)

내 이름은 죽보의 국민학교 때 까지는 이강민. 그 이후는 이종근입니다 미국에 의서는 다시 이강민을 쓰고 있습니다. 청와담은 아호 관목은 호입니다



윤미희(20), 진명식(10), 최권용(10), **신대식(5)**, 이화근(30), 황만수(35), **조왕제(30)**, 황철수(30), 유정옥(21), 최덕순(13), 권금석(27), 김장규(17), 홍석규(29), 이종문(22), **이순석(2)**, 이미은(19), 우영원(11), **황영자(11)**, 신혜숙(11), 박형순(23) (사진은 왼쪽 뒷줄부터, 굵은 글씨는 고인)

중증 장애인 도우미에 하나된 '재인동문회'

재인동문회는 1990년대 작고하신 11회 이철신 선배님을 중심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인천과 부천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50여분의 동문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모임을 갖고 있으며, 고인이 되신 이순석 선배님(2회), 신대식 선배님(5회), 송영수 선배님(5회)를 비롯한 많은 선배님들의 노고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막내이면서 30회인 제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재인모임에 참석하게 된 계기는 IMF가 시작하던 1998년 30회 동기인 고 조왕제의 권유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IMF로 인생의 절벽을 느끼고 한국을 떠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문 선배님을 만나 힘을 얻을 수 있었고, 그러던 중 모 대학병원의 지원팀장을 맡게 되어 IMF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그만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인천과 평택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인동문회에는 여러 훌륭한 선배님이 계시지만 50살에 목사가 되어 장애인사역을 하는 28회 현찬홍 선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09년, 중증장애인들의 헌금과 11회 신혜숙 선배님의 후원과 재인동문의 도움으로 세워진 새



음교회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30여명의 장애인을 사모님과 함께 돌보며 매주 예배를 하고, 매일 점심식사 후 가지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이 있는 곳이 이곳"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몇 년 전에는 주위의 모함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빼앗겨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굳건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31일에는 인천부평의 식당에서 10회 진명식 선배님을 모시고 14명의 동문이 모여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문 선배님의 격려와 후원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재인동문회 회장 30회 이화근 (010-2373-8742)

식약처 인증 KF94 마스크 서울사대부고 동문특가



KF94 네오라이프 소프트
황사방역마스크

새부리형마스크 동문특별 할인판매가

30,000 원

100개(5매×20개)



KF94 네오라이프
황사방역마스크

3D마스크 동문특별 할인판매가

29,000 원

100개(10매×10개)

문자나 카카오톡 주문 가능합니다.

주문처 → (주)네오메디제약 대표이사 이상민(39회) 010-6437-3777

네오 네오메디제약 의약외품 전문제조사 / OEM전문기업

본사/제1공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42, 3층 301호(백석동, 유니테크빌)
제2공장.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온골길 83-39 www.neomedipharm.com



NEO ESC 네오이에스씨 (건설·기계사업부)

NEO Environment Safety Construction

국내최초 풀림방지 너트

풀리지
않아야
너트다 **SAPER
LOCK**



배연창/환기창/슬라이딩 배연창



Vol. 124, Summer 2023 45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는 부산·울산지회

보습비가 내리는 4월 15일, 부산·울산지회 25명의 회원이 봄 소풍을 떠나기 위해 동해남부선 좌천역에 모였습니다. 모두 오랜만에 만나기에 정겹게 인사를 나누며, 처음 보는 동문도 있어 간단한 자기소개를 마치고 산책길을 발길을 옮깁니다.

오늘 부산·울산지회 동문이 떠나는 봄 소풍 코스는 동해를 만나는 기장군 '좌광천 신해길'과 '박태준 기념관', 그리고 임랑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카페 '꽃밭에서' 가수 정훈희와 김태화 라이브 공연 관람입니다. 수변공원 위로 빛꽃이 아름답다는 좌광천 산책길을 따라 우산을 받쳐 들고 삼삼오오 길을 걷습니다. 포근한 날씨 덕분에 좌광천 벚꽃은 이미 꽃잎까지 떨어져 있었지만, 천변 주변으로 연초록의 물결이 시원스럽게 펼쳐진 모습입니다.

모두 그동안 못다 나누었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하천 뒤로 펼쳐진 연초록의 숲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 한 컷, 찰떡

모든 메뉴가 주문과 동시에 조리해 들어간다는 '하안집'에 들어서니 맛깔스러운 상차림이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부산·울산지회의 발행인 호문연(12회) 동문은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니 너무 좋습니다. 모임은 모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산지회, 울산지회를 가리지 말고 같이 자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따뜻한 축사를 건넸습니다. 부산지회 박진배(27회) 회장도 "이진형 총동창회장이 지회 활성화를 위해 부산·울산지회의 봄 소풍을 많은 동문에게 알리고 싶다고 서울에서 동창회 사무처장이 함께 동행해 주었다"라며 "앞으로도 부산·울산지회 모임을 자주 갖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울산지회 최병철(23회) 회장도 "이번 봄 소풍 덕분에 울산지회 회원들이 가장 많이 모였다"라며 "부·울·경 지역에 사대부고 동문 후배들의 유입이 거의 줄어들어 안타깝지만, 이번 기회

를 통해 울산지회도 왕성한 활동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맛있는 한정식과 박진배 동문이 가져온 대선주조 '시원매실골드'를 건배주로 했습니다. 향긋하고 부드러운 맛을 주는 시원매실골드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한 행사주(비매 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푸짐한 한정식에 딱걸리 한 잔씩 주고받으며, 즐거운 식사와 함께 대화의 시간을 나누는 부산·울산지회 회원들은 인근임랑문화공원에 있는 박태준 기념관으로 이동했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정식 개관된 박태준 기념관은 고 박태준 명예회장의 생가 옆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입구로 들어서면 전시실, 수정원, 도서관, 세미나실 등을 관람할 수 있으며, 지회 일행들은 수정원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한 후에 기념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청암 박태준의 일대기는 물론 큰밭에게 보낸 손 편지와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박태준 회장의 자상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층에 마련된 도서관과 세미나실에서는 청암 박태준의 일대기를 담은 기록영상물이 방영되어 모두 진지한 모습으로 시청도 했습니다. 봄 소풍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카페 '꽃밭에서'로 가는 길에 만나는 임랑해수욕장은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해변 길을 따라 10분 정도 걸으니 가수 정훈희와 김태화가 운영하는 '꽃밭에서'가 보입니다. 벌써 10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저희도 자리 잡고 약 100분간의 라이브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지는 순간은 항상 아쉬움이 크게 전해옵니다. 부산과 울산으로 떠나는 선배들을 마중하고, 10명의 동문은 커피 한잔과 발 마사지로 여유를 장식했습니다. 부산·울산지회처럼 생활권 중심으로 동문회의 모임이 자주 이루어지길 기원해 봅니다. 동행에 협조해 주신 부산·울산지회 동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글·사진 조용식(35회)



● **선농과학기술인회** _ 회장 이희범(19회)



3월 2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30층 주피터 룸에서 신년 만찬회가 열렸다. 5회 한문회(선기회 2대 회장)부터 75회 조현우(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까지 45명의 동문과 이희범 모교 교장 선생님과 하만호 교감 선생님과 교사 4분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1부 이희범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이진형 총동창회장의 축사와 이희범 교장의 모교소개, 이광형 KAIST 총장의 'KAIST의 글로벌 캠퍼스 전략' 특별강연을 경청한 후 만찬을 즐겼다.

만찬 후원 : 이흥배(9회), 김성중(11회) 동문

● **방송반** _ 회장 김경원(36회)



4월 방송반(PBS)은 2023년 첫 모임을 강남역 표방 중식당(40회 동문 근무)에서 27회부터 48회까지 23명이 함께했다. 올해 9월 आय회, 12월 송년회 등 3번의 모임이 있을 예정이다. 임원진 회장 김경원(36회), 부회장 김연철(39회)

▶ **선농여성전문인회** _ 회장 장병순(20회)



2월 9일 엠버서더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조찬 특강을 열었다. 조찬 특강은 <만나라 이웃나라>의 저자인 이원복(전 덕성여대 총장)을 모시고 세계 역사의 흐름과 한국의 현대사를 통해 오늘날의 한국, 한국인을 읽는 뜻깊은 자리였다.

또한 4월 13일에는 프레지던트호텔에서 18회 김경진(전 튀니지 대사) 동문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을 주제로 조찬 특강을 열었다. 이날 김 전 대사는 일본 문화유산의 특징과 한계에 대한 통찰력 넘치는 관점을 제시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 **선농유지재단** _ 단장 심상덕(25회)



상단 후 첫번째 프로덕션 <깊은 밤을 날아서> 공연을 앞두고 후덜덜 열며, 아니 공공 연 상태로 겨우 마친 오디션이 끝났다. 일주일만 지난 3월 26일 <캐스팅 보드>가 단박방에 올라왔다. 희비가 엇갈려 오색의 얼굴빛이 각각이었던 시간은 흘러가 이제는 예전의 모두 같은 살짝 얼굴빛이 되었으리나? 노래 연습, 연기 연습 모두 참 재미있다. 참 어렵다. 근데 그래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다행이다.

가능바이오 유재홍(25회)대표가 매주 연습 식사로 보내주는 가능 반숙란 덕분인가? 최홍농장 최홍병(32회) 농장주가 보내주는 맛있는 사과 덕분인가? 최희경(26회) 운영위원이 수시로 제공해주던 모시 송편 덕분인가? 그렇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김선영 연출과 조연출, 권해준(42회)음악감독과 박은애(46회) 음악 조감독의 열성 지도 덕분이었지. 특히 노래 연습 후 녹음해 올리는 <숙제> 덕분이 큰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단원들의 명연습은 이렇게 계속된다.

● **선향회(향토연구반)** _ 회장 장정화(34회)



4월 8일 봄 산책의 기대감을 안고 시작된 정기모임은 조금 쌀쌀하기는 했으나 모히려 걷기에는 좋은 날씨였다. 울림뜰공원-한성백제박물관-몽촌토성길을 두어서 산책하고 관람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성백제박물관에서는 해설사의 안내로 한성백제의 역사를 접했는데 향토연구반이었기에 가능한 진행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어진 뒤풀이는 신해순(16회) 선배 중심으로 맛있는 점심과 즐거운 낚시 시간을 가졌다. 사람이 좋으면 함께 하는 시간이 행복한 기억으로 남는다는 것을 경험한 시간이었다.

● **청구회** _ 회장 오호진(30회)



3월 모임은 2023년 첫 월례회로 21회부터 56회까지 모두 68명이 함께했으며, 경기 후 신임 오호진 청구회장을 비롯해 새로 수고할 임

● 지회소식

원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은, 감사 최관호(27회), 회장 오호진(30회), 수석부회장 최치영(36회), 총무 김형찬(42회), 총무담당 정동균(44회), 박종혁(48회), 조영송(49회) 경기팀에 유대균(39회), 언정화(44회), 김민승(47회), 홍보팀에 우남영(47회), 채운석(47회), 임성원(48회)으로 구성하였다. 금년 9월에는 청구회 월례회 모임 400회가 된다. 400회 기념으로 청구회원들과 원로 선배님들을 모시고 기념대회를 갖는다. 이를 위해 5월에 실시 예정이던 청구회장배 대회를 9월 25일로 연기해 제400회 기념 모임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다. 월례회 참석 신청은 깃수별 간사에게 신청해 주시기나 깃수별 모임이 없는 깃수는 청구회 총무인 42회 김형찬(010-4273-0119)에게 직접 문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 성우회 _ 회장 정지선(30회)



4월 11일 고국에 일시 귀국한 인도네시아 선교사인 강현중(27회) 목사, 캄보디아 모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규(28회), 최영남(32) 선교사 부부, 장애인 돌봄 사역을 하는 현진홍(28회) 목사와 홍광의(22회) 목사, 김추민(27회) 목사, 한경준(31회), 류한경(36회) 동문 이 참석했다. 식사후 김추민 동문이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열매 나눔재단 회의실에서 캄보디아 선교 사역 영상을 보여 선교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어 인도네시아 선교 이야기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헌당했다. 탁자 위에는 한 동문의 사랑이 듬뿍 담긴 추억의 방울이 가득했다.

▶ 대전지회 _ 회장 임성팔(27회)



4월 12일, 어울림 플라자 대회의실에서 '동의 침과 뜰'이란 주제로 강의와 실기를 겸한 대전 모임이 있었다. 강의와 실기는 동의 침구학회 대표로 있는 채태식 동문(28회)이 진행, 모임 장소는 현재 전임 출연기관장 협의회 회장인 이주진 동문(23회)이 제공했다. 아울러 모임에 늘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21회 김정희, 서성숙 동문, 대전 동문회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23회 이혜숙, 정태영, 이한기, 한공찬 동문, 전임 회장인 25회 이영규 동문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서성숙 동문은 멀리 천안에서 달려와 주었고, 이혜숙 동문은 부군인 서동수 동문(19회)이 병중인데도 불구하고 맛있는 대추차를 손수 달여 오는 정성을 보였으며, 이한기 동문은 곧 자녀들이 있는 미

국으로 출국할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 부부가 함께 참석했다. 늘 관심을 가지고 대전지회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선배, 후배 동문께도 감사를 드린다. 다음 모임은 6월 말, 금강수목원(충청남도 산림박물관)으로 예정하고 있다.

● 선농경영인회 _ 회장 김기명(27회)



2023년도 1차 행사로 최근 기업경영에서 점점 비중이 커지는 ESG 관련 조찬 강의를 하기로 정하여, 3월 16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이 분야의 권위자이신 윤덕찬 대표(현 지속가능발전소 대표)를 초빙하여 ESG 전반에 관한 강의 및 조찬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이진형 총동창회 회장을 비롯한 많은 귀빈 및 선후배가 참석하였다. 선교회 2차 모임은 6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 나라사랑모임 _ 회장 이형권(25회)

3월 11일 동창회관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40명 회원이 참석해 매국집회 참석, 전직지 방문 등 나라사랑 활동을 꾸준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5월 12일, 호국의 요람인 태릉 육군과학교를 방문하여 생도들의 퍼레이드를 관람 후 박물관에서 소개 영화 관람, 야외 무기 전시장 등의 두어를 했다. 6월에는 현충일에 국립묘지 참배 및 6.25 기념행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현충일 국립묘지 참배 시에는 6.25 동란 중 전사한 장병들 중 나라사랑모임 회원과 이름이 같은 전사자, 혹은 가장 비슷한 이름을 가진 전사자 묘소를 찾아 개별적으로 참배할 예정이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나라사랑모임 활동에 동참 제원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회장:이형권(25회)010-5040-4795

총무:강인화(24회), 김정진(25회), 윤상학(25회)

● 그린필드 _ 회장 고종환(21회)



보이, 걸스카우트 OB모임인 그린필드회가 창립 62주년을 맞아 코로나로 연기됐던 '창립 6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강원도 자연학습장에서 1박 2일로 개최된 그린필드회의 '창립 60주년 행사'는 5월 20일 개최 및 참림기념식 및 교육과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린필드회의 다양한 체험과 교육프로그램, 그리

● 지회소식

원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은, 감사 최관호(27회), 회장 오호진(30회), 수석부회장 최치영(36회), 총무 김형찬(42회), 총무담당 정동균(44회), 박종혁(48회), 조영송(49회) 경기팀에 유대균(39회), 언정화(44회), 김민승(47회), 홍보팀에 우남영(47회), 채운석(47회), 임성원(48회)으로 구성하였다. 금년 9월에는 청구회 월례회 모임 400회가 된다. 400회 기념으로 청구회원들과 원로 선배님들을 모시고 기념대회를 갖는다. 이를 위해 5월에 실시 예정이던 청구회장배 대회를 9월 25일로 연기해 제400회 기념 모임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다. 월례회 참석 신청은 깃수별 간사에게 신청해 주시기나 깃수별 모임이 없는 깃수는 청구회 총무인 42회 김형찬(010-4273-0119)에게 직접 문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 성우회 _ 회장 정지선(30회)



4월 11일 고국에 일시 귀국한 인도네시아 선교사인 강현중(27회) 목사, 캄보디아 모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규(28회), 최영남(32) 선교사 부부, 장애인 돌봄 사역을 하는 현진홍(28회) 목사와 홍광의(22회) 목사, 김추민(27회) 목사, 한경준(31회), 류한경(36회) 동문이 참석했다. 식사후 김추민 동문이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열매 나눔재단 회의실에서 캄보디아 선교 사역 영상을 보여 선교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어 인도네시아 선교 이야기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헌당했다. 탁자 위에는 한 동문의 사랑이 듬뿍 담긴 추억의 방울이 가득했다.

▶ 대전지회 _ 회장 임성팔(27회)



4월 12일, 어울림 플라자 대회의실에서 '동의 침과 뜸'이란 주제로 강의와 실기를 겸한 대전 모임이 있었다. 강의와 실기는 동의 침구학회 대표로 있는 채태식 동문(28회)이 진행, 모임 장소는 현재 전임 출연기관장 협의회 회장인 이주진 동문(23회)이 제공했다. 아울러 모임에 늘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21회 김정희, 서성숙 동문, 대전 동문회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23회 이혜숙, 정태영, 이한기, 한공찬 동문, 전임 회장인 25회 이영규 동문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서성숙 동문은 멀리 천안에서 달려와 주었고, 이혜숙 동문은 부군인 서동수 동문(19회)이 병중인데도 불구하고 맛있는 대추차를 손수 달여 오는 정성을 보였으며, 이한기 동문은 곧 자녀들이 있는 미

국으로 출국할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 부부가 함께 참석했다. 늘 관심을 가지고 대전지회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선배, 후배 동문께도 감사를 드린다. 다음 모임은 6월 말, 금강수목원(충청남도 산림박물관)으로 예정하고 있다.

● 선농경영인회 _ 회장 김기명(27회)



2023년도 1차 행사로 최근 기업경영에서 점점 비중이 커지는 ESG 관련 조찬 강의를 하기로 정하여, 3월 16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이 분야의 권위자이신 윤덕찬 대표(현 지속가능발전소 대표)를 초빙하여 ESG 전반에 관한 강의 및 조찬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이진형 총동창회 회장을 비롯한 많은 귀빈 및 선후배가 참석하였다. 선교회 2차 모임은 6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 나라사랑모임 _ 회장 이형권(25회)

3월 11일 동창회관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40명 회원이 참석해 매국집회 참석, 전직지 방문 등 나라사랑 활동을 꾸준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5월 12일, 호국의 요람인 태릉 육군과학교를 방문하여 생도들의 퍼레이드를 관람 후 박물관에서 소개 영화 관람, 야외 무기 전시장 등의 두어를 했다. 6월에는 현충일에 국립묘지 참배 및 6.25 기념행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현충일 국립묘지 참배 시에는 6.25 동란 중 전사한 장병들 중 나라사랑모임 회원과 이름이 같은 전사자, 혹은 가장 비슷한 이름을 가진 전사자 묘소를 찾아 개별적으로 참배할 예정이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나라사랑모임 활동에 동참 제원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회장:이형권(25회)010-5040-4795

총무:강인화(24회), 김정진(25회), 윤상학(25회)

● 그린필드 _ 회장 고종환(21회)



보이, 걸스카우트 OB모임인 그린필드회가 창립 62주년을 맞아 코로나로 연기됐던 '창립 6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강원도 자연학습장에서 1박 2일로 개최된 그린필드회의 '창립 60주년 행사'는 5월 20일 개최 및 참림기념식 및 교육과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린필드회의 다양한 체험과 교육프로그램, 그리

고 기병 열병행, 메달 액자, 티셔츠, 기념타올, 향건, 스카우트 송노래책 제작 등이 소개됐다. 또한 1박2일의 야영대회를 통해 회원 간의 친목 및 추억 쌓기와 스카우트 정신을 다시 한 번 새롭게 새기는 기회를 가졌다. 그린필드 연대기를 비롯한 그간의 기록물과 행사 전 반적인 내용을 담아 디지털 앨범을 제작하여 배포 했다.

● 사진반 _ 회장 김광복(32회)



6월 야외회 일정을 안면도 셋방 섬터로 정했다. 부부동반 가능하여 일체의 경비는 29인명주, 30이회근 두 분의 고문들과 30이재성, 31운영숙, 33남기장 동문들께서 친조금을 보내 주어 적립 기금과 더불어 사용코자 한다. 총무는 33김현철 동문이 맡게 되었다.

● 선농미술인회 _ 회장 이종수(14회)

여섯번째 열리는 9월 정기선농미술인전을 앞두고 회원 모두는 8월 31일 경기도 양주 소재 주영숙 동문(7회)의 조각공원에 초대되어 섬례임으로 기다린다. 특히 워싱턴에 거주하는 이종수 회장이 오랫동안 귀국하여 향후 모임의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을 이끌고, 제35회 <이중섭 미술상>을 수상한 한국 현대미술의 다원주의를 대표하는 작가 윤희동 화백(28회)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총동문산악회 _ 회장 차승환(35회)



모교 재학생들과 함께 인왕산 정기 산행을 다녀온 3월은 따스한 봄기운이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재학생을 포함해 모두 175명이 참석한 인왕산 산행을 잘 마무리하고, 선, 후배가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24대 전임 회장인 정순철(36회) 동문에게 감사패 전달, 재학생에게 선물 전달식이 있었다. 4월에는 112명의 총동문산악회 회원들이 버스 3대를 나눠타고 영월의 운탄고도 5길과 함백산을 다녀왔다. 총 47(A, B, C, D)의 코스로 진행된 이번 산행은 자신의 레벨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서 산행했으며, 마주치는 구간에서는 "다 왔어요. 힘내요."라는 응원과 격려의 말을 전했다. 5월 선농축전 때는 '하늘이 숨겨둔 곳'이라는 천장산 하늘길 산책을 위해 총동문산악회 짙은 가수들이 코스를 안내했다. 또한, 6월 동풍 해외 원정산행의 마지막 점검과 안내를 위한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 선농사진회(선사회) _ 회장 이근수(17회)



4월 14일 경복궁과 청와대에서 봄 나들이겸 총사 모임을 가졌다. 10시부터 거행하는 수문장 교대 의식을 참관하고 경복궁 내 곳곳의 정취와 향기를 흠뻑 느낄 수 있었다. 청와대는 근래 처음 방문하는 좋은 기회로, 부푼 마음을 갖고 본관 관저 그리고 상춘재를 둘러보았다. 근처 삼청동으로 발걸음을 옮겨 소문난 맛집에서 흥합 비빔밥으로 허기를 달랬다.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년4회 정기 총사를 갖기로 하고 다음 총사는 7월 중순으로 기약하였다.

홈페이지: <http://snsjh.snubugo.net>
문의처 : 총무 문상학(25회) 010-5293-1147

● 탁우회 _ 회장 정만호(16회)



5월 2일 을지로 입구 한정식집에서 9명이 모여 그간 못 나섰던 정다운 예기로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으며 특히 앞으로 탁우회는 엘리트 운동에서 벗어나 생활 탁구로 임신타기로 의견을 모았고 많은 후배들을 영입하여 더욱더 활성화시키도록 하였다. 올해 제3회 선농가족탁구대회는 11월 4일(토)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 도서관 _ 회장 김기황(24회)



모교 도서관이 3월 24일 새 단장을 하고 재개관식을 가졌다. 도서관 동문들도 이 행사에 초대를 받아 21회 김여영, 24회 박명숙, 김기황 동문들이 참석하여 테마를 곁었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분위기에 편리함과 쾌적함을 느껴 후배들에게 큰 속박이 되리라 기대되었다. 행사 후 재학생 후배 도서부원들과 선배들의 옛 도서관 생활 이야기와 후배들이 좋은 환경을 잘 활용하여 아름다운 추억을 가꾸고 꿈과 희망을 크게 키울 수 있도록 당부의 조언과 환담을 나눴다. 춘계 모임 행사를 5월25일 을림뜰공원에서 가졌다.



졸업45주년 30회 기념 여행기 낭만 가득 나미나라 추억 만들기

#강변역 7시 50분이 집합시간!

6시에 수원 집을 나서야한다. 조금이라도 일찍 도착해야 맘을 놓을 듯싶다. 주말이라 꼭 주무시고 계시는 아내를 흔들어 깨운다.

"부인, 주무시오? 이 몸을 화서역까지만 옮겨주세요!"

이런 대사는 언제나 할수 있을까?

(똑똑-의태어 아득자?? 나 동창회 행사 가는데

얼른 차 좀 택서 전철역까지만. 짐이 많다...)

그런데 말이다 종일 비가 온단다. 올해 동창회의 의미 있는 단독 행사인데...준비도 많이 했는데...

세준(동기회장 장세준)은 작년 송년회 즈음부터 '45주년 기념으로 뭘 하면 좋을까? 동기들과 추억거리 하나는 제대로 이뤄야 하는데'라고 자주 입에 올렸다. 50주년 행사는 계획되어 있고 기금도 예치되어 있다. 그 사이 5년을 앞두고 45주년식을 갖자는 동기 사랑의 결심이었다.

몇 년 사이에 동기회에서는 소중했고, 개인적으로 더욱 귀중한 몇몇 친구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 그래, 우리 건강할 때 더 자주보고 만나서 옷자! 약속도 하고 포옹도 하자! 건배를 하고 파안대소 하다보면 이 젊음과 건강이 더 오래오래 가지 않겠나.

며칠 전부터 남이성의 일기예보를 들여다보지만 단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의 정성인지 주말 예보화면에서 비와 구름 우산 이나설은 왜 그리 변하지 않는지... 그래 우중 행사 각오하자!! 뭘든 되겠지. 우리 30회는 우리끼리 모이

면 시막이든 정글이든 다 좋아!

#고대역 플랫폼. 순환선이 곧 들어온다는 방송을 들으며 왼편의 전광판을 바라보는데 익숙한 모자가 눈에 들어온다. 봉연이 그리고 희주다. 반가워라 연아!! 트로트 작사가인 봉연. 그만의 독특한 유머가 있는 친구. 그의 특유의 입가미소가 답한다. 만나자마자 비의 양이 어떨까로 인사 말을 대신한다.

새벽최후 아침 7시부터 동창회 운영밴드에 댓글 등장.

"1바로 도착 했네요" 아직 아무도 안 올 시간. 동흡생이다. 30년 넘게 교편을 잡고 인재양성에 반평생을 바친 김동흡. 그는 오늘 남이섬 행사에서 오후에 거행될 게임 5종을 기획했고 1일 운동회 감독선생님이다.

강변역! 아침에 수원에선 보습보습 내리던 비가 여기는 제법 주룩주룩 내린다. 빨강색 대절 버스도 도착하고, 길 건너편에서 여럿이 반가이 뛰어온다. 전(성혁진 부회장) 쫘 (태종순 재무이사) 썩니(김은선 감사) 화근(이화근 감사) 이 서로 반긴다. 눈에는 반가움이 가득하고 비를 맞는 얼굴에는 걱정이 몇 보인다.

"원기야~~ 어찌니 비가 많아오네. 괜찮아. 우린 추녀 밑에서 낙숫물 소리들으며 재잘 거려도 좋다. 그치 그렇지?" 예정대로 8시 10분 버스는 출발했다. 예정 인원에서 몇몇 친구들이 빠진 34명. 남이섬 선착장에 3명이 직접 오기로 하여 참석 인원은 37명이다.

편이가 직접 갈아온 딸기 주스에 영주특산 기지떡으로 조



식을 대신했다. 노가다 사장 성기가 불쑥 두름 숙회를 내민다.

그렇게 분위기는 고조되고 차창에 부딪치는 비는 때마침 틀어놓은 '밤비야' 노래와 함께 여기저기서 캔 맥주를 으르른다는 경쾌한 금속음과 함께, 그렇게 차는 절도 달렸다. 비야 비야 고운비야 ~~~

송골매 빗물, 김세환 비를 이어서 틀었다. 친구들은 따라 부른다. 눈을 감기도하고 차창 밖을 그윽히 바라보며 가사를 읊조린다. 다들 이 노래 나오던 시절이 그렇지? 그렇다. 그렇지만 없어진게 아니야. 그때 그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더 좋잖?

비 덕에 상춘객이 줄어드니 길도 안 막히고 한 시간 반 만에 남이섬에 거의 다다르지만 맥주마신 친구들의 간청으로 빗꽃길 휴게소에 쉬어간다. 갑자기 차창 밖에서 까르르 웃음소리가 들린다.

선착장으로 개인차로 오겠다던 현주와 버스에서 내린 여동들이 화장실 앞에서 조우한 것이다. 화성으로 여행하다 달나라 휴게소에서 만난 것만큼 반가웠나보다. 여동들의 저런 환한 웃음은 도무지 따라할 수가 없다. 이젠 우리 30회도 슬며시 여성동기의 밝은 웃음과 다정다감함 그리고 자기관리 잘하는 그녀들 건강미로 우리 동기회의 냉난방 시스템이 더 잘 유지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늘 따스하고 보송한 구들장 같은 그런 여자 동기들... 소프트 파워의 오래가는 예너지이다. 참 고맙고 부럽다.

남이섬 선착장 주차장 도착! 이제부터는 남이섬이리기 보단 '나미나라'이다. 강을 건너는 도강이리기 보단 입국이다. 나미나라 공화국 청사에 미리 입국철차를 받아들였기에

우리는 여권이나 티켓 확인 없이 인원수 확인으로 승선할 수 있다. 태맛추어 호진과 재성이 개인차로 도착했다

호진은 아드님이 운영하는 커피공장을 새벽부터 털어 즉석 추출한 아이(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캔에 밀봉하여 아이스바스에 담아 들고 왔다. 재성은 가장 먼곳 세종시에서 아침부터 서둘러 와준 것이다. 인물이 흰해서 우리 30회 남자 평균 미남수치를 올려주는 친구이기도 하다.

배를 타고 선미에서 단체사진을 담는다. 빨강 파랑 우산은 제 역할 보단 비가 오는 날을 증명하는 촬영소품 임무를 수행했다.

좁은 자리에 서든명 넘게 모이다보니 우산은 대부분 접고 몇개만 펼치고.. 비를 맞는데도 환하게 웃는다. 30회 동기는 대부분 사진 모델의 자세가 자리잡혀있다. 나(사진사)의 손 제스처에 따라 펼쳐서고 모여앉고 카메라를 응시한다. 환하게 웃으며... 화이팅 신호엔 불끈 주먹을 쳐든다. 그렇게 익숙해져있다

나미나라 중앙 잣나무길. 한반도로 말하면 1번 국도인 셈이다. 선착장에서 주요 시설이 있는 곳까지 양쪽에 잣나무가 도열한 멋스러운 길. 우리는 우산을 쓰고 비도 맞으며 걸었다.

들이마시는 공기는 몇 번이고 필터를 거친 생수 같았다. 게다가 비에 젖어 슬며시 뿜어내는 피톤치드가 코를 지나 가슴과 머리까지 순식간에 정화를 해주는 듯하다.

다른 방문객들에게는 꽤 안가도록 숙달된 행동으로 잣나무길 중앙에서 일사분란하게 정렬하여 나미나라 입국 기념 단체촬영을 마치고 정해진 한식당으로 들어섰다.

아.. 사람 많다. 비가 오니 전 부침에 따른한 국물이 생각나

● 동기회 소식

서인가. 답사 왔을때 보다 손님이 많다. 게다가 외부 테이블은 쪼아있어 앉을 수가 없고 간단한 식순이라도 진행하려 했지만 이후 시간으로 미루고 식사를 했다.

빗줄기는 더 굵어진다. 동흥생은 이대로는 오후 게임 진행이 불가하다 판정을 하고한다. 폭죽이 다 쪼은 느낌이랄까 준비된 폭죽을 터뜨릴 수 없으니... 단체 계약을 담당할 책임메니저를 찾아가 애로를 얘기하고 브라스 공연 관람을 제안 받았다. 에코스테이지라는 곳인데 친정이 동행식으로 천막이 씌워지고 사방이 띄어진 좋은 공간이다. 우리 플래카드를 보고 일바생(아마 여고생 들인가보다)이 "천생님 하나 굵금 한데요. 서울사태부고 나오면 서울대 많이가요?" 난 0.5초도 머뭇거리 없이 "네 많이 갑니다. 여기온 동창들도 서울대 출신이 많습니다"라고 농을 했는데... 어? 수긍하는 표정이다. 플래카드의 서울대 마크와 근접된 부고 마크를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브라스밴드공연의 영골 연주 때는 은선, 호, 종순, 은실, 재순, 영석이 중앙통보에서 즉석 용원 안무를 보여 연주밴드에게 리액션으로 보답하고 관람객들의 흥을 더 돋우었다.

비가 그쳤다. 브라스 공연을 보며 잠시 잊고있는 사이 비가 그친 것이다. 동흥생 우리 게임가능?? 오케이!!! 3종만 합시다. 4개조 미리 선수 명단은 나눠져있다.

수주전 부터 경기 팀이름을 뒤로 할까 고민 중에 교가의 가사에서 영감을 얻는다. 교가 가사가 나이들수록 참 좋다싶다.

1조 홀러서팀, 2조 언제나팀, 3조 무궁한팀, 4조 기리자팀으로 선발 뱃으며 발로 던지기, 풍선 나르기, 풍선 터뜨리기 3종 경기를 진행했다.

모두 열심히 뛰고 던지고 터뜨렸다.

시작 전에 꾸뻐거리던 친구들도 막상 출발선에 서니 고등 때 체육시간때 보다 더 적극적이다. 표정은 진지하고 손발은 민첩하다. 각 종목별로 순위를 갈라 점수를 매기고 종합집계를 했다. 역시 동흥선생의 진행은 순조로웠다. 다친이 하나없이 공평한 집계결과 2조 언제나팀이 우승했다. 시상은 우승팀 이외에도 단결상 우정상 등으로 참석자 전원에게 커피 쿠폰을 상품으로 지급했다. 바로 옆 나무정자에 모여 둘러앉아 연가와 조개껍질 묶어... 옆친구 손바닥을 치며 다같이 노래했다

우린 나미나라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고2시절 수학여행 저녁 오락타임으로 잠시 순간이동을 했다. 그때 남녀학생 속소도 달랐던 기억이지.

남이섬 일정 다섯 시간은 짧게 지나간다. 그만큼 지루하지

않음인가. 험궤레일에서 사진찍기 놀이, 정관루 지나오며 강가데크길 걷기, 봄 단풍보며 가을간다. 가을 정취에 빠지려는 듯 어느새 출국선착장이다. 늘 시작할때의 설렘보다 마칠때의 허전함이 느껴지는 건가.

출국장 바로 앞이 달갈비 맛집이다. 이미 시간 맞추어 철판에 지글지글 매콤한 향기를 발산하며 열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다.

다른 손님들 두어 테이블만 있기에 남이섬내에서 못한 약식 식순이라도 진행하자!! 세준희장이 일어나 45주년 기념 축사를 한다. 우리 50여 년 가까이 학창시절과 그리고 졸업후에도 이렇게 잘 지내왔다. 앞으로 최소 50년 더 같이 가자!! 이대목에서 오늘 모인 40여명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무엇을 할까? 그래 이럴때 교가를 불러야지!! 식당주인께도 미리 양해를 구했지만 조심스럽게 제창을 하였다. 준비된 반주에 맞추어 '홀러서~ 언제나~ 무궁한~ 기리자'로 힘있게 그리고 차분히 불렀다. 다른좌석 젊은손님들도 신기한 듯 멋진 듯 바라봐준다. 짧은 제창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자랑스럽다. 모교사랑이 우리 동기사랑으로 이어지고 나 자신까지 사랑하는 실천의 길이다라고.

한 시간 남짓 서울 가는길에 우리 모두 돌아가며 무반주로 자신의 노래를 한국씩 했다. 친구들 반이상은 노래에 앞서 좋은말도 없었다. 대부분 오래 같이 가자는...

참석 예정도 아니었던 창수 노래는 참 멋졌다. 맨뒤 가운데 좌석에 앉아 차분히 노래하며 버스안이 감상에 폭 젖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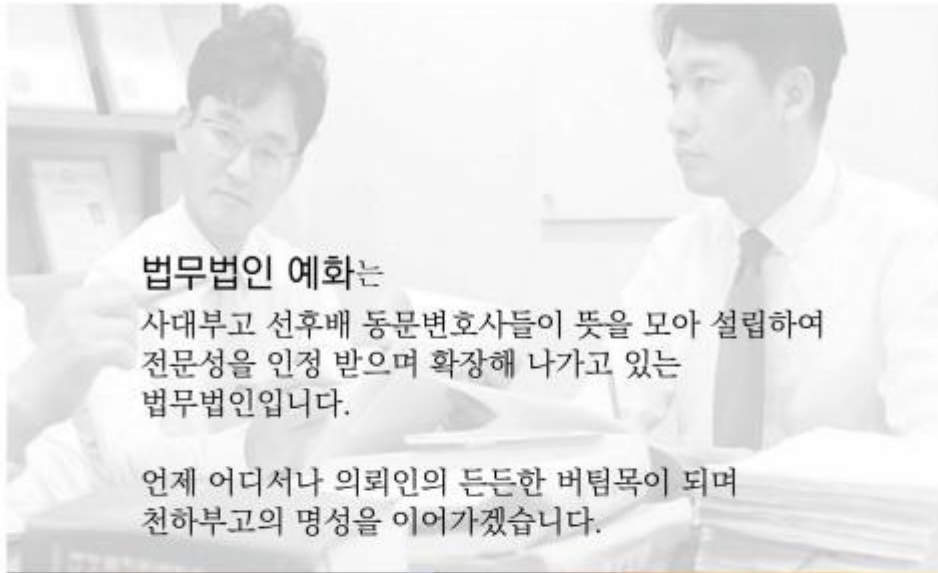
스타트를 끊은 새걸의 '아침이슬', 정이 많은 풍미의 '무정부르스', 찬송가인듯 아닌듯 '바위섬'을 부르는 재순 권사님, '너를 위해' 그 어려운 가사를 외워 음정오류를 자신감으로 소화하며 완주한 세준 회장. 우리 30 가수들 성기, 익수, 종순의 멋진 노래를 들으며 우리는 강변역에 도착했다. 오늘 우리 참 잘했지? 잘 먹고 잘 웃고 잘 놀았지?

나미나라 추억만들기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쳤다. 참석한 동기들 모두 주인공이 되고 웃음이 킬레이가 되어 끊임 많은 추억여행이었다. 모두 멋지고 사랑스러운 든든한 친구들이다. 같이 있으면 파스함이 더해가는 동기들.

또한 사정상 참석치 못했지만 마음으로 응원하고, 다녀온 사진들을 보며 댓글 등으로 같이 자리한 듯 참여하는 친구들 모두 고맙기 그지없다. 개인에겐 귀중한 재화를 동기 사랑의 실천으로 창조하는 친구들도 자랑스럽다. 모두모두 30회 졸업생임이 복이다 또한 행운이다.

이렇게 우리30회가 계속 존재함이다.

글: 사친, 송환기(K308)



법무법인 예화는

사대부고 선후배 동문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설립하여
전문성을 인정 받으며 확장해 나가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의뢰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며
천하부고의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윤범준(45회)
파트너변호사/세무사

김우석(41회)
대표 변호사



기업법무

기업금융, M&A,
상사채권, 법인제 및 소득세



부동산 / 채권

매매, 임대차, 전세, 담보
채권채무, 손해배상



형사

금융범죄, 강력범죄
성범죄



가사

상속 증여, 권질형,
이혼, 재산분할



32회 故정창호 10주기 추모 사진전

창호야! 우린, 널 잊을 수가 없어

한밤의 벨소리

따르릉, 따르릉~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린다.

고교 시절 반장 영준이가 "친구야, 우리 창호 10주기 추모 사진전을 하자"며 나보고 '추모위원장'을 맡아 달란다. "대들 무슨 소리냐? 나도 부병 중이라 상갓집도 안 가는데 고인의 사진전이라니"하며 못한다 했지만, 거듭되는 그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고, 그날부터 난 창호의 환영에 사로잡혀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다.

먼저 몇몇 친구들에게 카페마다 남아있는 창호의 사진을 찾는 것에 도움을 청했지만 10년 넘게 시간이 흘러 쉽지가 않았다.

다행히 총동 카페에서 '영희'가 보내온 100여 장의 사진과 총동 산행 카페 '민순', 총동 프리텔에서 33후배 '지동희'의 도움을 받아 300여 장의 사진이 모였지만 안타깝게도 화질이 안 좋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다. 하는 수없이 플랜 최하위 등급으로 가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오랜 기간 동문들의 행사를 촬영해 온 '경흠'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마침내 그에 적극적인 지지와 밤샘 선별작업을 거친 333장의 사진들이 보석처럼 이메일을 통해 날아왔다.

내겐 마치 333인의 전사와 같았다. 감동 그 자체였다.

그날 밤부터 나는 고인의 눈과 몸짓이 되어 생전에 최고의 모습이었던 창호를 떠올리며 사진을 선별하였다.

낮에는 전시회가 예정된 <공간 미끈> '침잠' 전시회 중인 후배 '35회 조주영' 작가를 찾아 최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 수차례 자문을 구했다.

2월 도봉산 시산제가 있던 날, '산악대장 영준'이가 햇빛 잘 드는 카페에 산악회원들을 모아놓고 추모산행과 추모 사진전을 논의하던 중에 조용히 듣고 있던 '승철'이가 인쇄, 인화, 사진 책자 제본까지 사진에 관한 모든 일체를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한다.

그 말에 박수가 터져나오고 덕굴이, 영래, 상숙이가 '찬조대열'에 앞장을 선다. 나도 한마디 거들었다.

"내가 간 이식을 받을 때 창호가 병문안 와서 하는 말이 '병원에 왜 술이 없냐? 장례식장 가면 술도 주는데, 그나마 장례식이 아니라 다행이다. 이 또한 지나 가리라' 하며 위트를 해주었다. 그 말을 듣고 눈물 나게 웃다 배가 다시 터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 돌아보니 '여기 모인 친구들 모두가 창호요, 앞으로 누구나 창호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하였다.

하산 길에 '산악대장 영준'이가 '32동기 산악회가 서로를

배려해 주는 따뜻한 산악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다. 나도 '그런 리더가 우리에게 오려 있었으면 좋겠다'했다.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도 우리들의 복이지만 결국 좋은 리더는 회원들이 만들고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겨울 하늘에 봄이 되었다

이른 시상제와 산행으로 아직도 대낮에 날씨는 쾌청, 일찍 들어가면 집에서 혼난다는 너스레를 떨며 산악회 친구들과 자리를 옮겼다. 2차 자리에서는 들뜬척처럼 거친 '홍병'의 입담에 여동들이 깔깔대며 연신 고개 방아를 찧고 부딪치는 술잔마다 인정이 넘쳐 흐른다. 제법 술이 오른 원이가 내 옆 자리에 앉더니 마치 내 얼굴을 제 얼굴 인냥 하고 발뚎 꼬물락 거리며 전시회 작업할 때 장비를 챙겨와 작업을 해주겠다고 한다. 제법 술이 올랐는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한다. 원

이의 반복적인 배려로 내 얼굴은 그의 손에 공개되고 공작어, 흥어, 비릿한 풍영의 굴까지 안주 냄새로 뒤범벅이 되었다.

"차라리 내가 그냥 무릎 꿇을게" 했다. 모두가 웃었다. 옆에 있던 승철이도 손을 꼭 잡고 '멋있게 잘해보자' 힘을 주며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 오늘은 모두가 창호가 되어 술이 되고 그리움이 되어 추운 겨울 하늘에 따뜻한 봄이 되었다.

다음날 아침, 마음이 동한 걸까? '승철'이에게 연락이 왔다. 사진 출력을 벌써 다해 놨다는 것이다. 오 마이갓! 믿을 수가 없었다. 설마 하며 갔지만 사진은 상상이외었고 화질도 최상급이었다. 생전에 채식주의자였던 창호보다 때가 덜 찼던 좋았다. 자칭 15억짜리 첩단 장비의 결과물이었다. 고인의 사진을 받아들이고 나마서 늦은 점심으로 갑국수 한 그릇을 시켜놓고 사진을 손에 꼭 쥐고 먹는데 갑자기 '창호를 두 번씩이나 잃을 수가 없다'하는 마음에 울려하며 눈물이 맺혔다. 그날 창호는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긴 하룻밤을 지냈다. 10년 전, 나는 아들과의 간 이식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고 창호는 딸과의 간 이식을 거부하며 세상을 떠났다. 10년이 흐른 지금 시간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 주었을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창호가 선택한 영원한 삶도 아직은 눈물뿐이다. 그저 살다 떠나가는 자리에 아름다운 꽃이 피

어났으면 좋겠다.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32 동기들과의 공감이었다. 하여 사진 작업 과정은 물론 전시회 준비 및 홍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동기 밴드에 공유하며 창호의 눈과 귀가 되어 생전의 그를 송환해 친구들과의 추억 속에 흠뻑 빠져 보았다.

망각도 큰 선물이다

드디어 전시회 날.

이른 새벽부터 입장에 맞추어 청아공원에서 추모식과 관악산 추모산행이 이루어졌다. 이어 '공간 미술'에서는 전시회의 서막이 오르고 많은 친구들의 발길과 19일재봉, 31정권천, 36정순철 동문들의 마음이 속속 전해져왔다. 멀리 제주에서 '찬'이가 날아오고, 명주에서 '홍병', 강원도 '병수', 당진에서 '상연', 미국에서 온 '울성', 재천 찍고 온 '은택'이 가

연일 반가움을 전해온다. 전시장에서는 22장의 대형 사진과 명사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600여 장의 사진 퍼즐들이 때 순간 추억의 빛을 발하며 맞춰질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사진 속의 창호가 연일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지을 때마다 친구들은 큰 웃음으로 화답을 해주었다. 생전이나 지금이나 창호는 친구들에게 맑은 웃음을 주는 그런 친구였다.



그렇게 전시회의 막이 내려지고 그리움은 정지된 시간의 길목에서 참나의 순간들에 대한 깊은 고뇌와 성찰 그리고 바라보면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감동과 성취감을 각자의 마음 속에 선물로 남겨 주었다.

전시회를 마치고 총평회 자리에서 산악대장 '영준'이가 '이제 우리는 창호를 떠나보내려 합니다' 하니 '민순'이가 '그래 망각도 큰 선물이야' 한다. 사진은 6월 산행 때 소백산 자락 '취풍가든'에서 소각하기로 하였다.

뒤뜰이 자리에서 '대장!!! 다음 기항지는 어디요' 물어보니 얼큰하게 술이 오른 '영준'이가 다음은 '하와이 갑시다' 한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날 놀러 갑시다' 한다. 역시 우리의 리더답다. 덕분에 올다가 또 웃는다.

우린 그렇게 웃으며 친구를 떠나 보냈다. 꽃비 흠날리는 시라도록 고운 봄날에~ 잘 가라 창호야! 사랑한다~. 글. 김광복(32회)

● 동거회 소식

▶7회_ 회장 윤승태, 주영숙



매년 모이던 춘계모임을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서초원에서 3월 7일에 남자 15명, 여자 11명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3월 24일에 이재원 원연시 회장이 서울대 총동창회로부터 상대동창회 향상장학재단과 분당 서울대병원에 거액을 쾌척하여 관덕대상을 받았다. 이 일을 축하하기 위해 동거들이 모여 기쁨을 나누며 지랑스러운 일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9회_ 회장 조동암



2023년, 우리가 사대부고를 졸업한지도 66년! 참 오래도 살았다는 느낌이다. 그래도 친구를 만나면 잊고 있던 이름을 큰소리로 불러보고, 불러보기도하는 기쁨이 너무 좋다. 온전한 내 이름, 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자꾸 만나고 싶은가 보다. 인연을 맺은지 69년인데- 매월 9일에 모이는 '구구회', 고급지고 화려한 정상은 아니지만 많이 먹어라 서로 권하면서, 재미난 이야기, 쓸쓸한 이야기도 귀기우려 들어주는 모습이 훈훈하여 2월 9일에도 올해 첫 모임은 인사동 한정식집에서 모였다. 들려오는 소식은 '누가 많이 아프단다', '누가 멀리 떠났단다' 소식 뿐이지만 80도 훌쩍넘긴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은 선택받은 것이고 자기관리를 잘했다는 뜻이니 우리는 존경받고 가슴이 따뜻하고 행복한 할아버지 할머니!!! 이만하면 성공한 삶이 아닐까요?

▶10회_ 회장 김태무



봄맞이 식도락을 겸한 여행으로 4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로

고창의 선문사와 군산의 낭만의 기차길, 군산 근대박물관 그리고 일본 주택, 추억의 초원사진관을 보고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1박한 후 다음날 신유도를 관광하고 변산의 채석강 해변을 거닐어본 후 레소사로 향했다. 이곳의 유명한 천나무 가로수길, 느티나무 가로수길을 거쳐 천왕문을 지나 내소사 대웅보전을 보고 나서 절 입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버섯전골 백반으로 정식을 먹은 후 공소항의 곰소젓갈집을 둘러 젓갈시장을 본 후 귀로에 올랐다. 이번 여행에서 맛본 고창의 풍천장어, 군산의 간장게장, 변산의 버섯전골 중 군산의 간장게장이 가장 좋았던 것 같다. 38명(남16, 여22)이라는 대식구가 모여 1박2일 추억의 여행을 빛꽃과 푸릇푸릇한 신록 속에 무사히 마치고 왔다.

▶11회_ 회장 연홍숙



11회 산우회는 3월 24일 넷째 금요일 11시 서울대공원 경기를 했다. 비가 온 뒤에 푸른 하늘과 공원의 울긋불긋 화초들이 우리를 반겼다. 풀바람에 마스크를 벗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걸으니 오랜 체증이 내려가는 듯 후련했다. 점심으로 먹은 구수한 할머니 송씨 순대국밥, 우거지 국의 파천과 막걸리는 일품이었다. 커피를 끓여와서 대접하는 우영임의 따뜻한 마음으로 더욱 훈훈했다.

4월 28일 11시에는 중앙공원을 걸었다. 산우회는 11회 누구나 함께 걷고, 먹고, 웃고 즐기기를 희망한다. (회비 일 만원) 한편 산책회 회원들은 매월 둘째 수요일마다 정소를 달리하며 걷고 자연을 즐긴다. 이번 연 4월 12일 봄꽃이 만발한 석촌호수를 둘러 즐겼다.

▶12회_ 회장 강산중



지난해 10월 정기총회에서 금년 5월과 10월에 기념행사를 하기로 하였다. 5월 30일에 시청 앞 프레지던트호텔 19층 아이비 홀에서 함상 정경고 그림은 동거 동창회를 열기로 했다.

더 늦기 전 보고 싶은 얼굴을 만나길 기대한다. 그리고 4월 13일 (목)에는 용문행 전철을 타고 국수역 인근에 있는 '예마당'에서 점심 식사 후 주변 둘레길을 산책하고 왔다.

▶13회_ 회장 광정선



2022년 정기총회에서 2023년도 신임회장 광정선을 선출하였으며 곡 회장의 제안으로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많은 호응이 있었으나 걱정으로 시작하였으나 소식도 없던 동창까지 참여해주어서 92명의 참여로 735만원을 모금하여 지난 2월 21일 주한 튀르키예 지진 피해 공식 기부처인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기부하였다. 13회 동창들은 놀라운 성원에 다시 한번 13회 동기애에 자부심을 느꼈다.

▶14회_ 회장 성경모



4월 27일 올해 첫 이사회를 열고 신년도 차기 회장 선출권 및 하반기 행사에 관해서 의논을 하였다. 14회는 전원이 다 이사로 되어 있어 누구나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각 동아리의 대표들이 동아리 활동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였는데 현재 산악회, 당구흥회, 기우회가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고 기악팀도 긴 공백을 끝내고 활동을 재개하기로 하겠다고 한다. 5월 10일 14산악 주관 원정산행이 3년 만에 재개되어 34명의 회원들이 강화를 다녀왔다. 봄에 매년 1박 2일 원정산행 가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전 회원들의 건강상의 문제로 해서 쉬쉬하던 견고 맛있는 것 먹고 즐겁게 놀다 돌아오는 하루 여행으로 축소 실시하게 된 것이다. 강화도에서는 월곶돈대 면미정과 세계유산 일렁표에 등재된 고인돌 유적지를 둘러보고 연산군 유배지와 그곳에 조성된 화개정원 정자에 앉아 즐거운 단소를 나누었다. 특히 제적봉 북한평 전망대에서는 바로 앞에 보이는 북한평을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생애서 과연 저 북한 평을 밟아볼 수 있을까 하는 회의심으로 치장한 강상에 찾기도 하였다. 이번 선농축전에 500여명의 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반가운 민남의 시간을 가졌다.

▶15회_ 회장 김성식



고교졸업 60주년을 맞아 7월 11일부터 3박 4일간 46명이 일본 홋카이도로 기념 여행을 다녀오기로 하고, 가을에도 2박 3일 일정으로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재미동창도 졸업 60주년 기념으로 일부 가족을 동반한 21명이 지난 4월 15일부터 1주일의 여정으로 멕시코

크루즈 여행을 즐기고 무사히 돌아왔다. 동창회 모임도 활발하여 신악회(회장 김정윤)는 서울 근교의 둘레길을 걸으며 건강과 우의를 다졌다. 당구모임(회장 김태경)과 바둑모임(회장 최명욱)도 매월 정기모임을 갖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나사모(회장 25회 이형권)회원은 3월 총회에서 결정된대로 고교연합이 주관하는 보수단체행사에 참여하여 나라사랑에 적극 나서고 있다.

▶16회_ 회장 이상례



여인과 마찬가지로 매월 4째 화요일에 갖는 동신모임의 시작인 신재를 3월 21일 30여 명의 동문이 참여하여 안전산행과 친목도 모하는 다짐하며 올해의 동기회 활동을 열었다. 이번 달 4월 25일에는 수락산 둘레길을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에 아랑곳 않고 나섰으나 다행히 간간히 흩부리는 봄비를 즐기며 편안한 코스를 즐겁게 다녀왔다. 모처럼 참석하신 동문의 특별 배려로 더욱 따뜻한 추억거리로 남을 듯하다. 앞으로는 산보다 트레킹할 수 있는 코스를 선택해 누구나 힘들지 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매달 두 번씩 모이는 당구회, 올부터는 매달 모임을 두 번으로 늘린다는 바둑모임, 이번 여러 모임을 통해 우의를 다지는 꾸준한 활동을 기대해본다. 최근에는 그동안 코로나로 고국 방문을 미루었던 친구들이 귀국하여 귀국 환영회를 가졌다. 서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반기고 즐거웠다. 앞으로도 귀국하는 동문의 만남 자리를 만들고 내년 60주년에 꼭 다시 오도록 이야기하고 있다. 앞으로 5월 선농축전의 모임을 기대하며 올 한해를 모두 건강하게 보내길 바란다.

● 동기회 소식

▶16회(원)_ 회장 이진구



4월 7일 제천으로 빗꽃놀이 봄 소풍을 떠났다. 청풍문화재단지에 아직 아슬아슬하게 남은 빗꽃을 감상하고 보약한집 밥상으로 점심식사를 한 후에 의림지로 갔다.

찬디밭에 모여 팀대항 제기차기 시합을 하니 어렸을 때의 추억이 떠오르고, 승리한 팀은 막대한 상품이지만 받아서 즐겁고, 제천 여러시장을 돌며 제천시에서 준 제천화페로 각자 장을 보고 가을 소풍을 기억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17회_ 회장 이강선



3월 17일 1차 씨밀레 행사를 가졌다. 스물다섯 명이 모여 서울 한복판에 있는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DDP)에 가서 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우주선 길기도 한 건물을 관람하였다. 청문이 하나도 없고 4층 건물에 기둥이 하나도 없고 외벽의 알미늄 판넬 수가 축구장 5개 넓이(제곱m)이며 각각 고유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영국의 여류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하고 2년 뒤에 착공 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DDP, 외국인 관광지가 되었다고.

17산우회에서 3월 25일 대모산 불국사 인근에 50여명이 모여 산악인의 건행을 빌며 성대하게 시산제를 지냈다. 4월 3일엔 그동안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비행기 타고 37명이 오끼나와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다. 세계에서 가장 큰 수족관 관람도 하고 호텔 바에서 흥겹게 노래도 불렀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잊지 못할 해프닝도 추억 속에 간직하고 무사히 돌아왔다. 매일 17일에 하는 2차 씨밀레도 서울 숲에 가서 8만 송이의 화려한 튜립 속에서 동심으로 웃고 떠들며 봄을 만끽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봄날은 간다'는 노래 처럼...

식당 이름도 특이한 '할머니의 레시피'에서 맛있는 점심도 먹고 젊 은이들 틈에서 커피 마시며 한담을 했다. 60여 년 전통인 가신회(가톨릭 모임)에선 4월 27일 춘천 맥막을 상당에 가서 가슴에 잔잔한 여운을 남긴 음악 피정을 하고 작년에 개통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다는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도 탔다.

4월 28일엔 일재동 소재 불모야 당구장에서 당구 대회가 있었다. 해마다 당구 동호회 인구가 늘어 올해엔 15명(남12명, 여3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18회_ 회장 류현상



18회 동기회에서는 해외 거주 동문이 고국을 방문할 때 많은 동문을 만날 수 있도록 단독방 사전 홍보, 소모임 방문 환영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봄 LA 거주 김옥주 동문 방문 때는 4월 8일 낮 환영 오찬과 서울 식물원 산책을 통해 많은 대화와 우의를 나누었다. 필리핀 선교사 김현진 동문과 중국 단둥, 서해 북단 백령도 등에서 의료자원봉사 활동을 마치고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윤용섭 동문이 방문한 4월 11일에는 신우회회장 조창래, 오문숙)에서 환영예배(집전 이재신 동기)와 이어진 오찬으로 재회의 정을 나누었다. 일리노이 노스부르크 거주 홍순희 동문 방문은 4월 25일 저녁 공진 송파 회원들이 장실 채선당 석찬으로 환영하였다. 18회 신약회(회장 표천근, 김영옥)에서는 2월 19일 칠계산 계곡에서 정성껏 주과(酒菓), 편육을 준비, 향을 피워 신령님들을 모시고 시산제를 올리며 동기들의 건강과 행복, 신령의 무탈을 기원하였고, 3월 19일에는 인능산 낮은 능선을 걸어 내려와 청계역 인근 '영주 한우국밥' 집에서 뜨끈한 국밥과 소주 한 잔으로 우의를 다졌다. 4월에는 우면산 양재 시민의 숲을 걷고 '참밭 순대국'으로 동기회를 다졌다. 5월에는 선농 축전의 열기를 몰아 서해안의 수역사와 운봉길의 사 기념관, 해미생지 참배 및 음성관광을 계획 중이다. 뉴질랜드 거주 박영철 목사 화백도 동참할 예정이다.

▶19회_ 부회장 장동원



4월 3일 동창회가 주최하는 일구회 양재천 빗꽃 번개팅 모임(주관: 서지영, 이상분)을 33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빗꽃은 절정의 시기를 살짝 넘어서 바람이 살랑거릴 때마다 꽃잎이 휘날리며 나무껍질이 머리 위에 슬며시 내려앉는다. 사실 꽃놀이보다는 친구들과 말린 얘기하는 게 더 좋다. 빗꽃 타날을

지니며, 가끔 위를 쳐다보거나, 망채천 가에 해극히 늘어선 빛꽃에 잠시 눈길을 보내기는 해도, 역시 꽃보다는 친구들이 먼저다. 정담을 나누며 길을 걷다가 아름답고 인상적인 장소에서는 어김없이 사진을 찍어 친구들의 잊지 못할 모습을 훗날 아련하게 추억하며 오래 간직할 수 있었다.

▶20회_ 회장 이종오, 김영옥



까끼머리 남학생은 멋진 노신사로 단발머리 여학생은 고우 할머니로 만들어 준 55년의 세월, 어느덧 우리는 찰싹 중반의 나이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20회는 올해 졸업 55주년을 맞는 5월 셋째 주를 홈커밍 데이 주로 정하고 많은 행사를 개최했다.

5월14일 선농축전 / 5월15일 청와대 산책 / 5월16-5월17일 선유도 1박2일 단체여행 / 5월18일 선구회 골프대회 / 5월19일 홈커밍 행사 (만찬 공연, 여흥) / 5월20일 W&R 달리기, 걷기 / 5월21-5월25일 베트남 여행. 이번 55주년 행사에는 해외에서 거주하는 동기들도 많이 참여하고 좋은 행사가 되기 위해 이종오 회장, 김인식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추진위원이 여러 번의 회의와 현지 답사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 55주년 행사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즐겁고 오래오래 추억할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되었으리라 믿는다.

▶21회_ 회장 김영수



21회 하이딩! 23년 새롭게 출발한 23기 신입회장단은 2월 9일 각 동아리 지회장 모임을 개최하고 향후 2년간 동기회가 운영할 즐겁고 활발한 활동 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큰 그림을 완성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 계획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계획한 봄 행사가 4월 27일 목요일 김릉부채김 여행이었다. 정동진 선크루즈 호텔 호라이즌 레스토랑에서 오션뷰를 배경으로 분위기와 품격이 갖춰진 경양식 정식 오찬이 끝난 후 메인 코스인 바다부채길은 A, B, C로 나누어 수준별 걷기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A 코스 :

선크루즈 호텔-삼곡항 완주, B 코스 : 삼곡항-역으로 수준 별 걷기, C 코스 : 조각공원 및 바다길 산책 70대 초반 70명의 친구들이 참석한 여행길은 말 그대로 건강과 즐거움이 넘쳐났으며 트레킹 내내 시원함과 행복함으로 가득했던 시간이었다. 더불어 우리들만의 공유 시간이 얼마나 귀한 지를 서로 느끼며 사랑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색색의 영신홍들이 반가이 맞이하는 동명나가사 방운을 끝으로 여행은 마무리되었다.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 건강을 잘 지키고 다음번 공유 모임에는 더 많은 친구들의 참석을 기대하겠다.

▶22회_ 회장 정인준, 김선옥



무이회(22회 산악회)는 3월 5일 아차산에서 시산제를 가졌다.

아차산 고구려 대장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의 장소를 사전 답사한 한순일 동문과 시산제에 올릴 막걸리, 떡, 과일, 고기 등을 준비한 정옥경 회장, 회원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한 송시영 회장, 작년에 이어 올해 시산제에도 참여한 캐나다의 이맘배 동문 등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거행된 이번 시산제에는 28명(남자 14명, 여자 14명)의 동문이 참여하여 올 한 해 동안의 가내 평안과 안전 산행을 기원하였고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 5명은 후원금을 보내 주었다. 한편 4월 2일에는 빗꽃이 만발한 남산 산책로 트레킹을 가졌다. 유난히 계절이 빨리 온 해는 꽃들이 일제히 피어나 봄, 하양, 노랑 등 백화가 만발, 마치 오케스트라의 향연과 같았다. 간혹 짙은 바람에 빗꽃비가 보얗게 휘날리면 아쉬운 마음과 함께 빗꽃은 피는 모습뿐 아니라 떨어지는 모습도 감동이라며 카메라에 모습을 담느라 분주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총 19명(남자 13명, 여자 6명)이 참여하였으며 장충단 공원에서 남산 둘레길을 거쳐 김구 광장까지의 트레킹코스 진행하였다.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대한극장 근처 고깃집에서 점심을 가졌는데 최근 둘째 아들이 결혼한 유원재 동문의 후원금과 오랜만에 자리한 흥사단 한빛학원 이사장의 선물은 모두를 감격하게 하였다. 4월 27일에는 창덕궁 후원(옛 비원)의 가이드 투어를 가졌다. 학창시절 또는 첫사랑 데이트 이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으니 한 번 가보자는 친구들의 빛 발치는 요청에 따라,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46명(남 21명, 여 25명)이 참석하였다. 유명 가수 공연 티켓만큼 구하기 힘들다는 인터넷 입장권을 인터넷에 능숙한 아들, 딸 들을 총동원하여 38장을 마련하고, 나머지 8정은 새벽부터 줄을 선 끝에 현장에서 구매하였다. 한 시간 반 동안 후원의 추억을 만끽한 후, 근처 칼국수 집에서 점심을 가졌다.

● 동기회 소식

▶23회 회장 손창조, 박예인



23회 산악회에서 4월 22일 대관령을 다녀왔다. 1968년 청량리 교정에서 사진반 반장을 역임했던 이구형 군이 미국에서 귀국하여 동행하여 찍은 사진과 글로 23회 소식을 대신한다.

봄의 선자령 풍경을 만나러 가는 날 새벽장을 설치며 일찍 나타난 29명의 친구들과의 반가운 만남과 함께 안락한 버스는 동쪽으로 출발하였다. 카메라 3대가 든 배낭을 메고 스틱을 땅에 찍으며 호기 있게 선자령 산길로 출발하였다. 쌀쌀한 날씨로 봄은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평지의 야생화들이 화려하다. 목표는 선자령 정상에서 시원한 풍경과 함께 친구들의 사진을 찍는 것이다. 하지만 곧 불편한 원발과 저하된 체력이 뒤에서 허리를 잡아 당긴다. 다행히(?) 뒤로 처지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 위로가 된다. 쉬어가며 산길을 오르고 또 내려가고, 호흡이 가빠지고 발의 불편함이 심해지기 시작한다.

A코스 등산을 포기하고 B 코스 하이킹을 하는 친구들의 사진 포즈만큼은 프로급이다. 드문드문 눈에 띄는 진달래가 반갑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 갈수록 등산 시간보다 식사 시간과 수다 시간이 더 즐거운 친구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여러 친구들과의 만남은 항상 즐겁다. 이런 시간을 위해 준비하고 진행한 산악회 집행부와 서로 도움을 주는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낀다. 모두 건강하게 다시 만나는 시간을 기다린다. 23회 산악회 최고!!

▶24회 회장 박명숙



24회 문화유산 답사모임 "24독서담"에서는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환구단과 덕수궁 중명전을 3월 24일 답사했다. 독서담의 유래는 조선시대 학자들에게 일에서 벗어나 경치 좋은 곳에서 유유하책도 읽고 휴식을 하라는 임금

님이 내려준 허락으로 안식년의 개념의 제도였는데 독서담 출신은 이왕, 이미 등 훌륭한 학자들이 많았고 한강의 풍경을 친구십아 벗 놀이도 하고 쉬면서 책을 읽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피난후 돌아온 선조는 궁궐이 불에 타 성종의 형남 월산대군이 살았던 이곳에 임시 행궁으로 거처를 정했고 그때 여기를 정릉 동행궁이라고 했고 광해군 때 경운궁으로 사용하다가 순종임금님 이후부터 덕수궁으로 불리었다. 날씨는 봄날이고 선조, 고종임금님도 편치 않게 보냈을 이 장소에서 우리는 새로 핀 삼구나무 삼구꽃과 함께 봄날을 만끽했다. 덕수궁의 주요한 문화유산 건축물들을 보고 고종의 죽음이 석연치 않아서 국장날 삼일운동의 기록제가 된 근대사의 현장 덕수궁에서 20명이 답사를 끝냈다. 식당과 카페에서 실용실례 중 "사대부고 좋은 학교다"로 결론 짓고 다음달에 만나기로 했다.

▶25회 회장 강준석



멀리 나라 밖까지 소문이 났다. 25회가 올해 졸업50주년을 맞았다고 동기회에서 이런 일들을 받았다. 기념행사 중 하나로 작년에 동기타구대회를 했고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 총동 타구대회에 출전하여 준우승을 했으며 올해 우승을 목표로 맹연습 중이다. 또 하나, 선농축전에서 좀바댄스를 했다. 춤의 '차'도 물렀다는 K양도, 무용 전공을 한 J양도, 시고로 다친 허리 이제 겨우 회복되었다는 K양, '3보 이상 차량이동'이라고 남편의 놀림을 받던 S양도 이렇게 14명 여동과 K×2 군 2명의 남동이 매주 월요일 5회 사담의 어느 연습실에서, 때로는 영상으로 연습하여 선농축전 무대 위에서 관중들과 함께 열기를 뽐내었다. 축전이 끝난 다다음날 5월 16일(화)부터 21일(일)까지 6일간은 30회 김민호 동문이 운영하고 35회 조주영 동문이 큐레이터로 있는 종로 1가의 갤러리(공간 미판)에서 25회 친구들의 미술작품과 사진 등을 전시한다. 멀리 태국에 사는 사진작가, 선사화 사진작가, 25회 화우회 회원 7명, 강릉 거주 화가 등 모두 18명의 작품이 많은 동문을 기쁘게 맞았다. 여쁨에는 지난 50년의 이야기 등을 담은 동기 친구들의 수필·시 등을 모아 문예집을 발간하여 함께 나눈다. 또 하나, 행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여행이다. 10월 22일~24일(2박 3일)에 제주도도 간다. 북미주 거주 친구들 12명 포함 총 64명이 신청하여 그에 따른 호텔 예약, 일정과 장소, 예산책정 등의 여행계획을 지난 5월 3일까지 모두 수립해놓은 상태다. 11월 24일에 50주년 기념의 해 정기 총회 및 송년회를 가짐으로써 멋진 마무리를 하게 된다.

▶26회_ 회장 차경호



화창한 봄날에 신과 들이 여린 녹색으로 물들어 갈 때 우리 동기들은 예쁜 꽃과 시원한 바람과 그라운 친구들을 보기 위해 서울식물원으로 고고했다. 사방에서 모여드는 친구들을 마곡나루역에서 반갑게 맞이하니 모두의 입기에는 미소와 반가움이 가득했다. 정원에 핀 색색의 꽃망귀비, 튤립, 이름 모를 꽃들, 꽃보다 더 예쁜 친구들 모두 우리의 눈을 환하게 했다. 밖으로 나와 호수공원을 끼고 식사 장소로 모여 해물 김치전, 수육, 일출류와 식사하고 기호에 따라서 맥주파와 노래방파로 나누어서 마지막 열정을 불사르고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간다. 만나면 동심이고 헤어지면 어른이 되어 오늘도 주어진 미션과 놀이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또 하루를 보냈다. 그러도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인생이다'라는 말을 되새기며 모일 수 있을 때까지 모이려고 다짐한다.

▶27회_ 회장 이한방, 이명숙



봄맞이 소도시 축제 여행의 하나로 3월 18일, 신록사, 세종대왕릉, 여주 5일장 등을 27명이 참석하여 즐거운 한나절을 보냈다. 오전 10시 여주역에서 만나, 어린이집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 박운중 동문이 재공한 어린이 붓고 버스를 타고 다녔다. 유적설명은 역사에 해박한 이한방 교수가 맡아서 과거의 흔적을 꿰뚫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점심 식사는 여주쌀밥집에서 반주와 더불어 오손도손 대화를 나눴다. 오후 5시 모임이 끝날 때 3부류로 나뉜다. 첫째 부류는 남안파로 현지에 남아서 염소탕을 먹으면서 늦게까지 회포를 푸는 팀, 두 번째 부류는 당일 저녁에 있는 분당 소모임에 참석하는 실속파, 나머지는 집에 일찍 들어가는 가족적 성향의 팀으로 나뉘었다. 개별동문 소식으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계획의 일환으로 4월 4-6일까지 건축전문가인 진양교 교수(홍익대 건축도시학과)가 박람회장과 전시관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세이그들과 올해 생용건설 대표를 맡게 된 김기영 동문은 뛰어난 인수합병 능력 및 재무관리가 뛰어난 경영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생용건설을 24년 만에 민간기업 품으로 인수했고, 해외 사채지 기대를 통해 혼란한 내부 분위기 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회 창출 계획을 밝혔다.

▶28회_ 회장 이예선



4월 1일 봄을 맞아 예담호 출렁다리와 수역사로 봄소풍을 다녀왔다. 예년보다 일찍 핀 벚꽃과 수역사의 고즈넉한 산사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30회_ 회장 장세준



매일 전부터 일기예보는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단비가 내린다는데, 단비가 고입지만 남아섬 야외에서 졸업 45주년 행사를 계획한 30회는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았다. 4월 29일 홍동산 산행 출발지 테크노마트 앞에 우리 30회는 우산을 쓰고, 비옷을 입고 핸드카트에 먹을거리와 농거리 등을 들고 모였다. 계획한 인원 41명에서 37명 참석, 피치못 할 사정 이외에는 다 모였다. '나미나라'는 모근한 물 안개로 싸여 있으며 우리를 안아 주었다. 빗방울도 싫지 않았다. 그러다 오후엔 기적처럼 개이기 시작 준비해 온 레크리에이션 3종 경기를 가졌다. 모두 신명나게 뛰고 웃었다. '참 잘했어요' 도장 세 개를 스스로 받으며, 또 다음의 기억을...

▶31회_ 회장 조택하



4월 23일 구리시 동구릉으로 봄 소풍을 다녀왔다. 많은 사람에게 동구릉은 소풍의 추억이 깃든 곳일 게다. 31회 역시 고등학교 때 동

● 동기회 소식

구름으로 소풍을 다녀왔다. 지금까지 왕릉 출입을 제한하는 목적도 없어, 친구들과 놀이터처럼 농장을 맘껏 뛰놀던 추억이 남아 있다. 더군다나 남학생들에게는 학교 대 학교로 치기어린 패싸움을 했다가 곤욕을 치른 기억이 있어 두고두고 추억담에 등장하는 장소다. 따뜻하면서도 아주 맑은 날 떠난 동구릉 봄 소풍은 또 다른 추억을 쌓는 기회였다.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을 비롯해 9기의 능이 있는 곳이라는 점, 능이 적었던 조선시대에는 동오릉, 동침릉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점, 왕과 왕비의 무덤만 능이라고 하고 왕세자의 경우는 흰 나머지 왕족은 묘연산군 묘라고 불렀다는 점, 제사를 지내는 정자각에 다가가는 돌길은 영혼이 가는 항로와 임금이 지나는 어로로 나뉜다는 점, 건원릉은 고향 함흥을 그리는 태조의 유언에 따라 함흥 역새로 덮여 있는 유일한 능이라는 점, 청안(역새)에 초일이라는 행사를 하는 한식과 역새가 활짝 핀 11월에는 왕릉에 올라가 능 전체를 내려다 볼 기회가 있다는 점 등 알릴이 다 열거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다. 고등학교 때 같은 연대수 만청을 부렸었지만, 해설사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역사 해석의 의견까지 제시하는 친구들의 진지함은 45년 사이에 심숙해진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주변 경치 좋은 찻집에서 덤소를 나누고, 일부는 구리 사는 친구 집에 가 barbecue 고기를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역사는 친구는 좋은 것'이며 '를 속으로 되뇌며, 친구가 가을 소풍도 가지!

▶ 32회 회장 김정애



4월 2일 32회 동창회는 산악회 주관으로 생전에 친구들의 우정을 돈독히 이끌어 주었던 만년총무 고정창호 친구의 10주년 추모 행사를 많은 친구들과 선배님들의 도움 속에 성황리에 잘 마쳤다. 오전엔 그가 참여하였는 청아공원에서 조촐하게 추모식을 올리고 이어 관악산으로 추모산행을 다녀온 후 오후엔 종로 걸러리 공간 미술에서 추모사진전과 함께 영상물을 보며 옛시절을 추억하는 색다르고 뜻깊은 자리가 되어 의미있는 하루로 기억되었다. 그리고 4월 16일엔 총동산행에서 진행한 정선 함백산 만항재에서 화절영까지 15키로 이상의 긴 문탄고도 길을 기분 좋게 7명의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화기애애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따뜻한 봄날의 끝자락인 22일 주말엔 송파구에 위치한 소마미술관에서 '다시 보다, 한국 근현대미술전을 관람하며 문화적 소양을 쌓았으며, 인근 올림픽공원 조각공원에서 산책과 더불어 점심과 차를 마시며 끈끈한 우정을 나누었다.

▶ 33회 회장 노용오



33대이를 맞이하여 오랫동안 33회 동기담게 회포를 풀고, 정회관 저번 확대사업인 '만원의 행복' 연구 '꽃을 사절합니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죽음을 앞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 34회 회장 지명수



3월 4일 동창회관에서 38명이 참석하여, 건강이라는 테마로 3년 만에 34회 34대이를 진행하였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동기 최순규 박사를 강사로 초빙해서 '좀 더 건강한 나를 기대하면서'라는 주제로 건강강의를 들으면서, 음식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35회 회장 김영범



'함께한 40년, 영원할 35회'라는 슬로건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고 있다. 3월에는 연산자락 둘레길 산행과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며, 정기총회에서 이영범 회장은 "친구들과 함께 보낸 40년이란 시간을 뜻깊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며 "50주년에도 건강하게 친구들이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4월에는 청바지 주관으로 불암산에서 꽃향기를 맡으며 즐거운 산행을 했으며, 총동문산악회가 주관한 영월 문탄고도 5길을 걸으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5월에는 선농축전의 하나로 총동문산악회가 진행하는 '천장산 하늘길의 안내 및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과 40주년 밴드 공연을 위해 힘껏 소리치며 응원을 전했다.

▶36회_ 회장 김선경



동기산악회는 4월 1일 허정은 산악회장 외 20명은 서대문 인산 자락립코스 산행을 하였고, 등산 후 회원들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반년회 행사로 6월 10일 밤이 더 아름다운 일산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즐거운 저녁 시간을 가지려 한다.

▶37회_ 회장 이승수



올해 들어 2번째 모임이다. 맛있는 음식을 즐거운 벗과 함께 한다는 것보다 행복한 것이 있을까? 이번 모임은 입구정역 근처 열아베리교라는 맛집을 선정하여 25명의 만남이 더욱더 즐거웠다.

▶38회_ 회장 한경균



신당 다락이라는 아늑한 식당에서 38회 10명이 4월 26일 춘계 번개모임으로 모여 훈훈하고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 워리너이자 화끈한 우리 여동 채윤, 왕눈이 주원, 여전히 성우같은 목소리와 바른 생각으로 유치원계를 이끌며 가주는 지혜의 여신 구진, 38회 첫 회장님, 자기관리 잘해서 멋지게 살아 돌아온 자송, 여전히 의리 있고 전혀 아저씨 같지 않은 천영, 참이슬을 맞으며 두박하지만 우직하게 우리 모임을 지켜주는 대구, 아이들 외모에 방송 출연하러 출근하는가 싶었지만 묵묵히 첩보입수를 위해 늘 끝까지 함께 해주는 본선, 우리 모임을 기도와 함께 이끌어주시는 한경균 회장, 차분하게 청거주는 한영아 총무의 함께해서 감사하고 즐거웠다.

▶39회_ 회장 정거장



3월 9일 석계역 황금오리에서 24명의 동가들이 모여 천하39당 정기모임을 가졌다. 그날 동기 류지한 친구의 YMCA 본부장 승진을 축하하는 시간도 있었다. 2023년엔 정거장 회장과 심문숙 총무가 새 임원진으로 선출되어 지난 3년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동기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43회_ 회장 김도연



총동문 산악회 4월 정기산행인 운탄고도 5길에 김도연, 김연중, 정원심,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된 임창호 친구가 함께 했다. 제법 긴 거리를 정해진 시간 내에 걷는 쉽지않은 코스였고 평소 정기적으로 산행에 참여하던 여러 친구들이 개인적인 대소사로 금번 산행에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걷는 길 내내 수줍게 보여주던 이름 모를 들꽃들의 향연과 이른 봄을 사색하듯 날리던 촌심(春心)까지... 계절이 교차하는 길을 함께 걸으며 많은 대화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46회_ 회장 윤석훈



3월 18일 46회 정기모임이 미아사거리에서 있었다. 몇 년 만에 9명의 친구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그동안의 인부를 묻고 선농축전에 다시 모이기를 약속하였다. 총동창회 김연중 선배가 모임에 참석해주어 동창회 여러 가지 진행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고 46회 모임에 힘을 실어주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임원회비 및 연회비 납부자 명단

“동창회 사랑은 연회비 납부로부터”

2023. 1. 1
-
2023. 5. 17

연회비 4만원, 모교발전기금 1만원입니다.

보내주신 연회비는 투명성과 합리적 관리 체계로
친아부고의 역사를 재구성합니다.

사랑을 보내주신 동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납부방법 (문의 : 사무처 02-588-7871)

- ▶ 우통장 입금 : 우리은행, 서울서대문구 동창회 계좌 1005-103-688336
- ▶ 지로 입금 : 동원한 지로용자 이용 금융기관에 납부
- ▶ 현 장 납 부 : · 각종 행사 동창회에서 접수 청구 설치 예정
· 동창회관 2층 사무처에서 연중 접수

임원회비

회장회비 (200만원)
이진형(26회)

부회장회비 (100만원)

권오윤(26회), 김인재(26회), 노희숙(26회), 박성환(26회), 박영희(26회), 백근기(26회), 변순영(26회), 신용경(26회), 유서영(26회), 유지석(26회), 정성호(26회), 차경호(26회), 최상범(26회), 최희경(26회), 현숙희(26회), 김진배(27회), 삼상연(27회), 이육식(28회), 장덕상(30회), 김영준(32회), 정순철(36회), 최치영(36회), 홍자숙(36회), 현숙원(44회)

감사회비 (40만원) 김중규(20회)

기별회장회비 (40만원)

김태우(10회), 광정선(13회), 김성식(15회), 이상래(16회), 이강선(17회), 류현숙(18회), 강한규(19회), 이종오(20회), 김영순(21회), 정민준/김선옥(22회), 손창조(23회), 박영숙(24회), 이예선(28회), 김경순(29회), 장세준(30회), 조택해(31회), 김경매(32회), 노용오(33회), 지영수(34회), 김선경(36회), 임성원(48회)

이사회비 (20만원)

이희숙(13회), 김영자(14회), 황대우(14회), 황혜선(14회), 구화자(15회), 김경매(15회), 연향홍(15회), 잔근찬(16회), 김혜령(17회), 이병림(17회), 정명애(17회), 정인숙(17회), 김경임(18회), 김경희(18회), 장구하(18회), 김인선(19회), 문용열(19회), 한정희(19회), 김경오(20회), 김승우(20회), 김창수(20회), 김태수(20회), 송리과(20회), 이기정(20회), 이재승(20회), 노부호(21회), 박해동(21회), 안희영(21회), 안희태(21회), 조석순(21회), 한민덕(21회), 홍현숙(21회), 권영철(22회), 김기영(22회), 원세현(22회), 문소영(22회), 이홍자(22회), 정운정(22회), 최도성(22회), 김중희(23회), 박해민(23회), 배성숙(23회), 이규용(23회), 이지용(23회), 정만용(23회), 정성식(23회), 정운용(23회), 이경희(24회), 이기찬(24회), 이사람(24회), 조규석(24회), 서동훈(27회), 김은선(30회), 박귀희(30회),

이화근(30회), 배병철(32회), 김미미(34회), 이경미(34회), 강현철(44회), 김성진(48회), 박종학(48회)

기별분담금

50만원 : 13회, 15회, 16왕, 38회, 39회, 48회 / 300만원
100만원 : 17회, 18회, 19회, 20회, 21회, 22회, 23회, 24회, 26회, 27회, 31회, 32회, 33회, 36회 / 1,400만원

연회비

- 1회 : 故박병배 (1명)
- 2회 : 김여승, 변용성, 정현태 (3명)
- 3회 : 김영이, 백남수, 이의영 (3명)
- 4회 : 김영순, 김인수, 김민수, 김정자, 김탁일, 김태희, 유지환, 최계숙, 최영숙 (9명)
- 5회 : 김중오, 나규순, 박세춘, 신현태, 윤명열, 이해영, 임공빈 (7명)
- 6회 : 김명국, 박순자, 박종오, 안인선, 안영원, 윤서연, 이순원, 이재분, 이종열, 임은경, 홍성일 (11명)
- 7회 : 정동호, 김영숙, 김종화, 김홍현, 목요삼, 박영숙, 박성호, 손원주, 송태진, 심영보, 만정순, 윤승태, 이봉주, 이윤분, 이재원, 이창인, 임동호, 정극수, 정숙경, 주영숙 (20명)
- 8회 : 권오윤, 김삼열, 김의재, 김인애, 김태권, 박봉순, 송복경, 우종삼, 이묘별, 이희자, 이윤근, 이상애, 홍순자 (13명)
- 9회 : 고화영, 김낙배, 김경원, 김지현, 김태환, 민대식, 변금진, 양현순, 염정자, 이기준, 이숙경, 전수영, 정신구 (13명)
- 10회 : 권혁춘, 김연기, 김윤순, 김홍서, 김주영, 김중환, 김창규, 김태우, 김현순, 민경선, 박귀희, 박인재, 박임성, 서교자, 염준세, 이규식, 이규진, 이선호, 이순규, 이윤주, 이종구, 이종무, 이창배, 장병용, 전성희, 조정호, 진병식, 최관용, 최중서, 하영환, 한규섭, 한은희 (32명)
- 11회 : 강신준, 강창호, 권오경, 김영숙, 김 인, 김정기, 김정자, 류재호, 민원기, 박성해, 박여일, 박창욱, 정기호, 신해숙, 연홍숙, 이광윤, 이민자, 이정자, 이창동, 정영자, 정지우, 최영자 (22명)
- 12회 : 김기중, 김영철, 김철희, 김희춘, 민수광, 박영자, 신동경, 심한설, 안광자, 원병희, 유승윤, 이문영, 이문호, 이정자, 임영자, 정관호, 정 철, 조준재, 한길백, 호준익, 황원섭 (21명)
- 13회 : 강양민, 박정선, 김동환, 김수창, 김명일, 김용민, 나길용, 박영범, 박영숙, 배영식, 박순숙, 백효빈, 변영일, 손문익, 심순식, 오형근, 우영남, 원운자, 윤병수, 이기재, 이석호, 이순자, 이원호, 이웅중, 이의근, 이장국, 이철용, 이치운, 이해민, 이 현, 이형백, 이혜자, 이희숙, 이희자, 임경자, 장순주, 전 관, 정길자, 조정자, 조한익, 채수영, 최규순, 최부일, 한정선, 홍경자, 홍해자 (46명)
- 14회 : 고문자, 권용규, 권철해, 금정호, 김광자, 김중숙, 김동호, 김성자, 김용찬, 김민숙, 박준삼, 방수자, 변정선, 변종훈, 서정숙, 손문자, 송기범, 신호영, 안영훈, 안영근, 양숙자, 유기원, 윤덕중, 이건우, 이광재, 이규중, 이대경, 이병일, 이선자, 이순민, 이아연, 이영달, 이윤근, 이창홍, 이태윤, 전문자, 정규학, 정선자, 조경자, 조영자, 조관숙, 조종하, 채현기, 채해자, 최영삼, 최철건, 허민영, 한영광, 허수정, 홍수경, 홍창용, 황대우, 황대현, 황혜선 (54명)
- 15회 : 강영옥, 구용애, 구화자, 권순옥, 권일강, 김경숙, 김경매, 김경자, 김동철, 김명자, 김보혜, 김성식, 김수자, 김승훈, 김신자, 김영갑, 김정윤, 김종걸, 김진홍, 김태경, 김홍중, 박기용, 박순영, 박 승, 박원세, 박정옥, 배수자, 백정현, 성목희, 손용구, 송위섬, 신현철, 연향홍, 원진수, 윤계섬, 윤미애, 윤병길, 윤철선, 윤홍자, 이경자, 이남구, 이부자, 이승관, 이승자, 이영선, 이윤이, 이정복, 이종용, 이태경, 임드희, 장규식, 정기춘, 전행자, 정동진, 정영자, 장승소, 정문덕, 정해경, 조성환, 조종민, 조해석, 주성수, 진창수, 채영세, 최영옥, 최원명, 홍영표, 홍원우, 황동규 (69명)
- 16회 : 강기중, 강소화, 강민자, 김광현, 김영희, 김양자, 김영선, 김윤중, 김중숙, 김진국, 김동자, 남득현, 노준용, 명해열, 박경환, 박수일, 박정숙, 박찬용, 방유정, 신동복,



- 신민숙, 심춘자, 심향설, 양정윤, 오성원, 유진희, 이상희, 이소경, 이소희, 이영애, 이정희, 이종건, 이주영, 임매자, 임승빈, 장용중, 정재영, 정민호, 정영경, 정영숙, 정진구, 정태영, 정태영, 조현오, 주현걸, 천주훈, 현근수, 현동진, 홍사순, 황양순 (51명)
- 16회 권진세, 김병만, 김순자, 김장환, 김종건, 박영순, 송영배, 이광로, 이근자, 이병희, 이진구, 전홍식, 정승진, 진근찬 (14명)
- 17회 강신호, 강창길, 권덕영, 권경호, 권유중, 김동우, 김명재, 김명자, 김백규, 김성호, 김영은, 김영자, 김영철, 김영희, 김영희, 김옥래, 김원영, 김우현, 김원희, 김원규, 김원희, 김희석, 김희철, 김희철, 김진우, 김준기, 김효섭, 나진숙, 남기영, 노창무, 문정자, 박영선, 박진규, 박준희, 박준자, 박준진, 박해영, 박해우, 송병길, 송영수, 신길순, 신진우, 임재욱, 임정철, 오동근, 오성환, 유경열, 유기동, 유대준, 유지현, 유진영, 유창중, 윤현오, 이경선, 이광성, 이근수, 이흥우, 이광민, 이병필, 이병식, 이병환, 이성용, 이성환, 이일희, 이정숙, 이종욱, 이현숙, 이화숙, 이화연, 이효은, 이희연, 임근식, 임재홍, 임정택, 장문진, 장문선, 장재선, 김정수, 진재영, 정기현, 정영애, 정병조, 정 선, 정승채, 정민수, 정희봉, 조대영, 조보연, 조정경, 채희자, 최서진, 최승우, 한순희, 홍광숙, 황광익 (95명)
- 18회 고순호, 권오성, 권경임, 김경희, 김성윤, 김순애, 김용배, 김경순, 김형길, 김현성, 류현성, 변진석, 송남영, 오진영, 유재희, 이광렬, 이덕연, 이명섭, 이상조, 이재일, 정광준, 장광우, 전동수, 정동선, 정준양, 정탁우, 조동란, 조창태, 진영은, 표현근, 홍정순 (31명)
- 19회 강경식, 구재욱, 김동진, 김영기, 김영복, 김영진, 김성복, 김순자, 김용호, 김원선, 김인선, 김 정, 김종현, 김해성, 문창석, 박정숙, 박 중, 박 찬, 박치용, 박현숙, 박홍길, 성영준, 손한리, 서지영, 송영숙, 신태권, 유연재, 유옥자, 유은영, 이근성, 이기훈, 이상분, 이상일, 이옥용, 이병강, 이인숙, 이인지, 이재희, 이지영, 임석재, 임재봉, 장기숙, 장동현, 장수영, 진석연, 최유경, 한도희, 한보희, 한정의, 현영숙, 황석영, 황창숙 (52명)
- 20회 강석안, 김은자, 김진경, 고성순, 고승범, 구관서, 권오준, 권민희, 김경오, 김기성, 김기순, 김상현, 김성진, 김수혜, 김명순, 김명옥, 김옥희, 김용민, 김 인, 김인식, 김용규, 김진보, 김진수, 김창희, 김현숙, 남기윤, 민성남, 박동욱, 박상연, 박수철, 박영순, 박영숙, 박정숙, 박준규, 박종남, 손정순, 송리려, 송선길, 송재영, 신은순, 양규석, 양영숙, 양공섭, 원선자, 유인선, 윤금호, 윤두중, 이경선, 이기상, 이난희, 이병달, 이상민, 이석호, 이상규, 이상훈, 이서영, 이소현, 이우용, 이종오, 이종일, 이찬민, 이혜민, 이호림, 임광수, 임희규, 정기문, 정민영, 정병순, 정우식, 정희준, 조남철, 조문행, 조은희, 조영민, 자성민, 채성준, 허정태, 한규현, 한희숙, 홍상하, 홍숙희, 황근구, 황창임 (84명)
- 21회 강광희, 강권철, 강인하, 강정희, 고종환, 구순화, 김동준, 김미화, 김성림, 김여영, 김명수, 김명숙, 김용빈, 김원근, 김주완, 김재진, 김해경, 김혜순, 노부호, 노사정, 민태욱, 박수영, 박순호, 박종만, 박재동, 박해욱, 서정곤, 송원영, 안양근, 안희태, 임익환, 오부근, 오원석, 오정희, 원용국, 유성규, 유정옥, 윤기영, 윤치훈, 윤향수, 이상민, 이서형, 이영희, 이은석, 이창걸, 이해문, 임재배, 전재너, 조석순, 조성교, 지운영, 차현덕, 평경애, 한대교, 홍기숙, 홍현숙, 황준용 (57명)
- 22회 강인숙, 고석현, 고영희, 김광광, 김선옥, 김성순, 김성철, 김수정, 김민희, 김문배, 김익식, 김인일, 김재홍, 김진영, 남은순, 박계희, 박남준, 신인섭, 유인섭, 이기용, 이상규, 이상필, 이수태, 이윤규, 이의상, 이종문, 이창순, 이필녀, 이홍숙, 이홍자, 정광민, 정옥경, 정윤정, 정민준, 정진태, 표정자, 한순일, 한승훈, 한준희, 허무정, 홍사건, 홍사순 (42명)
- 23회 곡삼근, 김광민, 김성현, 김순호, 김영희, 김우식, 김경영, 김진규, 김태현, 김태홍, 김현숙, 명형철, 문순자, 문인화, 박상숙, 박옥규, 박요근, 박재희, 박종석, 배경숙, 배환기, 성찬걸, 송영길, 신기수, 신연선, 유원영, 유종선, 윤영자, 윤영규, 이경희, 이규명, 이영자, 이언기, 이창용, 이현식, 이홍순, 정영숙, 장인환, 정재희, 정대영, 조동순, 조시현, 조영래, 조현복, 주성혜, 채도희, 최경진, 최병철, 최인숙, 최정애, 한영민, 한홍자, 홍복기, 홍승영, 홍현숙 (55명)
- 24회 강영숙, 강인화, 강은만, 강준원, 강준환, 계영희, 김경남, 김경순, 김경애, 김경희, 김고민, 김기형, 김남길, 김도태, 김성훈, 김명민, 김명철, 김유준, 김인성, 김재선, 김중식, 김진경, 김태갑, 김한상, 김해중, 김해경, 김해린, 김해선, 김희은, 남정애, 노남서, 문상영, 문재현, 문준애, 민광진, 박명숙, 박영희, 박성영, 박순순, 박윤진, 박정민, 박주영, 배영수, 박인화, 박영란, 변영희, 변형원, 서광호, 신성규, 손일형, 송기욱, 송영훈, 송인기, 송한식, 신명선, 신영숙, 신영진, 신영복, 심기윤, 심정숙, 유병국, 유순옥, 윤미용, 이경희, 이근석, 이기순, 이기찬, 이서달, 이상필, 이상범, 이영민, 이영자, 이인숙, 이재홍, 이재규, 이진순, 이태훈, 이향희, 임상수, 임정훈, 임혜영, 진중현, 정경훈, 정교철, 정근식, 정문호, 정우교, 정인숙, 정현옥, 조규식, 최경자, 최광우, 최명현, 최성준, 최성식, 최영귀, 최옥수, 최형기, 최희영, 한성용, 한정화, 한주숙, 허가영, 허동욱, 홍리태, 홍상주, 황기하 (107명)
- 25회 강은창, 강태숙, 권경민, 김명희, 김병애, 김보미, 김민희, 김정진, 강정숙, 김창동, 김도진, 김해석, 배원중, 변진호, 서병길, 심삼덕, 심상우, 양말숙, 윤상학, 이상일, 이수자, 이영규, 이원호, 이준원, 이학길, 이형래, 이 훈, 임우성, 장 선, 정성태, 정영숙, 조순자, 조은순, 조현우, 한영순, 홍성태, 황건중 (37명)
- 26회 권금옥, 권영선, 김경옥, 김명자, 김명희, 김순희, 김명실, 김원일, 김인자, 김재자,

- 박광모, 변순영, 신윤경, 유양순, 윤석균, 이강원, 이윤은, 장복현, 정영희, 정영이, 조순경, 차경호, 최매자, 최해숙, 함석봉, 홍영구, 홍진오 (27명)
- 27회 계용준, 고광희, 고영희, 권영옥, 권현수, 김기명, 김명숙, 김서영, 김명아, 김명희, 김유경, 김지현, 김진희, 김주인, 김현숙, 남천현, 박교식, 박승철, 박진배, 서동훈, 심상민, 양관오, 이난희, 이명숙, 이우용, 이주용, 이한방, 임용규, 진양교, 최관호, 최성민, 한현우, 홍해경 (33명)
- 28회 김홍오, 김홍철, 김한길, 임동준, 송예빈, 유재영, 이수경, 이예선, 조병희, 조석현, 조영수, 채동훈 (12명)
- 29회 김석준, 김판규, 노영남, 민영주, 박미숙, 안성용, 양경미, 영경희, 유보형, 이경민, 이봉연, 이상배, 이재훈, 이정준, 정병덕, 허석자 (16명)
- 30회 김미숙, 권유수, 김대진, 김영춘, 김은선, 박귀희, 박재용, 박찬호, 성학진, 송원기, 신선미, 안태연, 오호진, 이진구, 이혜연, 장익성, 장동근, 장영서, 장연삼, 태종순 (20명)
- 31회 김명준, 김경훈, 김기운, 김동백, 서종원, 손혜경, 이창현, 이형준, 임혜진, 장관현, 정시현, 정하영, 조창식, 한경중, 한순영 (15명)
- 32회 권희안, 김광배, 김상숙, 김상연, 김명래, 김영준, 김정애, 김희경, 김희정, 나기훈, 박우선, 배병철, 성대중, 안상진, 임영희, 장순희, 최홍봉, 한은석, 홍태일, 황영자 (20명)
- 33회 김경영, 김경연, 김광훈, 김명래, 노용오, 엄기섭, 주철민, 지동희, 지현호 (9명)
- 34회 강구창, 박봉우, 유순화, 이원중, 정정화 (5명)
- 35회 강성경, 김경애, 김동욱, 김명자, 김미경, 김성배, 김석갑, 김숙현, 김영명, 김영숙, 김 용, 김은희, 김창현, 박종만, 안도윤, 이매룡, 전종구, 조용수, 주리현, 허남길, 황준성 (21명)
- 36회 고영준, 김경민, 류한경, 마이경, 박기로, 서경숙, 이덕연, 이말섭, 이화진, 장보아, 장임철, 정순철, 최병석, 최치영, 허정윤, 홍성표, 홍지숙 (17명)
- 37회 김명애, 오현주, 이숙수, 황승경 (4명)
- 38회 김진구, 박영애, 오인환 (3명)
- 39회 류지안, 박동근, 이상민, 이종오, 최선옥 (5명)
- 40회 김현정, 양성환 (2명)
- 41회 김준표, 박혜진, 임재순 (3명)
- 42회 김세현, 김희순, 박남희, 조일형, 최현숙, 한승주, 한정민 (7명)
- 43회 김도연, 김장아, 김연중, 김태균, 목호찬, 이승환, 정원심 (7명)
- 44회 강현철, 김형라, 인주덕, 정동근, 현숙원 (5명)
- 45회 박희선, 이승진, 최정운 (3명)
- 46회 김은옥, 박지혜, 오 용 (3명)
- 47회 김진경, 김현정, 박성용, 정혜영 (4명)
- 48회 권형택, 김성진, 박상수, 박종학, 윤서민, 임성민 (6명)
- 49회 구진백, 조영숙 (2명)

• 무기명 : 24명 • 납부인원 : 1,222명

럭비부 유니폼 전달식

서울사대부고의 자랑인 럭비부에 유니폼을 지원하는 전달식이 지난 5월 10일 모교에서 열렸다.

이날 전달식에는 유인선 동문(20회)과 이진형 총동창회장(26회)이 참석했으며, 모교에서는 이화성 교장과 럭비부 감독인 남용훈 동문(52회)를 비롯해 럭비부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진형 회장은 "총동창회에서는 서울사대부고를 빛내고 있는 럭비부의 경기 일정을 알려주어 재학생과 동문들이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총동창회에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사대부고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준 여러분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사대부고 럭비부는 지난 4월 28일에서 5월 5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된 2023 사닉스 월드 럭비 유스 토너먼트 대회에서 메달을 받았다.

모교 도서관 재개관식

서울사대부고 도서관이 새롭게 리모델링을 마치고 3월 24일(금) 새로이 개관행사를 하였다.

지역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고 부고의 도서관 선배(21회 김여영, 24회 김기황, 박명숙)와 33회 노용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며 자리를 빛내주었다.

행사 마지막에 학교 내부를 둘러보고 도서관 재학생들과 옛 추억을 이야기한후향후 도서관의 명맥을 이을 후배들과의 모임을 약속하였다.

〈도서관 회장 김기황〉

지난 주 모교 도서관 재개관식에 도서관 동문 자격으로 초대받아 참석하였다. 어렵게 살던 50여년전 우리 학창시절의 침침한 분위기의 도



서관과는 사뭇 다른 밝고 깔끔한 환경과 분위기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였다.

반갑게 맞이해 주는 도서부 재학생 후배들과 49공탄 연탄불 같던 이야기들 그들이 이해 못하는, 아니 이해할 수 없는 그때 그 시절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아이들은 우리 세대가 갖지 못했던 이 좋은 환경과 시

설을 마음껏 활용하여 아름다운 추억을 가꾸고 꿈과 희망을 크게 키워서, 자기자신을 계발하고 발전시켜 이 사회의 큰 동량이 되어 모교 서울사대부고도 빛내고, 내 나이가 되어서는 나처럼 후회로 가득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 인간은 지나면 늘 후회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인류와 지구의 행복 ESG 경영으로 영원해집니다



방글라데시에 300만평의 숲을 조성하여
130여종의 동,식물들이 다시 숨쉬는 땅으로!

전 세계 곳곳에
Roof-Top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비하여
저탄소 고효율의 친환경 에너지로!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를 지원하여
누구나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세상으로!

영원무역의 ESG경영이 만드는 것은
자연과 사람 그리고 기업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행복'입니다

YOUNGONE
SINCE 1974